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0월 28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주간)

깨달음의 길 찾는다

백양사서 내달 21~25일 야단법석… 고우 스님 등 강의·토론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집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갈애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부처님의 오도송)

이 게송에서 집은 몸을, 집짓는 자는 갈애(渴愛)를, 서까래는 모든 번뇌를, 대들보는 무명(無明)을 뜻한다. 무명을 밝혀 번뇌와 그로 인한 갈애가 본래 공함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것은 모든 구도자의 목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言語道斷 心行處滅)'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이 불가 하기에 논의자체가 금기시되는 경향 조차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과정이다. 이런 가운데, 침묵과 희론(戱論)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찾는 진지한 야단법석이 열려 관심을 모은다.

고려 각진 국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소요, 태능, 편양, 진묵, 연담 스님과 조선말기의 백파, 학명, 만암, 용성, 인곡, 고암, 서옹 스님 등이 정진했던 호남불교의 근본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 이곳에서 11월 21일 정오부터 25일 오후 2시까지(4박5일)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주제로 법석이 펼쳐진다.

현대불교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지난 8월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려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에 이은 두 번째 법회이기도 하다.

21일 정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입재법어로 문을 여는 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21일 오후 2~9시),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묵 스님과 (사)동사섭 이사장 용타 스님(22일 오전 8시~오후 9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과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23일 오전 8시~오후 9시),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24일 오후 2~9시)이 강사로 나서 '깨달음의 길'을 모색한다. 도법 스님은 25일 오전 8~11시,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한다.

고우 스님은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시몽 스님은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법하고 질문을 받는다.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통해, 용타 스님은 동사섭을 통해, 월암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통해, 각묵 스님은 초기경전을 통해, 향봉 스님은 조사어록을 통해 정각의 길을 찾는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무위진인(無位眞人: 불성) 즉, 차별 없는 참사람운동을 펼친 서옹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개설하는 이번 무차법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간화선 · 간경 · 보현행 · 동사섭 등 수행법에 관심이 있는 사부대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참비는 출가자 10만원, 재가자 20만원이다. 선착순 200명. (061)392-7502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

290표 득표로 '역대최다' … "종단 발전 매진" 각오 밝혀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역대 최다 득표, 최다득표율, 최다득표차로 당선됐다.

10월 22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자승 스님은 전체 선거인 320명 중 90.62%인 290표를 득표해 당선했다. 투표에는 317명이 참여(투표율 99.06%)했으며, 기권 6, 무효 14표가 나왔다. 기호 2번인 각명 스님은 3표, 3번 대우 스님은 4표를 획득했다. 중앙선관위는 곧바로 자승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는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자승 스님은 당선증 교부 직후 "제33대 총무원장으로 뽑아준 24개 교구 320명 선거인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종단 중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당선확정 직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당선을 고불(告佛)하고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당선 인사를 올렸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고생 각오하고 잘 해달라"고 당선 축하 인사를 건냈다. 지관 스님은 함께 배석한 자승 스님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후임원장 추대 및 선출까지 고생이 많았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달라"며 "부처님 법에는 주와 반이 있는데 법문인 주와 들러리인 반이 모두 하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자승 스님은 "32대 숙원 사업을 이어받아 잘 정리하겠다"며 "내일 원로회의에 방문해 인사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선 인사에 이어 4층 대회의장에서 당선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승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 대덕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매진하고, 신심과 공심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냈다"고 자평하며 "여법한 선거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종도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거가 차분하고 조용히 치러졌다. 인수위 사무실 마련 등 당선자 취임까지 종단 공식 일정으로 업무 인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 취임식은 11월 5일 11시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법구경

백 년을 무의미하게 살기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명상과 지혜의 빛 속에 살아라.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패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社告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종)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 일 시 :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 코 스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반달-마일리 -불불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시-반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 인 원 :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참 가 비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입 금 계 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접 수 마 감 : 10월 30일(금)
- 사전설명회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 02-2004-8233, 017-236-5769 임연태 부국장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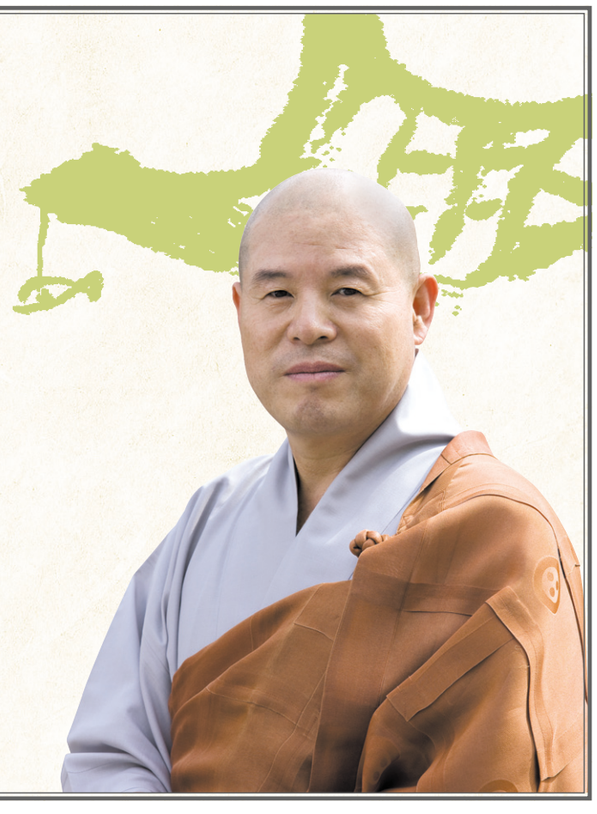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국민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삼보(歸命三寶) 하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소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종단과 나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귀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 문중과 교구를 떠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안정과 화합'이라는 토대를 구축한 제32대 총무원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이라는 결실을 맺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고사를 거울삼아 임기 내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납은 한국불교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로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수행 종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체대비(同體大悲) ·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4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이하 종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종무행정의 공백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승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책과 관심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합장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장병 마음 위로할 손길 되길

얼마 전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또 한 명이 자살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달 새 한 부대 내에서 2번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온 부모님들로부터 가정의 형편까지 들으니 떠난 이들의 고충이 느껴졌다고 한다.

양부모님은 암을 앓고 계셨고 집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쌓여 가정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또 다른 사병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 있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오열했다.

세상을 등진 두 사병 모두 몸은 군대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집안 걱정이었을 테고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청년은 부대에서의 말 못할 고충으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한 마디, 작은 손길, 따뜻한 격려가 아쉽던 때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전 농협대 교수)이었다. 올해 7월 결성된 군포교지원단이 대불련 강원지부 출신을 중심으로 20명의 포교사를 양성, 포교기반이 약한 강원 일대 중·동부전선 전방 부대의 법당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된 포교사들은 교직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돼 포교의 다변화와 함께 군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박 단장의 목소리에는 원력이 담겨 있었다.

쵸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바뀐다는 군대에서 불교계의 핵심 인재들이 모인 대불련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이 군포교를 위해 앞장선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지관 스님은 33대 차기 총무원장에게 "수행도 중요하지만 대사회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다면 (중생구제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본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조계종이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또, 19일 발표된 승가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스님들은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승려의 역할을 사회적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곧 다가올 겨울과 새로운 한 해 불교계가 참여해야할 사회문제는 산재해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관세음보살의 대자비를 전하는 원력이 가을바람을 타고 스님들에게도 전해지길….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다수 지지로 강력 종책 집행

소통의 리더십 예상… '포용'의 종무행정은 과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22일 자승 스님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강 구도로 지속된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다득표로 드러났듯 종단 운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종회와 교구본사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차기 집행부의 강력한 종책 집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겠다"는 어록으로 총무원장에 임하는 자세를 밝힌 자승 스님. 올해로 세랍 55세인 스님은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세랍이 77세인 것에 비하면 무척 젊다. 총무원장이 젊어진 만큼 카리스마의 리더십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이다. 집행부의 연령대도 낮아져 대사회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승 스님은 23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총 25명 중 참석한 23명의 원로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인준 받은 직후 "젊은 만큼 더욱 종정예하와 큰 스님들을 잘 모시고 종단 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대정부 활동에 대해 "향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소통'의 정치를 예고했다.

각 교구본사의 압도적인 지지가 종책 집행 등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계파나 개인 이익보다 종단발전이란 명제 아래 종단을 운영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운영기조를 밝혔다.

이렇듯 추대에 준하는 '화합'의 분위기 속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소통'을 대명제로 △열린종단 △교구본사 특성화(테마 사찰 및 타운 선정 등) △불교제도 정비(불교문화유산법 제정 등) △종단 재정 확보(재정사업부 운영 등) △전법 및 포교활성화(신도시 거점포교사찰 설립 등) △불교문화보존(황룡사, 미륵사 복원사업 추진 등) △한국불교 위상강화(해외교구 신설) 등 13대 종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13대 종책 세부사항 중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중진 스님 등의 고견을 듣는 종단발전자문위원회와 BBS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을 주축으로 한 '불교종합미디어' 설립 등의 종책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종책 집행을 위해 향후 '포용'의 종무행정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나온 기권 6표, 무효표 14표 등 사표에서 드러났듯 기득권에 소외된 종도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다. 또 11월 5일 예고된 정기중앙종회에서 종책모임들이 각 종책 사안별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지에 대한 여부도 '소통'의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장 종산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 인준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상구보리 보다 하화중생을…

불학연구소, 19일 '조계종 승려의식성향 조사 결과' 발표

현대사회에서 승려는 "상구보리(上求菩提, 27.3%)보다 하화중생(下化衆生, 36.1%)에 치중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불교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55%),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불교 운동이 효과가 있을 것(60.4%)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19일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님들은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신뢰회복(50.1%)과 종교편향 극복(23.7%)을 꼽았다.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외적으로는 불교의 정체성 강화(54.2%)와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23.4%)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내적으로는 응답자 다수가 승려의 자질향상(29.7%)과 출가정신 회복(20.8%)을 지적했다.

특히 스님들은 승가의 사회참여 정도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승려 개인의 자질함양(29.4%)과 양질의 승려교육(28.9%)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갖고 28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강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수호 고려대 외래교수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승가상의 모색'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승가의 리더십 고양을 위한 교육 방안'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 사회의 종교갈등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같은 날 최종 보고서 발간도 예정됐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1954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수원 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자승 스님은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냈다.

제10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종단 입법 활동에 매진한 스님은 11대 종회 사무처장, 12대, 13대, 14대 의원을 연이어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종회의장으로서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종회를 원만히 이끌었고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님의 대사회적인 역량은 활발한 복지 사업과 포교활동에서 드러난다.

자승 스님은 97년부터 5년간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아 지역복지사업과 불교복지에 대한 원력을 세웠으며, 지역 언론 '과천21'을 발행하는 등 지역불교계와 언론미디어 발달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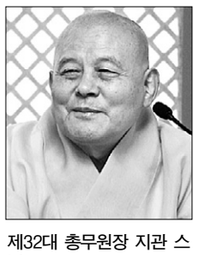
2004년부터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종단 인재불사에 매진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종단의 불교단체, 불교학자, 청년,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전국 규모의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출간하는 '은정학술총서'간행은 불교학계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를 이끌며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활동 등 해외구호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수행·포교로 원융살림 임했어"

30일 퇴임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10월 30일 퇴임을 앞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9일 서울 정릉 경국사에서 4년 임기동안의 소회와 차기 집행부에 대한 당부를 밝혔다.

지관 스님은 "기한 상관없이 맡은 동안 충실히 하다보니 시간이 절로 지나가더라"며 "수행과 포교를 두 축으로 원융살림을 위해 성실히 임했다"고 자평했다.

지관 스님은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종책사업으로 결계포살의 시행을 꼽았다.

지관 스님은 "대중 100명이 암자 스님 1명 못 당하고 암자스님 100명이 토굴 스님 1명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결계, 포살은 이런 수행가풍을 다지고 종도 간 화합을 위해 오래도록 지속돼야 한다"며 "율장에 포살은 총 여섯 번을 하게 돼있지만 여러 스님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60세 이하로, 연 1회로 결정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기 내 불교계 최대 이슈였던 종교편향과 8·27범불교도대회에 대해 스님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회향된 데는 모든 국민이 상대종교를 존중하는 정신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지관 스님은 차기 집행부에 대해서는 "딱히 당부해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후임 총무원장이 '화합'으로 내화에 앞장서고 '구제중생'이라는 대사회적인 책무에 더욱 발 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침소인 '무우'(無憂)정사 앞에서 "길도 오르내림이 있고, 바다에도 물결이 일 듯, 살아감이 어찌 수평으로만 되겠는가"는 한마디로 임기 내 수많은 고뇌를 털어버린 지관 스님.

지관 스님은 끝으로 "퇴임 후 가산불교대사전 완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조계종 직영서점 등 문서포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봉행

韓國佛教太古宗 第24代 總務院長 就任式

귀의삼보하옵고,
본종 "第24代 朴印空 總務院長 就任式"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원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28일 오전 11시 ◆장 소 : 봉원사 삼천불전
◆연락처 : 총무원 02)739-3450~4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호) / 봉원사 02)392-3008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2009년 10월

共同準備委員長 姜靑峰, 閔法顯, 李華鏡

"천원이면 일주일간 배불러요"

정토회 수행일환으로 '빈곤퇴치 캠페인 행사' 김여진·배종옥씨 동참

"단돈 1000원이면 굶는 아이들의 1주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65일 젊은이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역. TV브라운관에서 보던 이들이 모금활동을 펼치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인 정토회 길벗(지도법사 보수)은 10월 17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연극, 영화, 방송,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과 함께 거리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거리모금은 겉으로 볼 때는 여타 모금행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닌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탤런트 배종옥, 김여진과 노희경 작가를 비롯한 37명의 길벗 회원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하철 각 출구에서 모금운동을 벌였다.



정토회 길벗 회원인 김여진(왼쪽) 배종옥씨가 10월 17일 강남역에서 '빈곤퇴치 캠페인 거리모금행사'를 하고 있다.

정토회의 '빈곤퇴치 캠페인 거리모금행사'는 9월 26일~10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을 집중 수행의 일환이다. 모금활동 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상태를 관찰하는 동중(動中)수행이다. 회원들은 집중 수행 기간에는 매일 수행일지를 쓰고 회원과 법사님으로부터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점검을 받는다. 토요일에는 500배 절 수행, 수행법회, 열린법회 등을 통해 정진한다.

회원들은 특히 거리모금 등 이웃을 위한 보현행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수행의 참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명상문 "'네'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해봅니다"라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속 수행도 하고 있다. 길벗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는 목표에 따라 봄, 가을 두 차례 집중정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50여 분간 진행된 행사를 통해 80여 만원이 모금됐다. 길거리 모금과 후원활동으로 모아진 돈은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를 통해 필리핀, 인도 등 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범불농 녹색체험 사찰 농어촌 연계

범불교농어촌돕기운동본부(사무국장 최더주, 이하 범불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녹색체험'이 화제다. 사찰과 농어촌이 연계된 체험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녹색체험'은 8월 1일 충북괴산군 비학봉 마을에서 옥수수체험 행사와 각연사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7일에는 사과와 부석사로 유명한 경북 영주를 방문했다.

최덕주 사무국장은 "유명사찰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며 "불자들이 사찰순례와 농어촌 체험을 하면서 농수산물을 구매해 농어촌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정신(53)씨는"사찰순례와 소수서원, 선비촌 견학도 하고 농산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범불농의 다음 체험지는 갯벌체험과 젓갈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해안으로, 오는 11월 7일 떠날 예정이다. (02)3270-3351

박선주 기자

서울광장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명원문화재단 등 22일 차문화축제 열어



오른쪽부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정 이사장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차가 녹차만 있는 게 아니네요. 다양한 재료들을 응용해서 만든 차에 대한 정보도 얻고, 차 한잔의 여유를 주시니 너무 좋은데요."

한국 차(茶)를 맛본 이들의 감탄사가 쏟아져 나온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상징 서울시청 시민광장에서 분주한 발걸음 옮기던 시민들이 차(茶)와 함께 가을 풍류를 만끽하는 차의 향연이 펼쳐졌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등은 지난해에 이어 10월 22일 '서울세계 차(茶)문화 축제'를 마련하고 한국 전통 차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장을 열었다.

이번 차문화 축제에는 명원문화재단, 외국인 학교, 지역 복지관, 월정사, 불광사, 대흥사, 봉은사 등에서 나온 차인과 다례반 학생들이 140여 차석을 마련하고 한국차를 소개했다.

축제에서는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온 직장인, 서울 관광 중인 외국인 등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지나던 시민들은 준비된 잎차, 황차, 홍차, 녹차, 말차, 인삼차, 연꽃차, 생강발효차 등 수십 종류의 차의 맛 · 향 · 색을 맛보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었다. 하동에서 올라온 배태민(명원문화재단 · 37)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차를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축제에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초의차문화연구원 여연 스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주호영 국회 특임장관,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제를 마친 후 김의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차는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의 차(車)소리를 듣고도 차(茶)라고 생각할 정도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차차차'"라며 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상언 기자

다문화가정 돕기 여성 종교인 나서

KCRP 여성위, 16일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 세미나

과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여성 종교인 80명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최근덕, 이하 KCRP) 여성위원회는 10월 16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여성위원 80명이 참여한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 세미나가 10월 16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최근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정은 만복지원(萬福之源)이라고 할만큼 모든 복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며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케 하는 화두는 더없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미숙 여성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타문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많은 폐단을 여성 종교인들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 소장은 '종교연합체에서의 다문화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민간 등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그들과 우리의 경계를 무마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종교인의 참다운 역할이다"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각 종단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종단별로 하고 있는 활동내용 발표와 △내국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여성 종교인들이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토의했다.

한편, KCRP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 원광대학교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에서 '이웃종교 이해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그리스도교 하나인 교회, 여러 다른 교파들'(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와 그리스도교 부처님 모습, 예수님 모습'(정양모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슬람교 순니와 시아'(이슬람학, 서강대 종교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도), '불교 수행과 의례'(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36-2250

박선주 기자

평화 비폭력, 명상으로 말하다

세계평화행진 19일 서울광장서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대중명상이 펼쳐졌다.

서울시청광장에서 대중 명상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 한국위원회'(공동대표 수경, 이하 세계평화행진) 주최로 10월 19일 서울 광장에서 '평화, 느림에 빠지다-화해상생을 위한 자비명상과 자비춤' 행사가 열렸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The World March for Peace and Nonviolence)'은 세계 비폭력의 날인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칠레에 이르기까지 100개 나라, 16만km을 순회하는 전 지구적인 행사이다.

세계행진은 자발적 · 창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평화통일 행사, 종교계의 참회와 평화선언, 워크숍과 대화마당이 진행됐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켜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With 쌍용

대한불교조계종과 위드쌍용이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보험 업무 지정협약을 맺었습니다.
위드쌍용은 천만 불자와 함께 우리 문화재 보호에 앞장섭니다.

위드쌍용 최고의 서비스, 최적의 보험료, 최고의 보상 컨설팅, 보험료! 비교만 해도 절감 됩니다. 온 · 오프라인 무료 비교 견적 제공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1 한국수입업협회 4층 ☏ : 02) 3483-0775 · 자동차 : 02) 3483-0743 · 장기 : 1588-0978 Fax : 02)3483-0788 02) 6280-0978 제휴 Site : www.FC7.kr

간화선, 대중화·생활화 가능하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11차 간화선 세미나… 안국선원·벽송선원 사례로 진단

간화선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안거마다 2000여 대중이 제방 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마다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재가자를 위한 선원과 재가자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에도 정작 간화선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1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가자 간화선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과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을 중심으로 신행적인 측면에서 간화선 수행법을 진단했다.

행사에서 수불 스님은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과 지도방법'을, 월암 스님은 '벽송선회와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수불 스님은 1989년 부산 시내에 '금정포교당'을 열고 이후 안국선원을 운영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해왔다.

처음 신도들에게 전통적 간화선 수행방식으로 지도했던 스님은 신도가 계속해서 급감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고, 결국 그 문제점이 신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답을 찾도록 해야 했는데 문제만 외우게 했다." 이것이 수불 스님이 찾은 문제점이었다. 이후 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화두를 타오게 하고 실참을 지도했던 방법이 아닌 직접 문제를 제시하게 됐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도 무시하라고 일렀고, 화두가 들렸는지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알약의 비유, 거문고의 비유 등을 들었다. 알약을 먹으면 그대로 있는지를 묻고,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고 일렀다. 신도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내고 수행을 통한 이익을 느끼게 하니 그들은 저절로 잘 하게 됐다는 것.

안국선원에서의 간화선 중심의 1주일간의 집중수련이 재가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돌면서 참선의 맛에 목말라하던 많은 이들이 수불 스님을 찾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벽송사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수불 스님은 "법문은 조사선의 입장에서 하면서 수행은 간화선으로 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확한 선학적 근거 위에서 결여된 동중(動中) 수행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화두참구를 지도할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며, 이에 앞서 눈 밝은 선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종단차원에서의 간화선 홍포를 위한 수행공간과 연구원, 수행점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2006년 9월 제1회 벽송선회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벽송선회와 간화선 실참향상과정, 재가선회 등을 열어왔다. 특히 2008년 11월 개최된 제1회 재가선회에는 재가자 100명이 간화선 실참을 위해 벽송사를 찾아 8일간 정진했다.

스님은 "이론과 실참의 겸수를 통해 정견을 획득하고 견성오도(見性悟道) 광도중생(廣度衆生)함을 목적으로 벽송선회를 열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회를 통해 논의된 간화선 수행지침을 설명했다.

간화선 수행지침은 △일대사인연을 깨달아 생사대사를 해결하겠다는 무상발심(無常發心) △연기, 공, 무아 등의 도리에 정견을 갖춘 중도정관(中道正觀) △선지식을 찾아 지도를 청하는 선지식참문(善知識參問) △선지식이 참문자의 근기에 맞춰 화두를 전하는 화두결택(話頭決擇) △화두를 간절히 참구하는 일념참구(一念參究) △순역경계에서도 항상 화두가 여일한 순역탁마(順逆琢磨)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고 행각하는 운수행각(雲水行脚) △동정일여(動靜一) · 몽중(夢中) · 오매(寤寐)에 일여(一如)한 삼매현전(三昧現前) △선지식을 찾아 공부를 점검받는 점검(點檢) △선지식이 깨달음의 경계를 점검해 인가하는 인가(認可)△깨달음 후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수수입전(垂手入廛: 敎化) 등이다.

월암 스님은 "화두를 참구할 의심조차도 중생의 무명에 의한 미혹이라 경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은 번뇌로서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으로 미혹으로써의 의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심"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잘못된 간화선 풍토를 호되게 비판했다.

월암 스님의 장군 죽비 같은 질책은 일부 선수행자들이 교학을 폄하하고 책 보는 행위를 금기시해 선학에 대한 정견을 세우지 못한 채 무지선(無知禪, 暗證禪)에 빠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됐다.

이어 스님은 "선교겸수로서 정견을 확립해야한다"며 "정견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실참을 통해 의리(의식)적인 깨달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말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으로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현재의 간화선 풍토는 말로는 활발발(活發發)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실제로는 대혜 선사가 비판한 묵조사선(默照邪禪)적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동정수행의 병수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말로는 행주좌와를 외치면서 앉음의 편의주의에 매몰되서는 간화선 본래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행자의 인격 문제도 언급됐다.

월암 스님은 "현재 불교는 출가수행자는 수행이력과 인격이 일치하지 못하고, 재가불자는 불교적(연기적) 인생관이 빈약하다"면서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기형적 신앙형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하루 수행하면 하루 수행한 만큼 행복해져야 한다. 해행상응(解行相應)으로 수행과 깨달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 제일주의도 경계해야할 병통"이라며 "원융적 수행태도를 정립해 원통불교(圓通佛敎)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에 이어 월암 스님도 간화선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종단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재가와 출가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재가 선(禪) 포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출가자를 위해서는 선림원(禪林院)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월암 스님은 "참선 수행자들이 견성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깨달음 제일주의에서 탈피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보현행원의 구원자가 돼야 한다"면서 "비지쌍운(悲智雙運)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두 스님은 실제 대중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진솔하게 공개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불 · 월암 스님의 발표 내용에는 동적 공부가 결여됐다는 등 같은 의견도 있다. 두 스님의 발표는 신행으로서 간화선 대중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확실한 지남철이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삼천배 올리며 불사 원만성취 기원

조계사 신도들 17일 용맹정진… 불사금 2000만원도 조성

싸늘한 가을바람이 몰아치는 10월 17일 저녁 7시. 파란색 단체복을 입은 조계사 신도들이 도량을 가득 메웠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주관한 창건 99주년 기념 '조계사 중창불사 원만성취 기원 3000배 용맹정진' 현장은 조계사(주지 세민) 신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신도들이 3000배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용맹정진에 앞서 세민 스님은 "절 수행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절 수행 자체로도 수승한 공덕이 있다"며 "무량한 공덕을 쌓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격려했다.

조계사 이대각심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3000배 용맹정진은 불법의 진리와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다. 도반들은 함께 사랑과 용기를 나누며 무사회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000배 용맹정진에 앞서 세민 스님은 참가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올렸다. 1000여 명의 신도들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난 뒤 조계사 불교대학생들의 집전에 맞춰 본격적인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징소리, 북소리,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며 1배, 1배 올리는 참가자들은 불퇴전의 의지로 흔들림이 없었다. 몸은 힘들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은 더욱 밝고 평온해졌다.

신도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약 2000여 만원의 불사금을 조성했다. 중창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며 18일 새벽 3시 30분까지 진행된 3000배 용맹정진은 회향 108배로 마무리됐다. **이상언 기자**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18일 조계사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일생을 불구로 살게 한 참혹한 '조두순 사건'의 파장으로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은 10월 18일 조계사 경내에서 아동 성폭력 대응책과 예방책 등 캠페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아동성폭력추방캠페인은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후원 어머니회 '선재법등'과 함께 진행됐다.

성폭력 반대 서명운동, '조두순 사건' 전개와 결과 홍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의 등을 홍보하고 교육했다.

이상언 기자


아동 성폭력 대응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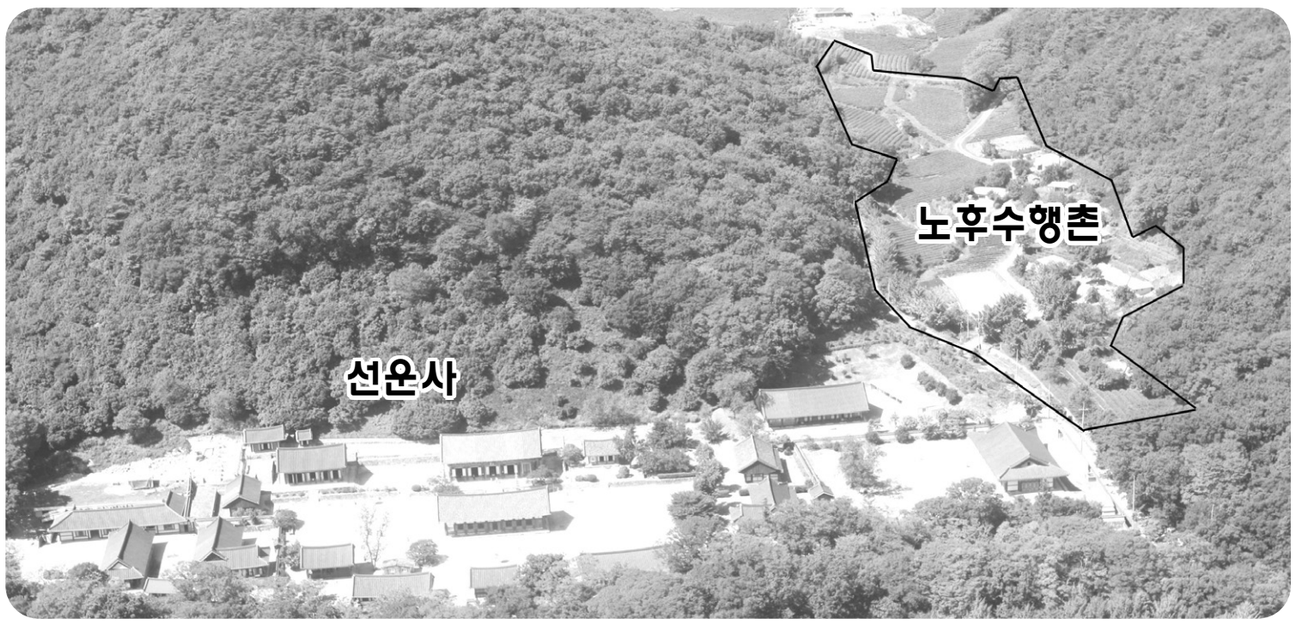
신행게시판

● **'대념처경'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서울 홍원사는 11월 6일~12월 25일 매주 금요일 2~4시 대념처경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성오 스님이 수행 지도하며, 동참비는 10만원이다. 한편 매주 금요일 1~5시에는 자율수행도 진행하고 있다. (02)2063-2233

● **주야용맹 참선법회=**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4일 주야용맹 참선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동참금은 재가자 4만원, 스님은 무료다. 4일 회향식과 함께 진제 스님을 증명 및 계사로 모시고 재가오계수계식도 개최한다. 참선에 뜻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1)746-2256

● **한마음선원 한마음아버지마당=**안양 한마음선원은 11월 21일~12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안양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과 선원 경내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가족의 행복' 한마음아버지마당을 실시한다. 행사는 화엄놀이를 통해 세상을 바로보기, 부모, 아내, 자식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가족인연 돌아보기, 과거속의 나, 나와 가족의 능력과 가능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으로 11월 17일까지 접수받으며 선착순 40명 접수받는다. (031)471-6926

선운사 승려노후 수행관 설계 공모전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신 노스님들의 안락한 주거와 수행을 위한
자연친화형 노후 수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개요

○ 공모주제 : 선운사 승려 노후수행관 (수행마을)
○ 공모내용 : 인근의 선운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전통한옥(기와, 황토, 초가 등)으로 노스님들의 주거와 수행, 간병을 고려한 공동체 거주지로 가구당 1-2인이 거주하는 10-20채 및 6-7인 거주 다가구형 공동시설이 포함된 전통 한옥마을.
○ 대상지역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17번지 일대 (약 20,000㎡, 6,000평)
○ 행사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응모자격 : 자연친화형 한옥 건물과 승려 노후 수행관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 대학(원)생, 해당분야 대학교(원) 부설연구소 또는 유사연구기관
-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일반인 등
○ 일 정
■ 응 모 신 청 : 2009년 10월 22일 ~ 11월 15일(일) 12:00까지
■ 현 장 설 명 : 2009년 11월 15일(일) 14:00
■ 작 품 접 수 : 2010년 1월 30일(토) 13:00까지
■ 입상작 발표 : 2010년 2월 10일(수) (불교계신문 및 선운사 홈페이지)
○ 응모신청
■ 접수방법 : E-mail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 시 상
■ 대 상 : 상장, 상패, 상금 700만원
■ 우 수 상 : 상장, 상패, 상금 300만원
(입상자에게는 향후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현상설계 참여권 부여)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제 2 4 교 구 본 사 선 운 사

봉암사 일대 국제선센터로 '일신'

부지매입 마쳐… 수불 스님 종정 표창, 신현국 시장 총무원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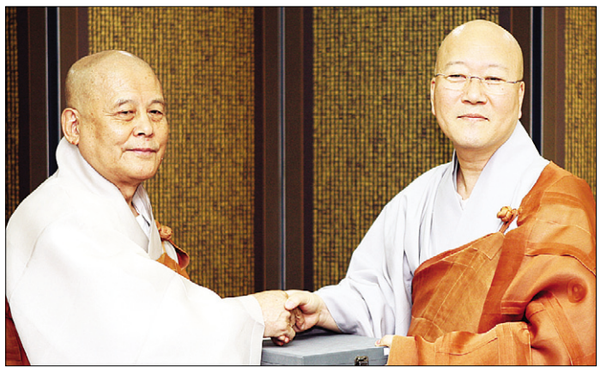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일대에 들어서는 국제선센터의 건립 기반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9일 봉암사 국제선센터 건립과 관련,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종정 표창과 총무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이번 수불 스님의 종정 표창은 9월 26일 봉암사(주지 원타)가 매입한 희양산 일대 석탄공사 부지 111만9471㎡(33만4600여 평)에 대한 것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부지 매입대금 9억 7600여 만원을 전액 기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당초 이 지역은 문경시의 개발규제 완화와 조계종의 매입 지연에 따라 타종교 수련원과 골프장 등의 건립이 추진돼 많은 우려를 낳아왔다.

총무원장 표창을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봉암사 환적대, 동암 등 가람보수를 비롯해 봉암사 극락전 등 문화재 보물승격, 봉암사지증대사 적조탑비의 국보신청 등 행정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종정 표창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무허가 상태인 봉암사 18개 건물을 양성화하고, 봉암사 필지를 종교용지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문경지역 사찰 정비 등 지역불교발전에도 앞장 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문경 지역과 봉암사는 산세가 뛰어나 나옹 선사 등 역대 고승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며 "국제선센터 건립은 종립선원 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수행풍토 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수불 스님은 "매입대금을 3년 간 분할상환 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일시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안국선원 신도회의 도움과 불자들의 뜻이 한데 모인 덕분"이라며 "간화선 등 선문화 보급과 진작에 더욱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석탄 사용감소로 문경지역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명상웰빙타운, 전통찻사발 축제 등 정신문화 보급으로 연간 500만 명이 찾고 있다"며 "불교문화재 30점과 전통사찰 7곳이 산재한 불교의 고장, 문경에 선센터까지 들어서면 정신문화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와 문경시는 향후 봉암사 일원을 역사 · 문화 공간으로 설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한편 국제선센터 건립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0일 봉암사와 문경시는 2020년 국제선센터 건립을 목표로 총 600억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6년까지 386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1단계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제선센터에는 예불공간 5동, 선원공간 9동, 포행공간 21동, 지원시설 3동 등 총 41개동의 자연친화적 전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산문 열어 중생 제도하니…

동화사 1516주년 · 은해사 1200주년


10월 17일 열린 대구 동화사 개산대재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구 동화사와 영천 은해사에서 개산대재가 잇달아 거행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은 10월 17일 개산 15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부도전 헌다와 헌공다례 의식을 시작으로 개산조인 극달 조사의 영정을 이운하는 의식이 이어졌다.

기념 법요식과 성보박물관 기획전시 개관식,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등식 등이 차례로 저녁까지 동화사 경내 일대에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역대 조사들이 대가람 동화사의 산문을 연 것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웃과 사회를 고통에서 구하자는 수행과 자비의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은 축사를 통해 "개산의 의미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보살심이 구현됨을 뜻한다. 동화사 개산대재가 불교를 쉽게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일에는 팔공산 은해사(주지 돈관)에서 1200주년 개산대재가 열린데 이어, 20일에는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법회를 가진 뒤 그 동안 개산대재를 적극 지원한 지역불자들을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돈관 스님은 청통 자율방범대와 은해사 교사불자회 등 13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초심 잃지 말고 보살의 길 가자"

조동종 극락사 16일 진산식 · 이운법회 봉행

조동종 장호원 극락사(주지 해덕)는 10월 16일 진산식 및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승정부원장 법공 스님, 승정의원 원봉 스님, 사회부장 혜산 스님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공 스님은 법문에서 "호국불교 묵조선의 조동 법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위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점안식을 하기 전의 조동종 장호원 극락사 법당의 불 · 보살상.

해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불자가 곧 부처임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 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강 발원지서 생명을 보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10월 16~19일 성료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6~19일 '생명과 시원과의 만남'을 주제로 제6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각종 공연 및 전시, 불교문화체험 공간 등 70여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종합불교문화행사가 열렸다.

행사 첫 날 적광전 앞 중앙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최흥집 강원도 정무부지사, 한장수 교육감, 송강호 강원지방경찰청장, 권혁승 평창군수, 김영해 평창군의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자리해 축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물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때라 '생명과 시원의 만남'을 주제로 한강시원제 등을 열게 됐다"며 "오대산 우통수를 물의 시원, 생명의 시원으로서 승화시키고 한강과 더불어 우리 국토를 생명이 그대로 본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가꾸자"고 축전의 취지를 강조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10월 16~19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월정사 아래 금강연에서 가진 한강 시원 샘물의 합수식 장면.

개막식에 이어서는 자장 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오대산으로 모신 과정을 재연한 '진신사리 이운식'도 봉행됐다.

한강의 시원이자 근원인 오대산 각 대에서 솟구치는 신성한 샘물인 중대의 옥계수, 동대의 청계수, 서대의 우통수, 남대의 총명수, 북대의 감로수를 금강연에 합수하고,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돌고기, 참갈겨니, 꺽지 등 3000마리를 방생해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삶을 기원했다.

둘째 날에는 학생백일장 및 학생미술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행사와 강원지역 불교합창단 찬불가합창제가,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문수보살 헌다례, 전국차인대회, 불교종단의 다례법 시연 등이 열렸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방생용 어류 양식장

박성호 거사

불교에서 방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는 의식이며 선업을 짓는 자비행이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굶주린 새나 동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의식을 통해 생사고해에서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생의 의미는 매우 깊다.

이런 가운데 남해 물건리 은점부락에 거주하는 박성호 거사가 방생용 어류를 양식하고 방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불자들을 기다린다.

박 거사는 방생된 물고기가 얕은 물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방생이라는 생각에 개인 토지 600여 평에 양식장을 만들었다. 양식장에는 방생할 수 있도록 배와 빠지 등 모든 장비를 갖췄고 어촌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

박 거사는 "방생을 원하시는 대덕스님 및 불자님이 연락을 주면 정성껏 인도하겠다"고 말했다. 018-574-0991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경로위안문화제

14일 태고종 청룡사

노인의 달을 맞아 태고종 청룡사는 10월 14일 오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6회 경로위안문화 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5개 복지기관에서 그동안 배운 부채춤 등을 펼친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노인회 오남진 대구시연합회장은 "전통문화의 가치관이 상실된 오늘날 충효사상과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 신유경 양 등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려

청주불교방송(사장 현우)이 주최하고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관한 제1회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 시상식이 10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번 제1회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은 봉사활동 분야와 봉사활동 우수사례 분야, 문화재 지킴이 교육활동분야로 나눠서 시상했다.

충북도교육감상인 대상은 초등부에 미원초교 신유경양 등 3명, 중등부에 백곡중 3학년 김애린양 등 3명, 고등부에 대원고 박준재군 등 3명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지도교사 부문 대상에는 오창고 김수온 교사 등 3명이 수상했다.

또 금상인 청주불교방송사장상에는 형석고 박수지양 등 9명이 각각 수상했고 은상인 청주시장상에도 대원고 김태원 군 등 9명이 영예의 수상을 했다.

현우 스님은 "충북도 내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를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본 상을 제정했다"며 "청소년들이 외국의 새로운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통해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 설립기념 '인도순례' 프로젝트

불교성지 및 명상문화 테마기행 동참순례자 모집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명상은 삶의 본질'이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쉽고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명상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수행과 봉사적 삶을 선도함으로써 그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설립된 명상수행연구기관입니다.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이 같은 설립취지를 현실 속에 구현하고 우리의 명상문화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순례'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명상문화연구원이 설립기념으로 준비한 '인도순례' 프로젝트는 불교 7대 성지순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인도여행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북인도 및 남인도 명상기행과 용수보살 유적지 · 아잔타석굴 등을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Ⅰ. 순례팀별 주요일정 및 비용

	B팀 (2010년 1월 9일~1월 19일 9박11일) 237 만원	C팀 (2010년 1월 15일~1월 24일 8박10일) 267 만원
	인도성지순례+북인도명상기행	아잔타석굴+용수보살유적지+남인도명상기행
인천-델리(오로빈두아쉬람/티베트하우스)-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치푸람-첸나이-인천	인천-델리(오로빈두아쉬람명상센터/티베트하우스)-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인천	인천-뭄바이(엘레판트 석굴)-오랑가바드(아잔타/엘로라 석굴)-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치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첸나이-인천

Ⅱ.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 집 기 한 : 2009년 11월 30일(월)까지 각 팀별 60명 선착순
• 신청 및 접수 :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FAX. (02)734-9937 E-mail : silkroadtour@korea.com ※상세일정표와 준비사항은 신청접수 후 개별통지
※주관여행사로는 불교성지순례 대표여행업체인 (주)실크로드여행사(대표 이상원)를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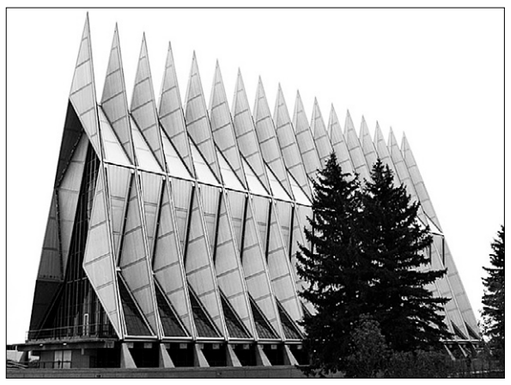
(사)명상문화연구원 이사장 수봉세민 (조계사 주지)
원 장 만월현종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3호 Tel : 1577-0373

※ 금번 '인도순례 명상기행'은 본 법인이사이며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인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지도 및 안내를 맡습니다.

해 외 WORLD

美 최초 사관학교 법당 생겨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서 종교편향 잠재우기 위해 설립


美 콜로라도 주의 공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 학교는 최근 이 시설 내에 군법당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 법회를 열고 있으며 이웃종교의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위치한 美 공군사관학교가 학교 내 종교시설로 군법당을 짓고 법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미 공군사관학교는 미국 내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불교 법당을 갖추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군법당은 사관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종교편향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다. 2005년 보수주의 개신교인들의 적극적인 교내 선교활동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가 교내 종교시설에 전통양식을 갖춘 군법당을 세운 것.

프레데릭 렌츠(Frederick P. Lenz) 재단은 미국 불교 중흥을 위해 300피트 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을 지원했다. 법당의 바닥은 대나무, 벽은 삼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벚나무로 조성된 미얀마 형식의 불상을 봉안했다.

군법당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법회를 열고 수행시간을 갖는다. 매 법회에는 20여 사관생도가 참석한다.

사관생도 테너 포크너(Tanner Faulkner · 18)는 "군법당이 들어선 후 종교편향의 풍토는 많이 나아졌다"며 "불교 수행활동은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욱 수행에 집중하게 한다. 법당에 유대인, 가톨릭, 개신교인 구분 없이 법회 참여를 가능하게 해 불교는 열린 종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지만 군인인 만큼 항상 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바로 '가장 평화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가 과연 군대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

사관학교 불교 프로그램 팀장인 사라 벤더(Sarah Bender)는 "'항상 아군을 지키기 위해 적군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매주 수요일 군법당에 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라고 말했다.

벤더는 "왜냐하면 불교는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 탐구하는 종교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로 지금 화두를 삼고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교수행이기 때문"이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현재 140만 명의 미군 중 5287명이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은 기자

텐진에 '北소림사' 중건 된다

쑹산 소림사 1억6000만 위안 들여 공사

쿵푸의 본고장인 중국 소림사(少林寺)가 톈진(天津)에 북(北)소림사 중건에 나선다.

중국 일간지인 정주만보(鄭州晩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림사가 1억6000만 위안(276억 원)을 들여 톈진 판산(磐山) 풍경구에 북소림사를 중건키로 했다.

소림사는 북소림사 중건을 위해 2007년 톈진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공사 계획을 확정지었다.

소림사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북소림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들이 있는 건물에는 인터넷, 태양열전기, 냉난방 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소림사 측은 "북소림사는 쑹산 소림사 이외에 유일하게 '소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소림사의 지사(支寺)로, 중건을 통해 당송(唐宋)시대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할 것"이라며 "완공되면 당송시대 소림사의 품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림사는 지난 2월 홍콩 분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사세(寺勢) 확장에 의욕을 보여왔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옛 소림사의 명성에 기대 지나친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된 것.

소림사는 쿵푸 쇼와 영화제작은 물론 사찰음식과 의약품 판매에 나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또 2010년에 병원을 개업하고 소림사 전통 방식의 기능성 차와 음료 시판 사업에도 진출키로 했다.

이나은 기자

연화직업재활원 우수중소기업 선정

압화 공예품 눈길… 청각장애인 제작 출품한 업체 광림사 연화원 등 4곳


왼쪽에서부터 연화직업재활원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디자인 하고 제작한 원형손거울과 개인 머그잔.
해성 스님이 미국 재외동포 기업인에게 상품설명을 하고 있다.

"어머~ 아기자기한 것이 예쁘네요 이게 다 뭐죠?" "생화를 말려서 직접 손으로 제작한 압화(押花) 제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이 한 수출상담 부스에서 재외동포 기업인들에게 압화(꽃누름)로 직접 제작한 다구, 찻잔, 악세서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어들은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샘플로 제품을 여럿 구매하기도 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독특하다며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광림사 연화원 연화직업재활원이 국내 230개 우수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10월 2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09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했다.

연화직업재활원은 직업을 찾거나 사회활동 참여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압화(꽃누름) 교육을 실시해 공예품을 생산하는 곳.

연화원이 참가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50여 나라 800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와 200여 국내중소기업업체와 함께 수출상담회 자리를 갖는 국제적인 무역축제의 현장이다.

이번 대회에 연화원이 참여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상품을 제작해 출품한 업체는 연화원을 포함해 4곳 뿐이라 의미가 크다.

연화원의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일반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일반 기업의 제품과 견주어 우수함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화원이 출품한 압화 상품은 시계, 액자, 악세서리, 부채 등 여러 생활용품을 15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꽃 채집, 디자인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손수 제작한 것이다.

김양온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 팀장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하다 연화원의 압화 제품이 독특해서 추천했고 대회참가 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화원 부스를 둘러보던 독일재외동포 경제인 줄리엣 리는 "악세서리나 거울 들이 예쁘고 이미지가 특이하다. 상업적인 느낌보다 예술적인 면이 더욱 돋보이고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광동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박성혜씨는 "생화를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독특하다. 제품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갖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불교계 장애인 직업재활에 앞장서 온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광림사 주지)은 "압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디자이너, 사업가, 압화 강사 등 여러 가지일을 할 수 있어 앞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행사의 참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인들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2)2201-5831

이나은 기자

지역사회복지축제

금오복지관 29~30일

경북 구미지역주민이 참여해 복지 마인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10월 29~30일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어르신의 날'을 테마로 한 문화공연,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0일에는 '지역주민의 날'을 테마로 관장 법등 스님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054)458-0230

이나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 건립

광주 나눔의집 31일 준공식 개최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될 전문 요양시설 조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요양과 재활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10월 31일 경 내에서 대표이사 월주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집 요양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

원행 스님은 "고령 및 성노예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요양과 재활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31) 768-0064~5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15주년

나눔의 날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10월 18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2009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BBS 김병조의 이야기쇼' 특별공개방송이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 15년간의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생명나눔을 꾸준히 후원해준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21C 도전에 경쟁 아닌 협력해야"

도널드 K. 스웨러 소장 중앙승가대 특강서 주장… '보리심' 학술대회도 열려



"세계종교는 21세기 도전들에 대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작업해야 한다."

영어권 학자로 태국 등 상좌부불교 전문가로 유명한 도널드 K. 스웨러(Donald K. Swearer) 소장(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 사진)이 한국에 왔다. 스웨러 소장은 10월 22~25 고려대 등에서 열리는 제1회 선도&도교 국제학술대회에 기조강연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학술대회 일정에 앞서 도널드 K. 스웨러 소장은 22일 중앙승가대를 찾아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이 마련한 강연회에서 특강했다.

스웨러 소장은 주제강연 '21세기 도전들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에서 자신의 참여불교국제네트워크(INEB) 활동을 예로 그가 21세기의 도전이라 이름 붙인 소비주의, 환경문제, 과학기술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했다.

"세계종교는 21세기 도전들에 대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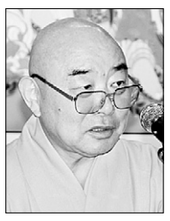
도널드 K. 스웨러 소장은 "현대의 불교 경제 윤리는 소비주의를 문화적 · 종교적 가치들을 빙자해 상품화한 것으로 비판한다"며 "자연의 최고 법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취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한 만큼만 축적하거나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러 소장은 "보시는 △갈애와 축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부(富)를 향한 태도가 소유한 양과 나눔보다 우선된다는 것 △물질적 번영이라는 일시적 부의 가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UN환경 프로그램 보고를 인용한 그는 "아시아의 불교도를 포함한 종교단체에 의해 고취되고 자극받은 환경운동은 세계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천성산 터널과 관련한 지율스님 이야기, 태국 수텝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등을 예로 들었다.

도널드 K. 스웨러 소장은 "가난, 지구의 건강, 테러리즘, 소비주의, 환경 등은 이 시대 세계 종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라며 "21세기 도전들에 과학 기술은 진보를 거듭하며 인간의 이해와 수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불교를 비롯한 세계의 종교는 '그것들이 온전히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21일,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종석)은 '불교에 있어서 보리심의 문제'를 주제로 2009년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석 스님(사진)은 기조강연 '대승불교와 보리심'에서 "보리심은 소극적이고 인도적인 불교가 전 세계인이 추구하고 갈구하는 새로운 불교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근본불교 경전에는 보리심이라는 말 대신 '보살심(菩薩心)' '보살의(菩薩意)' 등의 단어만이 보인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교리적으로 부파불교와 차별이 생겨나면서 <화엄경> <반야경> <대지도론> 등에 보리심이 등장한다.

종석 스님은 "보리심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탄생한 신생어"라며 "아라한을 추구한 부파불교와는 달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석가모니부처와 똑같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겠다는 대승불교의 기본이념과 실천덕목을 응집해 드러내는 단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묘주 스님(동국대)이 '<보살지지경>에 나타난 보리심 고찰'을 통해 유가행파의 수행에 있어 보리심이 보살도의 구성요소로 강조됐음을 설명했다. 강동균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 '<무량수경>에 있어서 보리심의 전개'에서 "<무량수경>에서의 보리심은 아미타불의 대비원력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탄준 금강대 교수는 '화엄의 수행과 발보리심'을 통해 "화엄의 보현행이야말로 보리심을 발해 현실세계에서 여래의 행을 행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성준 동국대 BK21연구교수는 주제발표 '밀교의 보리심사상 전개고찰'에서 "밀교에서 보리심은 공성이면서 중생구호에 자유자재한 일체지지로 발현된다"며 "보리심은 만다라와 밀교를 구성하는 제요소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후기 밀교의 보리심은 붓다를 포함한 일체 존재의 근원이며 만유의 본성을 뜻한다"며 "속제(俗諦)의 보리심은 불교사가 보여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만, 승의(勝義) 보리심은 석가모니부처의 연기법 이후 한결 같이 설해진 무상과 공성의 진리와 그 깨달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

불교중앙박물관 "보관처 조계종 변경 결정됐다" 발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돼 국립중앙박물관에 40여 년간 보관돼 왔던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조계종으로 반환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과 5차 회의에서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보관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계종으로 변경이 결정됐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을 추진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당시 관장 김홍남)이 반환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 4월 문화재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해 불교중앙박물관 시설 등을 점검했다. 5월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석가탑 발견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임을 확인했고,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가 재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리장엄구 반환은 2009년 6월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재청에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이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석가탑 사리장엄구 보존처리와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반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하 스님은 "불국사 사리장엄구를 찾아오기 위해 조계종은 국내 어느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전시 및 수장시설과 인력을 갖추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을 결정한 것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의 관리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개심사 목조여래상 등 5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 사적 · 명승 분류 지정작업 들어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중요문화재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瑞山 開心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고려 후기 12~13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서 조각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됐다. 특히 뚜렷하면서도 엄숙하게 표현된 이국적인 얼굴, 왼쪽 어깨에 몇 가닥의 짧은 종선으로 처리된 옷 주름과 그 아래로 자리 잡은 겹Ω형 주름 등은 1274년에 중수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13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과 시대양식을 공유하면서도, 이들 상보다 훨씬 건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각기법이어서 고려후기 목조불상 가운데 최고(最古)의 작품일 가능성을 보여 주며, 조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620호 '안동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安東 鳳停寺 木造觀世音菩薩坐像)'은 1199년에 처음 조성돼 1363~1364년 사이와 1751~1753년 사이에 중수됐다. 여러 개의 나무를 접합한 접목조기법(接木造技法)으로 이뤄졌고 눈은 수정을 감입했다. 이 관음보살상은 고려 후기 새롭게 대두하는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 양식 불상의 시원적 형태를 간직한 상으로 이러한 불상 양식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상이다.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620호 안동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1622년(광해군 14)에 조성됐다.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후가 직접 발원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17세기 전국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이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보물 제1463-3호 '용비어천가 권 1 · 2(龍飛御天歌 卷一 · 二)'(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책과 보물 제1463-4호 '용비어천가 권 1 · 2, 권 7 · 8(龍飛御天歌 卷一 · 二, 卷七 · 八)'(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등 6개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해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서양 심리치료 • • • 동양 명상을 만나다

동양의 명상기법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통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10월 31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제6차 가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 임용자 대전대 교수는 주제발표 'NPL(신경언어프로그래밍)에서의 명상'에서 영상관법 등 명상기법과 NPL 심리치료를 비교할 예정이다.

박희석 원광대 교수는 '명상과 심리극치료'를 통해 십우도를 심리극과 접목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02)2236-5306

조동섭 기자

"청화 스님 백도는 납자들 좌우명"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서 월암 스님 주장

"청화 스님(1923~2003)이 제시한 참수행자의 표상인 청빈(淸貧) 고절(苦節) 원융(圓融) 회통(會通)의 백도는 이 시대 납자들의 좌우명으로 역사될 것이다."

불교의 사회적 참여는 커져가지만 선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내적 갈등이 더해가는 때, 청정계율을 지키며 염불선을 수행법으로 강조했던 불자의 정신적 지주 청화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주경)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은 주제발표 '청화 선사의 선사상'을 발표했다.

스님은 "청화 스님은 혼돈의 시대에 대중들로 하여금 수행과 깨달음의 안심법문을 제시하고 온몸과 온 정신을 다해 본분종사의 모범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 분"이라고 말했다

월암 스님은 청화 스님의 선사상의 토대를 원통불교(圓通佛敎)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바른 도리를 얻으면 (어떤 수행법이든) 좋다는 득정가야(得正可也) △안심법문(安心法門) △먼저 닦고 후에 닦는 선오후수(先悟後修)로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천태국제학술대회

31일 원각불교사상硏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0월 31일 오전 10시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담바자브 스님(몽골, 세계불교도우의회 지역센터 회장)이 '몽골의 불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웅땡누언 미얀마 종교성 국장이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과학시대의 과학격의불교'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난다라타나 스님(스리랑카, 동국대 박사)이 '21세기 문명과 스리랑카 불교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공고 제2009-4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3. 10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3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중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9. 9. 18.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09. 9. 18. ~ 2010. 3.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피해종교단체, 대리인**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00~18:00 한 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경우 :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 02 - 748 - 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 **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케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 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 **기도비 :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접수순서대로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고문 **이필상**

일주문



진각종회당종사 추념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46주기를 맞아 10월 16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내 무진설법전에서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15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1월 6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제7회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구룡사 중창불사 1000일기도 법문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1월 1일 창원 구룡사 중창불사 1000일기도 회향법회에서 법문한다.



다목적 문화교육관 봉토식 봉행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21일 불교 수행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한 봉토식을 봉행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임명

조계종 기획국장 미등 스님은 10월 20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받았다.



태고종 인천종무원장 권한대행

태고종 인천종무원 부원장 홍제 스님은 10월 5일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인천종무원장 권한대행 임명장을 받았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계 품수식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스님은 10월 22일 부도사에서 제5차 법계 품수 수여식을 봉행했다. (053)325-0400



한국여성불자상 수상

불이회 초대회장 윤용숙 씨(지혜로운 여성 이사)는 10월 2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제3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한국여성불자상을 수상한다.

인사

불교방송 김영일 사장직무대행 임명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2009년 10월 21일자로 김영일 불교방송 전무를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1948년 출생. 고려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MBC보도제작국장, 강릉MBC 사장 등을 역임.

"현 정부에 7가지 조치 제안합니다"

19일, 각계 인사 111명 참여 '희망과 대안' 공식 출범

"현 정부의 파탄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며 현 정부에 7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화 스님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111명이 참여한 '희망과 대안'이 10월 19일 조계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희망과 대안' 창립식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취소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망과 대안' 공동대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는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문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연설문에서 '시무7책'을 제안하며 △실용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되살릴 것 △사회통합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여는 정치를 할 것 △정치공학적인 참모진을 배제할 것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 검찰 · 경찰을 동원한 억압적인 통치방식을 바꾸고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토건이나 개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생태, 문화예술, 디자인, 창의, 신뢰,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21세기 비전을 담아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3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호소하며 "퇴임 후 권력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 변호사는 "'희망과 대안'은 정부를 돕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원점에서 고민하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제안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바쳤던 피땀을 모두 합쳐 이 정부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

그는 특히 "정파와 시민사회, 다수 국민이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정국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희망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다. 위기의 시대에 그 누군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한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나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무 7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만남이나 협의에도 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일붕존자탄신 95주년 기념 대법회

종단 지도자 및 사부대중 2천여명 동참

전국일붕문도중앙회는 10월 10일 제주 관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일붕존자 탄신 95주년 기념 제38회 일붕문도의 날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붕문도중앙회 소속 각 종단 지도자를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했다. 이어 일붕문도 108고승 초청 마정수기 법회가 진행됐다.



10월 10일 열린 일붕문도회의 날 법회모습.

붕해 스님(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은 법어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일붕문도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전종도 법계 품수식 21일 호불사서 봉행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10월 21일 인천 호불사에서 '전종도 법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수식에는 원로의장 금봉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전 종도가 참석했다. 법계는 종덕에 삼주, 광은 스님, 대덕에 법상 스님 중덕에 도우, 자명, 진율 스님, 대선에 도천, 무각, 성각, 혜명 스님, 혜덕에 지현 스님 정덕에 일명 스님, 계덕에 해정 스님이 각각 품수됐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좀 더 막중한 수행자의 본분을 마음에 새겨, 종단의 중추 수행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전하는데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품수식에 이어 고시위원장에 표창패, 호불사 주지스님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국민 MC이상벽, 브라운관 컴백

녹슬지 않은 입담으로 불자들 마음 사로잡아

잠시 방송을 떠나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던 국민 MC 이상벽이 불교TV에서 새롭게 마련한 '붓다야 붓다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10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붓다야 붓다야'는 벌써 강부자, 설운도, 박상철, 김홍경 한의사 등이 출연해 이상벽과 함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붓다야 붓다야' MC로 컴백한 이상벽씨가 오심 스님, 강부자씨와 함께 했다.

특히 탤런트 강부자씨는 첫 출연에서 29년 전 학교에서 단체기합을 받다 폐혈증에 걸린 아들의 사연과 자신을 둘러싼 악성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맡은 불교TV의 조병순 PD는 "이상벽씨가 오랜만에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수한 입담을 과시해 출연진 및 방청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녹화장 분위기 또한 너무 좋아 촬영 내내 즐거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연예인은 물론, 일반 불자들도 출연해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붓다야 붓다야'는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3회에 걸쳐 방송된다.

이은정 기자

공불련 · 닥스클럽 배우자 찾아나서

미혼과 비혼 비율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가 합리적인 배우자 찾아주기에 앞장선다.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이동우)는 결혼정보회사인 닥스클럽(대표 엄앵란)과 10월 23일 오후 7시 닥스클럽에서 상호협력 제휴를 체결하고 미혼 불자공무원들의 결혼을 적극 돕는다. 이동우 회장은 "미혼과 비혼, 만혼 등으로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협력이 긴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 최우수 결혼정보업체인 닥스클럽과 손잡고 공무원불자들의 결혼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닥스클럽은 공무원불자들의 가입비 할인 혜택, 공무원 불자 대상의 미팅파티를 개최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앵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불자연합회와의 제휴를 통해 공무원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정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박해동 기획팀장



생명나눔실천본부 박해동 기획팀장(사진)이 10월 13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2009 장기기증 유공자표창 수여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 팀장은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 열심히 일한 본부직원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다. 앞으로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가을에 와야 할 秋갑사

도량은 가을이 깊게 배어있다. 산문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을이다.
돌담 밑에 모여 있는 마른 잎들, 꽃이 떠난 대적전 백일홍,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들, 도량 곳곳에 매달린 붉은 감들,
차가워진 오솔길, 외롭게 서있는 당간지주, 잊을 만하면 불어대는 가을바람 소리는 없던 '생각'도 일게 한다.
가을에 와야 할 갑사다.

몇 해 전 여름에 왔을 때 보았던 팔상전 단풍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땐 푸른 잎이어서 가을에 다시 오게 되면 붉은 모습을 찍어갈 생각이었는데,
돌담 위로 보여야 할 단풍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
멀리 법당 어간에 서있던 다람쥐 한 마리가 내게 눈을 맞추고, 그루터기 위로는 낙엽이 떨어져 앉는다.

다람쥐를 따라 팔상전 마당을 나선다. 스님도 어디론가 바삐 간다.
꽃길을 돌아 선원으로, 선원을 나와 다시 꽃길로, 돌문을 지나 대적전으로, 대적전에서 다시 진해당으로 간다.
팔상전 단풍나무를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기로 했다.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다. 도량엔 순식간에 저녁이 들어차고, 들어찬 저녁은 산문을 닫기 시작한다.
돌담 밑의 마른 잎들, 대적전 배롱나무, 붉어지기 시작한 단풍나무, 별처럼 매달린 감들, 어두워진 오솔길, 외로워 보이
던 당간지주, 다시 불어오는 가을바람. 그리고 볼 수 없었던 팔상전 단풍나무.
가을에 와야 할 갑사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갑사는…

계룡사 · 계룡갑사 · 갑사(岬寺) · 갑사사(甲士寺)라고도 한다. 420년(백제 구이신왕 1) 고구려에서 온 아도 스님이 창건했다. 505년(무령왕 5) 천불전을 중창하고 556년(위덕왕 3) 혜명 스님이 천불전 · 보광명전 · 대광명전을 중건했다. 679년(문무왕 19) 의상 스님이 당우 1,000여 칸을 더 지어 화엄도량으로 삼아 신라 화엄십찰(十刹)의 하나가 됐고, 옛 이름인 계룡갑사를 갑사로 바꿨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도량이 모두 소실되어 1654년(효종 5) 사정 · 신휘 스님 등이 중창했다. 1875년(고종 12)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55-102009.10.279:51AM페이지1(1,1)

도심서 만나는 '지장산림'

공덕원 법당, 지장경 강좌 1년 과정 진행

부산 도심 한가운데에서 1년간 장엄한 지장산림이 펼쳐진다.

대비원력, 참회회향의 지장신행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에서 <지장보살본원경> 원전을 설하는 지장산림이 열린다.

행사는 10월 28일 오전 11시 개강해 2010년 12월까지 이어진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마다 공덕원 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교재가 될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하고자 노력해,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평등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

주지 효선 스님은 "'지장'은 '땅에 머금어진'이란 뜻으로, 땅이 갖고 있는 성품을 뜻한다. 따라서 <지장경>에는 일체중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며 "그동안 <지장경>과 지장신앙에 관한 강의가 드물었기에 지장도량인 만큼 지장경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로는 각성 스님에게 전강 받고, 티베트 전통강원에서 인명학을 전공한 범하 스님이 등단해 감로의 법을 전한다. (051) 625-2253

박지원 기자

품격있는 문화제로 내년 기약

제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성료


제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 중국 오룡차법을 시연하는 한국육우차문화원.

깊어가는 가을, 단 하루 동안 부산을 차향으로 물들인 제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가 성료됐다.

10월 19일 국립국악원 내 예지당과 옥외 연악당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문화제는 약 30여 개 다회 및 단체, 200여 차인이 참가한 가운데 '다촌선비차례' '주심차법' '일본차법' '명상선차' '오방차례' '중국 복건성 오룡차법' '궁중연회차례' 등의 국내외 전통 차법을 소개하고, 효도 차올리기, 남성 및 직장별 행차시연, 다식 만들기, 한복 바로 입기, 절하기, 행차 등 5000여 명의 관람객과 폭넓게 호흡하며 '차의 진수'로 안내했다.

또 금당 최규용, 목춘 구혜경, 다촌 정상구, 원광 스님 등 부산의 차문화 선각자 4인에 추모차례를 올려, 차의 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차문화 선양을 위한 제1회 차문화 글짓기 현상공모 및 사진촬영대회를 연계해 화제를 모았다.

반면,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어 국악원 내 소극장인 예지당 객석이 부족하거나 점심식사로 제공된 연밥 등이 모자라기도 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경순 집행위원장은 "올해 선보인 다례 작품들 모두 웅장하고 세련돼 만족스러웠다.

특히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찻자리 소장전은 소담하면서도 세월이 묻어나는 귀한 전시였고, 전반적으로 컨셉이 확실하고 생동감 있는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김순향 대회장은 "부산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제로 돌아오겠다"며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시 부대문화행사로 처음 마련된 이래 올해 4회에 이르고 있다.

박지원 기자

가을 '행선' 하기 좋은 계절

31일, '희망 세상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 걷기대회' 개최


'고통'을 주제로 열린 대광명사의 문텐로드 모습.

상쾌한 가을바람이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을, 굳이 법당이 아니어도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수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올 가을에는 여러 도반과 어울려 '걷기'를 통한 행선에 빠져보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051-853-0429)는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희망 세상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시부터는 준비체조와 출발점 이동, 걷기대회 등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4시 폐막선언과 함께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등 흥겨운 회향식을 갖고 마무리한다. 이번 걷기대회 코스는 어린이대공원 입구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을 출발해 공원 내 순환산책로를 따라 4시간 여 진행되며, 환우와 가족, 장기기증 후원회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051-861-8800)는 11월 7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3시간여 이어지고, 걷기대회 기록우수자 및 참가자 전원에게는 국내선 왕복항공권, 코모도호텔 경주 1박 숙박권, 영화관람권, 자전거 108대,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 등을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부산경남지역 사찰에서 불자 2500여 명을 우선 접수받고, 현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500명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

대광명사(주지 목종, 051-742-7610)도 11월 둘째 주 일요일인 8일 해운대 달맞이언덕에서 하나의 화두를 들고 깊이 성찰하는 문탠로드 명상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9시 30분 문탠로드 입구에서 출발해 2시간 여 동안 걷기 명상과 주지 목종 스님의 법문, 단계별 주제 토론 등이 이어진다. 매회 학벌, 명예, 가족, 돈, 고통 등을 주제로 이어온 명상법회는 오는 11월에도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선정해 심도 깊게 풀어갈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역 4개 사찰이 가을맞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범어사(주지 정여), 혜원정사(주지 원허), 홍법사(주지 심산), 성암사(주지 응현) 등 4개 사찰이 11월 8일 오전 9시부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즐거운 가을운동회를 벌인다. 족구, 400m계주, 200m 공양미 메고 릴레이, 승부차기, 단체줄넘기, 쪽지풀이 달리기, 풍선 쌓고 터트리기, 배구,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교 · 가톨릭 사회복지발전에 '한마음'

21일, 불국토 · 부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10월 21일 부산가톨릭대 로사리오관에서 열린 불국토와 부산가톨릭대의 산학협력 체결식.

부산 불교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종교를 초월한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부산 가톨릭대와 손을 잡았다.

불국토는 10월 21일 부산가톨릭대 로사리오관에서 가톨릭대학교와 산학협력 조인식을 갖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및 사회복지현장 정보 등을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사단법인 불국토(대표 정관), 사회복지법인(대표 혜총) 불국토, 재단법인 불국토(대표 범산) 등 3개 법인과 산하기관 17개소와 부산가톨릭대학교가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을 맺은 복지기관과 대학은 각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전방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조인식은 표면적인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및 개발, 양 기관 내 교직원 상호교류 및 협력지원,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위탁교육 실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개발 등 실천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에 수반되는 이론을 정립해나가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대표이사 범산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 관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과 부산 가톨릭대학교 윤경철 총장, 안갑환 교무처장, 최순옥 간호대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산학협력 체결을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아름다운가게 금정점

"세상이야기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한산한 목요일 오전 11시. 작은 가게 안에 네 살배기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르는 새댁과 보물창고라도 발견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구경삼매경에 빠진 할머니의 모습이 정겹다. 드문드문 익숙한 듯 바쁜 걸음으로 사무용품을 찾는 직장인 손님들도 다녀간다. 의류, 주방용품, 도서, 아동용품, 컴퓨터용품, 침구, 가구, 예술품 등 있어야 할 것 다있고, 없을 것도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이다.


아름다운가게 자원봉사자들.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단체다. 오는 12월 30일이면 개점 2주년을 맞는 금정점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시티타워 1층에 자리해 전국에서 95번째, 부산에서는 6번째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됐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금정구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이 적극 유치하고, 부산도시공사가 매장을 기증하는 등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현재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고문을 맡고, 부산울산본부 정종복 간사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마음으로 운영중이다. 특히, '활동천사'로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덕분에 진열된 상품 하나하나 빛이 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단연 의류다. 요즘에는 워낙 옷감도 좋고, 유행에 민감해 비싸게 주고 구입한 새 옷도 금방 싫증내고 옷장에 묵혀두는 경우가 많아, 이곳 옷들은 새 옷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주방용품과 장난감도 월 · 수 · 금 일주일에 3번 새 상품이 들어오는 날이면 동이 난다고 한다.

자원봉사자 박화자(48)씨는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집에만 있던 때보다 훨씬 집안일을 열심히 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한다.

이렇게 고마운 자원봉사자와 활동천사들을 위해 매월 한 차례 모여 가게 운영에 관한 대화와 조촐한 식사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달에는 운영위원장인 심산 스님이 직접 홍법사로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심산 스님은 "사회가 없이는 불교도 있을 수 없다. 불교가 사회와 소통하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불교가 존재할 것"이라며 교계의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이미 서울 봉은사 내에 '아름다운가게 지점'이 들어섰고, 서울에서는 사찰 또는 불자 모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및 '아름다운 하루', 현장 부스에서 직접 판매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나눔 장터' 등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가을을 맞아 개산대제나 산사음악회, 큰 법회 등을 열면서 한편에서 '아름다운가게 야외행사'나 '움직이는 가게'를 마련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어떨까. (051) 847-8701 www.bstore.org

박지원 기자

삼광사 신도회가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삼광사의 풍경 소리로 세상은 자비로워집니다!
삼광사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관음도량으로
35만 신도들의 관음기도 소리로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부산의 대표사찰입니다.
부산경제 살리기 및 G20 정상회의 유치 기원
삼광사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법회
· 일시 : 2009년 11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삼광사 불교문화회관(지관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환경도시 그린도시 만들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일시 : 2009년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삼광사 대웅보전 앞
주최_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주관_ 부산 MBC 후원_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
후원_(MC) 김범수, 설운도, 송창식, 이 용, 신형원, 김수희, 박현빈, 박강성, 박상철, 웅 산
□ 정기법회 - 매월1, 2일 오전 10시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주지 류화산
총무 엄행주 교무 김도진 재무 김효성 노전 손형선
고문 김길두 김기성 전무수 김부환 박경순 홍영표 이종화 장석근 김형대
신도회장 김석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김상준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김석홍
기획위원 송세현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섭외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大韓佛教 天台宗 三光寺 SamKwangSa Temple CheonTae Order Korean Buddhism
TEL(051)808-7111~5 FAX(051) 803-13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http://www.samkwangsa.or.kr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 화 재 | 화 재 | 상 해
기본담보 | 화재손해 | 시설소유 배상책임 |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 |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C755-112009.10.279:57AM페이지1(1,1)

효봉 스님 43주기 송광사서 추모재 봉행



효봉 스님 제43주기 추모재 모습.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던 효봉 스님 43주기 추모재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19일 송광사 효봉영각 앞에서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원명 스님, 회주 법흥 스님, 도성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재를 봉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날마다웃는집 출간 법륜 스님 강연회

'즉문즉설(卽問卽說)'의 법륜 스님 강연이 광주에서 열렸다.

10월 17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날마다 웃는 집'의 출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지역불자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날마다 웃는 집'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한 법륜 스님의 열정적인 강의, 현장에서 직접 질문한 즉문즉설 등으로 3시간 여에 걸쳐 이어졌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서 이제와 남편, 아내 땜에 괴롭고, 자식 땜에 괴롭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열렸던 공개강좌의 벽을 넘어 좀 더 가까이 사람들과 호흡하고자 마련됐다. 11회에 걸쳐 경주, 포항, 부산, 대전 등 전국 대도시에서 11월 6일까지 열린다. (02)587-899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루나존자는 쉽니다

"믿음 · 깨달음 시작하는 장소돼야"

15일, 영암불교대학 개원식 갖고 내년 3월 개강 준비

기(氣)의 고장을 널리 알려진 전남 영암에 첫 불교대학이 개원돼 지역포교의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영암불교대학(학장 월우 · 도갑사 주지)은 10월 15일 영암불교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2010년 3월 불교대학 개강을 준비하는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영암불교회관에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에서 "믿음과 수행은 늘 같이 해야한다"며 "부처님 법은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라는 말씀처럼 와서 배우고, 깨달아야 그곳이 극락세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곳 불교대학은 믿음과 깨달음을 시작하는 장소가 돼야한다. 배우는 자는 하루에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이 부처님임을 깨달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영암불교회관서 열린 영암불교대학 개원식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법문에 앞서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의 불교교육은 자유와 신행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신행인 양성을 위해 끊임 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영암불교대학은 부처님 참법에 맞는 바른 정진과 공부를 하고,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사회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지역민에게 비춰졌을 때 불교대학의 이미지는 새롭게 탄생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원한 영암불교대학은 영암지역민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 과정생 모집을 통해 2010년 3월 2일 입학식을 갖고 개강한다. 교수진으로는 중앙승가대 종석 스님을 비롯해 월우 · 법인 · 보각 스님, 김승철 · 최종남 · 김상명 중앙승가대 교수와 보선 · 암도 · 종범 · 범각 스님 등이 특별강사로 참여한다. 특별행사로 성지순례, 철야정진, 도갑사 법회참석 등도 진행된다. (061)473-512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조사 '귀원정종' 새롭게 조명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다례재 봉행

3 · 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 백용성 조사(1864~1940)의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에서 '백용성 조사 오도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가 봉행됐다.



10월 17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된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3주년 기념 다례재 모습.

10월 16~17일 열린 행사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용성사상과 계승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용성 스님의 저술인 <귀원정종>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용성 스님을 시봉한 동헌 스님에 관한 연구논문 '동헌 스님의 삶과 용성 스님의 유훈 실현', 덕산 스님은 '승가의 쟁사(諍事)와 파승(破僧)에 관한 석존의 교계(敎誡)'를 발표했다.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 3 · 1독립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나선 것을 비롯해 불교 혁신과 정화운동 등에 앞장선 불교운동가다. 특히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와 선농불교를 주창한 선각자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가 연구 발표할 <귀원정종>은 용성 스님이 1908년 지리산 칠불사 조실로 주석하며 저술한 첫 단행본이다. 근대화의 격동기, 개신교와 신흥종교가 급성장하던 상황에서 불교와 이웃종교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아 국내 비교종교학의 효시로도 불린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용성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신지 123년째를 맞이하는 용성조사 오도 123주년 봉찬대재와 7여래불, 69조사와 7대사를 비롯한 제대 선지식 다례재와 온 겨레를 위한 1만등 불사 회향식이 봉행됐다.

법륜 스님은 법어에서 "용성 스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인 한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각사상을 통한 민족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민족의 지도자"라며 "용성 스님의 유지를 올바르게 이어받아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려노후수행관 설계공모전

선운사, 11월 15일까지 응모 상금 천만원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노스님들을 위해 교계 최초로 조성되는 승려노후수행관은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 일대 2만㎡(6000천평) 대지에 세워진다. 건물은 자연친화형 전통한옥 형태로 가구당 1~2인이 거주하는 10~20개동 및 6~7인 거주 다가구형 공동시설을 갖춰 노스님들의 주거와 수행, 간병을 고려한 공동체 거주지로 건립될 예정이다.



고창 선운사 전경.

공모전 응시자격은 대학(원)생, 해당분야 대학교(원) 부설연구소 또는 유사연구기관,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자연친화형 한옥 건물과 승려노후수행관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과 우수상에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상금이 주어지며, 입상자에게는 설계 참여권이 부여된다.

11월 15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석상마을에서 열린다. 작품 접수는 2010년 1월 30일까지, 입상작 발표는 2월 10일 불교신문 및 선운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공모전의 시상은 대상에 상장과 상패 상금 700만원, 우수상은 상장과 상패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입상자에게는 향후 '선운사 노후수행관' 현상설계 참여권을 부여한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정영균씨

전북포교사단장 김진수 현 단장 재임

광주전남포교사단은 10월 16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6대 단장으로 정영균 포교사를 선출했다.



정영균 광주전남포교사단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정영균 포교사단장 당선자는 제7기 포교사고시 출신이다. 교장 정년으로 퇴임 후 목포지역 군부대 포교팀을 창단을 시작으로 목포불교대학 사무국장, 목포교도소 재소자 불자법회를 이끌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단에서 부단장과 교육위원, 군포교팀장,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영균 포교사는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포교사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 포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7일 전북포교사단은 전북불교회관에서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제6대 전북포교사단장에 김진수 단장을 재선출했다.

전체 23명 운영위원 중 17명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현 김진수 단장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단장은 익산 관음사 신도회장과 가릉빈가 합창단장, 이리불교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군포교, 교도소 포교분야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2년간 전북포교사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6대 전북포교사단장의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일청년회 창립 30주년 행사

17일, 원각사 기념법회 100여 회원 · 동문 참여

빛고을 광주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진 청년회가 창립 3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범정택)는 10월 17일 원각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 행사를 100여 회원과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귀 스님(송광사 강원 강주)을 비롯해 정웅정 대한불청 중앙회장, 김용욱 원각사 청년회 초대회장, 강운태 국회의원 등 역대 회장단과 동문들이 참석했다.

범정택 회장은 창립기념법회 인사말에서 "원각불청은 광주 청년 불교의 중심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우리 청년회는 신행활동과 더불어 대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포교의 선봉에서 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정웅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교를 중흥시켜 민주주의와 평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불교청년회가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원각사 불일청년회가 가장 중심에 서서 함께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창립기념법회에 이어 진행된 원각의 밤 행사에는 원각사청년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영상상영과, 원각사합창단의 축가, 풍물패 빛울림의 공연, 불자가수 주권 기씨의 축하공연, 헌혈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생과 현생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탄생 !!!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 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불모 청오스님 약력
• 1965년 출가입산
• 통도사 보광전 부처님 조성
• 범어사 내원 부처님 조성
• 해운대 해운정사 금동 천수천안 조성
• 서울 동국대 대학원(불교학) 수료
• 법무교화 정법회(부산) 초대회장
• 茶(차)잎열매 자연이 준 청다향원장
• 국가관 투철 1037호 표창장수상
• 법륜대(윤장대)실용신안특허취득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C755-122009.10.2710:1AM페이지1(1,1)

인생은 번갯불처럼 신속하니 '무물의 세계'가 눈앞이다

23 도적도 현자되는 칠장사







주인을 알수없는 조선시대의 부도가 매우 독특한 형상이다(왼쪽). 혜소국사 탑비 이수의 용조각과 탑신측면의 용조각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역사 반영 하듯 경내 4곳에 부도와 탑비 모셔

혜소국사 탑비 귀부 이수 빗돌 해체된 채 보관 '화려함과 기상' 어리는 듯

벽응대사 행적비 독특, 부도는 없고 사리공만

"대저 인생이란 번갯불과 같이 신속하며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별이 사라지면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지금 곧 무물(無物)의 세계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고려 문종 14년 11월 15일, 죽산(안성) 칠장사에서 큰 별 하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임금(문종)이 국사로 모시던 그 해에 이승의 인연을 마감하고 '무물의 세계'로 돌아간 고승은 혜소국사(慧炤國師 972~1054)였습니다. 승랍 74세 세납 83세로 눈을 감은 큰 별이 다시 해로 떠오르길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염원 속에 천지가 함께 애도했다고 합니다.

안성 칠현산(七賢山)의 이름은 본래 아미산(蛾嵋山)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수행하던 혜소국사가 일곱 명의 도적을 교화시킨 뒤에 산 이름이 바뀐 것이라 전합니다. 절 이름도 옛 기록에는 칠장사(漆長寺)로 전하니 이 역시 혜소국사의 불사로 인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현산 기슭에 가을빛이 찾아 들었습니다. 천 년 전 한 시대의 스승이 떠났던 그 때도 깊은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잎이 절반 이상 떨어진 감나무마다 주황색 감들이 매달려 제 몸을 익히고 있습니다. 온 몸이 투명해지도록 가을 햇살을 붙잡고 있는 감들이지만 어느 날 시절인연이 다 했음을 알면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별이 사라지면 해가 뜨듯이 나무에서는 새봄에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을 것임을 감나무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칠장사 부도는 모두 네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사역에 네 곳으로 부도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창을 거듭한 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매우 큰 가람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칠장사에 당도하기 전 오른쪽에 가지런하게 단장된 부도밭(경기도 향토유적 제29호)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14기의 부도가 한 줄로 도열해 있는데 모두 석종입니다. 근래 새로 정비되긴 했지만 부도밭의 규모나 부도가 많이 운집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칠장사의 원래 부도밭인 듯합니다.

부도마다 몸돌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전하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에서부터 의암당원옥대사, 송미당치인대사, 보련당혜광대사 등등의 이름들을 어루만지며 번갯불과 같은 삶을 살다간 고승들의 행화를 생각해 봅니다. 건너편 계곡에서 끊일 듯 이어지는 징소리가 귀를 파고듭니다. 어느 만신이 푸짐하게 차린 젯상 앞에서 액풀이를 하는 것이겠지요. 인생의 희로애락도 알고 보면 한 줄기 바람일 뿐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중생인가 봅니다.

고승들의 영롱한 생애를 품은 채 한 줄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부도밭에 들어서면 묵묵히 앉아 세월을 응시하는 나의 또 다른 보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나는 번갯불과 같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홍시처럼 속이 투명해지도록 인내하고 하심하며 지극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부도밭은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지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200미터쯤 올라간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도밭에는 오래되지 않은 듯 한 두 기의 석종이 있고 벽응대사 행적비가 서 있습니다. 비는 정두향이 찬한 글을 담고 있는데 상단에 둥글게 표현된 범자(梵字)가 인상적입니다.

벽응대사는 1576년 경기도 죽산에서 출생해 13세에 출가했습니다. 맑은 성품으로 선과 교를 두루 수행했으며 금강산과 지리산 묘향산과 구월산 등 팔도의 명산들을 유력하며 정진의 끈을 놓치 않다가 만년에 칠현산에서 입적했습니다.



벽응 대사 사리탑으로 보이나 몸돌은 없다.

입적한 때가 1657년 정월인데 세속 나이로 83세 법랍은 71세였습니다. 제자들이 다비해 사리 2과를 수습해 칠현산에 부도를 세워 봉안했다는 내용을 담아 비를 세우고 영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응대사의 부도와 비가 함께 세워지고 영당이 지어진 곳이 바로 지금의 부도밭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응대사의 영당은 1725년(영조원년)에 이루어진 불사 내역에도 '절 북쪽에 미타전과 벽응대사진영당을 세웠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대사의 영당은 정성껏 모셔졌던 것 같습니다.

벽응대사의 부도는 어디에 있을까? 비 바로 뒤에 몸돌을 잃어버린 지대석이 하나 있습니다. 팔각으로 치석된 지대석의 중앙에는 밥공기만한 사리공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팔각의 측면마다 안상이 조각돼 있고 그 크기가 비와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벽응대사의 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빈 사리공을 들여다보니 거기 푸른 가을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 그렇게 하늘을 담고 있는 사리공이 무상감을 더해 줍니다. 흰 빛 사리를 비밀스럽게 모시고 추앙했을 사리공은 부도의 핵입니다. 지대석과 몸돌 사이에 안치된 사리를 도굴해 간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은 부류들일까 생각해 봅니다. 혜소국사는 이 산에서 일곱 도적을 불법에 귀의시켜 현자(賢者)로 만들었다는데, 고승의 유체(遺體)를 훔쳐 치부를 도모하는 사람은 어느 세월에 불법과 인연 맺을 런지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 와 칠장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소조 사천왕상에 허리를 굽혀 절하며 들어서는 칠장사의 경내는 가을물이 짙게 들었습니다. 박문수 백일장과 제1회 혜소국사다례재 및 만등불사 회향법회를 알리는 현수막에서도 가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웅전(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4호)에 참배하고 다시 들어갔던 방향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단풍나무가 절반쯤 붉게 물든 마당가에 독특한 모양의 부도 3기가 서 있습니다. 그 중 두 기의 부도는 모양이 거의 흡사하고 보주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팔각의 지대석에 길쭉한 팔모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팔각의 고임돌을 얹었습니다. 고임돌 각 면에는 영기문이 조각돼 있고 몸돌은 약간 눌린 원형이어서 매우 탄력 있게 보입니다. 그 위에 화려한 팔각 지붕을 얹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가 모셔진 비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래 상당한 불사를 추진해 도량이 산뜻해졌습니다. 혜소국사의 부도는 찾을 수가 없고 비각 안에는 귀부와 이수가 따로 놓여 있고 비는 깨진 것을 복구해 세웠습니다. 귀부의 조각은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해 그 정성을 짐작케 하고 이수의 조각 역시 승천하는 용의 기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귀부위에 빗돌을 올리고 그 위에 이수를 얹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굳건한 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의 주인 혜소국사의 수행과 덕화도 그렇게 향기롭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려지고 시절이 혼탁해 몇 번에 걸쳐 화마를 입은 절이지만, 고승의 행적을 담은 비가 이나마 전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왕명으로 조성된 비가 아니라면 어찌 이리 정교하고 웅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의 불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흑대리석 빗돌의 측면에 새겨진 용무늬에 눈을 빼앗깁니다. 여의주를 다투는 용의 발이 길게 묘사됐고 온 몸의 비늘이 매우 사실적입니다. 제법 깊게 새겨진 구름무늬도 사실감을 더하고 있는데, 이 빗돌이 깨지지 않고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면 아마 용을 조각한 작품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혜소국사는 일곱 도적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보여주듯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습니다. 죽산이 고향이었던 국사는 아홉 살의 나이로 칠장사에 출가해 융철대사에게 배웠습니다. 승과를 거쳐 대사 직위에 오르고 도승통 등 당대의 승려 지위를 차례대로 승진했던 국사는 문종으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년에 국사가 궁을 떠나 칠장사로 돌아가고자 할 때 왕은 직접 봉은사에서 법요의식을 갖추고 국사로 추대해 9배를 올리는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전송하게 해 귀산을 보살폈다는 내용이 비문의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시대의 행운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존경해 받들어 모실 어른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시대에 만인의 존경을 받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만인의 존경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어려운 시절이니,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인생은 번갯불 같이 지나가고 무물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 www.bori.biz 창립 35주년 기념 불교달력 특별할인!

동진기획 · 붓다쇼핑
그곳은 불심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할인가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대량구매시 전화주십시요
금지경전 3권과 주머니형태
할인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할인가 궁단등(8cm) @3,000원(96개이상)
할인가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비단접등 12cm @2700원(100개이상)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12절 1,000원 (100부이상)
최상의 지질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합니다.
• 표 지 – 한국제지 250g/㎡ 아트지
• 내 지 – 한국제지 180g/㎡ 스노우지
• 제 본 – 카피어랜드 트윈스프링(국산)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할인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할인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밀대(1Box 70개) @77,000원
파라핀양초(1.8ℓ 12병) @50,000원
할인가 주목 백팔주 @10,000원(10개이상)
할인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할인가 예불천수경 @1,800원(100권이상)
할인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인연설 (74×40cm)
할인가 고급다포 @4,200원(1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 회색 : 76×39.5cm /흰색 : 74×39.5cm
할인가 일반타올 다포 @2,000원(100장이상)
칼라프린트지 @12,000원(500장)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두달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생산자 → 도매상 → 불교상회 → 사찰



7호 가람의 향기



8호 관음도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8

먹어 본 사람만 맛을 안다

[원문]
용음고목유생희(龍吟枯木猶生喜)
촉루생광식전유(髑髏生光識轉幽)
뇌락일성공분쇄(磊落一聲空粉碎)
월파천리방고주(月波千里放孤舟)
–동화사 조사전

[번역]
고목 속에 용이 우니 기쁨이 솟아나고
해골에서 빛이 나니 알음알이 깊어지네.
벽력같은 큰 소리 허공을 깨부수고
달빛 파도 천리에 외로운 배띄우네.

[선해(禪解)]
어느 날 금오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데 어디선가 풍경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이 한 수좌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네?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다니요. 스님."

스승의 난데없는 질문에 수좌는 그저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매일 듣는 풍경소리였기 때문이다.

"이를 의심해보아야 하느니라. 저 소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고? 이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다."

수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쭈었다.

"하오면, 스님 저 풍경소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이 놈, 네가 의심해서 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하오면 스님."

그 순간 스님의 죽비가 수좌의 어깨를 쳤다.

"꿀이 병속에 가득 들어 있다. 단 한 번도 꿀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이 '병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 때 '이것은 꿀이네' 라고 말해 준들 그가 꿀맛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꿀이라는 명칭은 귀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꿀이 어떤 맛인지 먹어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 도를 닦아 나감은 그와 같다."

그제야 수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금오 스님은 제자들이 글공부나 경전공부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한 번은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한 수좌가 또 물었다.

"스님 확철대오 하기 위해서는 참선만 해야 한다는 그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방안에 들어 앉아 종이 위에다 금강산을 천 번 쓰고 천 번을 외웠다고 치자.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금강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 사람은 금강산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글자 하나만으로는 정작 금강산을 알지 못할진대 하물며 불도(佛道)를 어찌 지식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법문은 나의 노스님인 금오 스님께서 칠불암에서 정진했을 때 대중들에게 들려준 법문이다. 스님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맹 정진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 셋째도 참선이었다.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구하고 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글공부나 경전공부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출가수행자의 목적은 확철대오해 견성성불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설익은 글공부나 경전공부는 방해가 된다는 게 스님의 철학이었다. 스님께서 평생 일관되게 하신 법문은 바로 '자기의 주인공인 마음을 찾아 본래 청정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 였다.

요즘, 나는 새삼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의 50여 전의 법문이 간곡하게 떠오른다. 왜 그럴까? 불가에 몸을 담고 지극한 수행으로 일관한 소납도 이제 세수가 팔십에 가까워졌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화를 지우고 살아도 모자라는 나이에 접어 든 것이다. 삶이란 이렇게 끊임없는 참회의 연속이다.

알음알이로 헤아리는 것은 도라 할 수 없고
본래 청정한 자신을 만나야 깨달음 얻은 것

오늘의 주련 여행은 금오 스님이 불교정화운동을 하시고 한동안 머물고 계셨던 동화사이다. 이곳은 신라 소지왕 493년(신라 소지왕 15) 극달(極達)이 세운 유가사(瑜伽寺)를 832년(흥덕왕 7)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건(重建)할 때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해 있어 동화사라 개칭했다고 전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창(重創)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1732년 8번째 중건한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롯해 연경전(蓮經殿) · 천태각(天台閣)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고, 당간지주(幢竿支柱) · 비로암(毘盧庵) 3층석탑과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磨崖佛坐像) ·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 금당암(金堂庵) 3층석탑 · 석조부도군(石造浮屠群) 등 보물 6점이 있다. 이밖에도 홍진국존진응탑비(弘眞國尊眞應塔碑) 등이 있다. 이곳에 1992년에는 높이 30m나 되는 석조 약사대불(藥師大佛)이 조성되었다.

마애불좌상은 보물 제243호. 불상 높이 1.06m, 대좌 높이 39cm, 광배 높이 1.5m. 지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불상 머리 위에는 바위가 튀어나와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 머리는 나발(螺髮)이지만 육계는 없고, 얼굴은 비만에 가깝다. 짧은 목에는 형식적인 삼도(三道)를 나타내고, 어깨는 반듯하나 위축된 듯이 보이며, 가슴 · 배 등이 전체적으로 평행을 이뤄 평판적이다. 손은 항마촉지인을 지었고, 오른쪽 다리는 대좌 위에 그냥 올려놓은 유희좌(遊戱坐)를 했다. 통견(通肩)의 법의(法衣)는 평행밀집(平行密集)의 옷주름이며, 배에는 새롭게 띠 매듭이 등장했다. 이러한 수법은 9세기에 대두한 양식이다. 광배는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이며 두 가닥의 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했고, 맨 가장자리 부분은 화염(火焰)무늬가 올라가는 그대로를 이용했을 뿐 따로 표현하지 않았다.

석조비로자나 불상은 고려 중기에 불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발(螺髮)을 한 머리에 상투 모양의 육계가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얼굴은 둥글고 투실하며 눈썹이 반달모양으로 분명하고 눈은 아래로 보고 있다. 코끝은 파손되었고 다문 입은 미소를 띠며 두 귀는 크게 늘어졌다. 법의(法衣)는 어깨를 두른 통견(通肩)으로 옷 무늬가 형식적이다. 수인(手印)은 지권인(智拳印)으로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용음고목유생희 촉루생광식전유**: 고목 속에 용이 우니 기쁨이 솟아나고 해골에서 빛이나니 알음알이 깊어지네.'

주련 속에 담긴 내용은 일반 범속의 눈으로서는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벽암록>에 보면 어떤 스님이 "무엇이 도입니까" 물었다. 그 때 도란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枯木裏龍吟)"고 했다. 말하자면 도를 얻었으니 그지없이 기쁨이 솟고 촉루 속에 든 혜안(慧眼)이 깊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촉루는 해골을 가리킨다.

'**뇌락일성공분쇄 월파천리방고주**: 벽력같은 큰 소리 허공을 깨부수고 달빛 파도천리에 외로운 배 띄우네.'

뇌락(磊落)이란 도량이 넓어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을 뜻하고 고주는 외로이 떠 있는 작은 배를 뜻한다. 이와 같이 도란 아무리 깊고 넓고 광대해도 달빛 푸른 파도에 띄우는 한갓 작은 배와 같다는 말씀이다. 즉,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가 드러났으며 알음알이가 없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혼탁함을 지우고 그 마음속의 맑음조차 알지 못함이 바로 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알음알이 따위로는 결코 도를 터득할 수 없으며 깊은 선정(禪定)에 이를 때만이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 성불할 수가 있다는 부처님의 경구(警句)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8

성품은 청정해 물들지 않아

[원문]
只爲不見性 但得見性 慾本來空寂 不假斷除 亦不樂着. 縱有餘習 不能爲害. 何以故 性本淸淨故. 雖處在五蘊色身中 其性本來淸淨 染汚不得. 法身本來無受 無飢無渴 無寒熱 無病 無恩愛 無眷屬 無苦樂 無好惡 無長短 無强弱. 本來無有一物可得. 只緣執有此色身因 卽有飢渴寒熱病等相. 若不執卽一任作.

"자기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이라 구태여 없애려 할 것도 아니고 즐겨 빠질 것도 아니니라. 설사 습(習)이 남아있더라도 방해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므로 비록 오온의 육신 속에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않기 때문이니라.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으며, 굶주림이나 갈증이 없으며, 추위나 더위가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은애(恩愛)가 없으며, 권속이 없으며,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없으며, 길고 짧음이 없으며,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 없어서,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는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춥고 더우며 풍토병 따위가 있게 된 것이니라. 만일 속지 않게 되었으면 마음대로 해보아라."



'갈대잎을 탄 달마' (溥儒 筆, 日 구보(久保) 기념미술관 소장)

[해설]
오온(五蘊)은 색(色, 물질) 수(受, 감수 작용) 상(想, 표상 작용) 행(行, 정신적 행위) 식(識, 인식 작용)을 말하는데 결국은 육신을 색이라 하는 것이고 수, 상, 행, 식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본래의 마음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롱한 구슬에 때가 끼면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때를 벗겨내면 영롱한 구슬은 다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과거와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온의 경계에 끄달려 청정불성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염불 정진을 하면 불성의 때가 점점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업이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녹이면 불성(佛性)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 할 수 있습니다.

법신(法身)은 물질이 아닌 본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 화를 내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불성자리는 화를 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바닷물도 항상 잔잔하질 않잖아요. 큰 배가 지나가거나 태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잔잔해 지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물의 성질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거품이 일고 파도가 일었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 마음도 5관을 통해서 경계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마음바탕은 조금도 경계에 끄달려 간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마음바탕 자리는 억겁 전이나 억겁 후에도 조금도 증감이 없고 생도 죽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행위를 한다 해도 본래의 '참나'는 조금도 행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佛性)자리에서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오직 그 자리만 깨달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인 육신이 있기에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싶은 생각도 끊어집니다. 옛날에 탁발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진묵 스님께서는 나이가 드시니 탁발을 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름 있다가 오면 진묵 스님께서는 얼굴에 거미줄이 쳐 있고 수염도 나 있고 그랬답니다. 본래의 성품자리에 들어가면 안과 밖이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생각, 잔다는 생각이 끊어집니다. 이 경지는 굉장히 편안한 경지입니다. 모든 병이나 고통은 육신에 의해 괴로움을 겪을 뿐입니다. 본래 성품자리에서는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만일 속지 않게 되었으면 마음대로 해보아라.'

물질세계가 모두 허망한 것이고, 허깨비와 같은 것이고, 꿈같은 것임을 알았으면 걸림 없이 마음대로 해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애행(無碍行)을 말합니다. 원효 스님은 그 자리를 확실히 깨쳤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때가 신라시대였는데 낮에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 바가지를 두드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춤을 추곤 하셨답니다.

그 시대에는 원효 스님을 파계승이라 하여 수행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팔지(八地: 모든 번뇌가 멸진해서 다시는 동요되지 않는 不動地)보살 경지 가까이 올라갔던 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래 자리, 둘이 아닌 하나의 경지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은 어떤 행을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행을 하기 때문에 업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불선 합일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방문화 창달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대학원대학교입니다.

1. 모집안내

학 과	과 정 (지원구분)	모집인원
서화심미학과	석 사 (신입)	○○명
불교문예학과	박 사 (신입)	○○명
자연치유학과	석·박사통합 (신입)	○○명
미래예측학과	연 구 (신입)	○○명
문화정보학과	외 국 인 (신입)	○○명
조형칠예학과		

2. 전형일정
【원서교부】 2009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원서접수】 2009년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전형일자】 2009년 11월 7일(토)
【합격자 발표】 2009년 11월 18일(수) 본교 홈페이지

3.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연구과정은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전화: 02) 3668-9811,12
- 팩스: 02) 3668-9899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고해를 건너고 싶은가?… 낮추고 베풀어라

군산 관음사 주지 재곤 스님

중추지절(仲秋之節). 황사로 인해 가을 하늘이 뿌옇다. 때 아닌 황사를 두고 뉴스는 82년만의 10월 황사란다. '저절로 그러한'(自然) 것이겠으나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온갖 알음알이를 동원해 현상을 이해하려 애쓴다.

재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군산 관음사를 찾아가는 길.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그 뒤로는 잘 익은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먼 산에는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번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풍경은 그저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는 길 좌우로 펼쳐지는 수백 수천 장의 나열된 필름들. 목적지가 아니기에 다다를 수 없고, 그저 지날 수 밖에 없는 조연들.

하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나그네에게 이런 망상은 사치에 가깝다. 안전을 이유로 높이 세운 중앙분리대는 맞은편 운전자들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억지로 풀과 나무로 꾸민 길가에는 간간이 표지판과 이동식 카메라만이 서 있을 뿐 이다. 그냥 그렇게 원래 그래서 그랬던 모습으로 구불구불 했던 시골길에서 보이던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였다면,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풍경은 잘 만든 동영상 한편이 틀어진 디지털 액자와 같다.

바쁜 사람들을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시키려 만든 고속도로는 매끈한 길이 죽죽 뻗어있다. 산을 가르고, 물을 건너며 이곳과 저곳을 최단거리로 이었다. 필요하면 어디든 길이 만들어지는 통에 이제는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울'(百千萬劫難遭遇) 것이 무엇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흔해진 세상이다.

서울에서 군산까지 3시간 30분. 시골길은 없었다.

군산도 가을 황사와 같은 도시다. 세계에서 인구밀도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 동네마다 교회가 셀 수 없이 많다. 기네스북에 까지 올랐다는 군산에는 20만 인구에 350여 교회가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인 서울시에 사찰이 180곳인 것을 보면 어느 수준인지 가히 짐작이 된다. 관음사는 교회가 많다는 군산에서도 더 많다는 나운동에 자리한다.

다른 곳이었다면 단박에 일주문에 들어섰을 텐데, 나그네는 그러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가 골목길을 빙빙 돌아 찾은 산허리에 자리한 관음사 주변이 남달랐다. 둘러보니 앞에 교회, 옆에 교회, 담장이 바로 붙은 뒷집마저 교회다.

관음사에 들어서니 108 지장보살상이 도량 곳곳에 서있다. 피식 웃음이 절로 난다. 누가 그랬던가, 하늘 아래 빽빽하게 교회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도 하늘 향해 솟은 탑이며, 불보살상, 밤새 켜놓은 인등을 합하면 교회 십자가 수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고.

좀 전까지 웃던 나그네인데 순간 당황스러웠다.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불전함이 없다. (나중에 재곤 스님에게 직접 물어 알게 됐지만, 관음사는 '불전함'이라 쓰인 함 대신 공양물 올리는 그릇을 쓰고 있었다.)

재곤 스님은 "차나 한잔 하자"며 "선운사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도솔천 내원궁이 참 좋다며 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낯설어 주저하게 되더라"며 말을 꺼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을 찾고,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습(習)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몇일 전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마시면서 '구스름하니 좋네요' 했던 차"라며 차를 따랐다. 정말 구스름했다. 사람이 제 각각이라지만 보는 눈도 입맛도 같기 때문일까. '구스름'한 차 한 모금에 도지사와 나그네가 하나가 됐다. 이것이 자타불이(自他不二)인가보다.

잠시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운 경제, 힘든 가정살림. 사바세계에서 고(苦) 아닌 것이 있을까 마는 재곤 스님이 그 고해(苦海)를 건널 묘안을 일러준다.

"옛날 노스님이 '베풀어라.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불공(佛供) 올린다는데, 불공드리는 것은 부처님에게 내 모자란 것 채워달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든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든) 아상(我相)을 버리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심(下心)해 상대를 존경하는 것 또한 베푸는 것이고요.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교회에 둘러싸인 관음사 곳곳에 지장보살 지키니

인구밀도 대비 교회 가장 많은 군산서 불국토 꿈꿔

저절로 고개 끄덕여질 때의 순간이 곧 생활불교



그래서 제불공양(諸佛供養)이 중생공양(衆生供養)이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던가.

스님은 "바라지 않고 '나'라는 생각 없이 베품은, 벽에 공을 바로 던져 받는 것과 같다. 정면으로 던져야 공이 내게 돌아오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살면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업(業)이 된다. 매 순간의 행이 벽에 부딪히는 공처럼 똑바르게 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이를 먹으니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총명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갖겠지만, 우둔한 사람도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본다면 옛사람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떡여 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은 물론 먼 미래에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요. 저절로 고개 끄떡여 질 때의 순간, 그것이 생활불교입니다. 부처님 말씀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재곤 스님의 삶은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과 하나였다. (말로만 이웃이 아닌) 정말로 옆집에 사는 이웃종교인들에게도 그러했다.

"사시사철 관음사 법당문은 닫혀있습니다. 새벽 쇳송 할 때도, 예불 때도, 법회 때도 그렇습니다.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선풍기만 틀고 기도를 올렸고요. 지난해 신도들이 도저히 안되겠다며 법당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랬다. 목탁 소리, 염불 소리가 소음이라며 민원을 넣은 이웃종교인 때문에 관음사 법당은 속 시원히 문 열고 예불 한번 모실 수 없었다. 무소의 뿔처럼 그냥 목탁을 두드리고 목청 높여 염불 할 법도 한데 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이면 신도들은 재곤 스님에게 읍소했다. 문 좀 열고 하면 안되냐고. 하지만 스님은 한결같았다. 나 좋자고 하는 기도인데 남이 싫다는 짓을 해서 굳이 그 사람들에게 구업(口業) 짓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재가 있을 때면 "조상천도 하는 좋은 일에 (더위에 땀 흘리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며 다독였다.

"사바세계는 모든 곳이 고(苦) 아닙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각자 자기 하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근처에서 관음사가 제일 먼저 들어섰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며, 주택들 모두 나중에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혼자 살기 어려웠을 정도로 외로운 곳이었는데 하하. 하지만 좋은 곳 찾아나도 왔는데 저들이라고 못 올 곳도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나는 이곳 관음사가 좋습니다. 부처님도 계시고, (옆집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방에 중생이 있어 모두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곤 스님은 세랍 72세. 속세에서도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전스님도 없이 지낸다. 겨울이면 무릎보다도 높이 차오르는 눈이 대웅전 계단을 덮을 새라 쓸고 또 쓸었다. 관음재일, 지장재일은 물론 조석 예불 한번 빠진 적이 없다.

"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모신 분들에게, 내게 가장 가까운 분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관음재일, 지장재일을 빼먹지 않고 챙겼을 뿐입니다."

1978년 스님이 관음사를 일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는 건물 하나 없었다. 허허벌판. 그곳에 재곤 스님은 벽돌을 쌓아 20평 남짓한 법당을 짓고 매주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35세에 선운사 주지를 사는 등 여기저기 소임에 불려 다니다 보니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진 까닭이었다.

하지만 관음사를 창건할 때 스님은 분주했다. 상량식을 하려는데 해남 대흥사 주지를 살라는 연락이 왔다. 거절했지만 결국 재곤 스님은 대흥사 주지를 살았고, 관음사를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나운동 일대의 구역정리가 끝나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관음사 근처는 논밭뿐이라 길이 험했는데도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 -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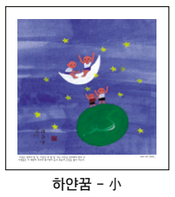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60~70여 어린이가 법회를 찾아왔다. 스님은 법회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하나하나 통장을 만들어 주며 그들의 불심을 키웠다.

“꿈은 쉼 없이 키워야 하는데 여기저기 소임 산다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키우지 못하는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체하면 결국 낙오하는 것인데….”

재곤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스님의 얼굴에는 관음사를 더 큰 도량으로 가꾸지 못한 안타까움이라고 하기엔 더 깊은 회한이 묻어났다.

하지만 재곤 스님은 확고했다. 심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이웃종교인의 억지성(?) 민원에 (관음사 창건을) 후회할 것도 같았는데 스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옥답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이 되는 황무지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불교세가 약하다는 전북지역에서도 특히 군산은 불교의 불모지와도 같은데, ‘군산은 불교의 황무지이니까 힘들여 개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정토(淨土)는 없습니다. 예토(穢土)와 정토는 하나(같은 곳)에요.”

재곤 스님은 관음사 뿐 아니라 많은 불사를 이룬 장본인이다. 선운사, 대흥사 등 큰 절 주지를 살면서 이룬 불사는 누군가라도 해야 했을 당연한 일이라며 언급조차 손사래 치는 스님.

재곤 스님은 해마다 우란분절이면 무연고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해왔다. 군산 화장터에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신도들과 함께 기도를 올린 지도 오래됐다. 그중 재곤 스님의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군포교다.

이마저도 스님은 “포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늙은이에게 살아온 경험담 해달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가면 재미있어 마실 삼아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9군단 법당을 비롯해 공군 제38 전투비행단 법당 등 인근 군부대 법당 불사를 이뤘다. 35사단 영내 호수인 세병호에 연등축제를 시작한 것도 스님이었다.

“사단 법당을 드나들다 보니 둥근 연못이 있어 연등 두르면 야경이 좋겠다 싶었어요. 사단장에게 말해봤는데 돌담을 쌓고 연등을 켰더니 다들 좋아하더군요.”

9군단 법당 불사도 스님의 말 한마디에 세워졌다. 당시 군단 법당은 군단 법무관들이 회의할 때면 법당 부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재곤 스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군단장 면담을 요청했다. 마침 군단장이 예전에 35사단장을 지냈던 장군이었다.

“일이 되려면 술술 됩니다. 큰일도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고요.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재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라 말했다. “잘 된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잘 되는 것이 있다”는 스님의 말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道)요, 수행”이라는 말로 이어졌다. 집착을 여의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연인의 삶, 그것이 재곤 스님이 말하는 참사람이었다.

재곤 스님은 참회를 강조했다.

“잘 하고 잘못 한 것은 자기 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합니까? 매일 5분씩 하루를 돌이키며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화살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반성한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더 잘 해주게 됩니다.”

스님은 수련을 좋아한다. 피운 꽃이 인연이 다해서 질 때도 낙화 없이 물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잠기기 때문이다. 재곤 스님은 “오고 감이 없이 깨끗한 수련처럼 회향을 잘 해야 한다”며 “선운사 석상마을에 ‘승려노후수행관’이 지어지면 그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처음 출가했던 선운사로.

나그네는 재곤 스님의 법문을 보고 듣고 가져왔다.(我今聞見得受持)

부처님 말씀이 어려울 것 하나 없다는 스님의 쉽고도 쉬운 말씀,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참회하라”는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願解如來眞實意)?

순간 황사 개인 가을 하늘이 청명하기만 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재곤 스님은 …

1937년 공주에서 출생했다. 1964년 선운사에서 남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68년 동화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문경 봉암사, 공주 마곡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했다. 고창 선운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감찰부장 · 규정부장 등을 지냈다. 조계종 9 • 10대 종회의원, 종정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1984년부터는 군산교도소 지도위원과 9군단, 35사단 등 군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1988년 전북불교총연합회장,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아 전북불교 활성화에 앞장선 스님은 지금도 전북지역 포교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6. 춘봉 나병기 거사

선지식은 선지식만이 선지식이 아니다. 선지식을 섬기고 받들어 선지식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 또한 선지식이다.

1992년 벽허 김재수 거사와 함께 상락향을 찾아온 수도산인 나병기 거사는 강남 봉은사 1세 주지 나청호(羅晴湖) 스님을 그대로 빼어 닮은 선지식이었다. 80여년을 수도산 속에 살면서 <불괴비첩(不壞碑帖)>을 중심으로 봉은사의 역사 기록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뒤에 사람들에 물려주고 그 자취를 감추었으니 알수 없는 보살이요, 처사요, 거사다.

나청호 스님은 1875년 뚝섬에서 태어나 1934년 삼청동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한국불교를 위해서 헌신한 보살이다. 을축년 대홍수 15일 세운 ‘을축년 대홍수 기념비’를 송파구의 한 동사무소에 세웠다. 일제는 을축년 대홍수를 겪은 후 1931년까지 용산, 마포, 성동구에 둑을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울 한강변의 풍광은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1910년 원종 종무원이 일본 조동종과 손을 잡고 일제화 하려 하자 오성월, 한용운 스님 등은 임제종을 만들어 원당(圓黨), 임당(臨黨)을 만들었다. 그러자 청호 스님은 “조선불교는 조선불교로 서야지 일본, 중국불교 가지고는 조선인을 살릴 수 없다”하



사진은 수해구제 공덕을 표현한 불화.

봉 나병기 거사는 훗날 각황사(현 조계사) 법사가 되어 10년 동안 포교하면서 “새벽 도량석을 마치면 성상(聖像)께 우러러 예배하고, 향화 나부끼는 밤중에는 경서를 익혔다” 하니 자비의 비는 뭇 중생들을 축여주고, 진리의 빛은 요사한 마음을 없애주었을 것이다.

언젠가 봉원사 법회에 갔다가 찾아보니 다 찌그러져가는 매심당(청호 스님의 살림방)에서 길이 11cm, 넓이 9cm, 두께 1.5cm 되는 청죽에 새겨진 “항상 정전백수(庭前栢樹: 조주 선사께 한 선승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 선사께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한 화두)를 보고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하고, 늘 <법화경>을 읽으며 4은을 갚는다”

삼촌인 청호 스님 뜻 새기며 정진… 각황사서 10년 포교도

때 한강에 떠내려가는 708명을 구제하여 불교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스님이시다.

1925년 7월 장마철에 3주야를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40여 척에 육박하는 등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봉은사 대안의 잠실, 부리, 신천 등 세 마을은 완전 수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아무도 구호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그 때, 봉은사 주지 나청호 스님은 목선 5척을 임대해 무려 708명의 생명을 구하고 쌀과 의복, 수해 의연금 등을 지원하는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하셨다. 그후 스님의 미덕을 기리는 시와 그림과 글이 전국에서 답지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모아 만든 <불괴비첩>과 수해구제공덕비가 지금도 봉은사에 남아있다.

또 당시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후세에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926년 7월에, 먼저 한국 전통사찰 봉은사 주지가 되어 정법도량으로서의 승가람을 모범적으로 중건했다. 곧이어 황무지 10정보를 개간, 년간 200석을 거두어 드리는 농 · 선 일치의 불교를 실천했으며, 1915년에는 임야 53정보를 측량해 사유지(寺有地)를 만들어 놓고, 1922년 <선가의범(禪家儀範)>을 편집해 원조기재(遠祖忌齋)를 설판하자 10만 인파가 동원되었으니, “말로만 떠들던 산중불교가 이제야 명실 공히 도시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생각하면 이 넓고 광활한 땅이 누구에 의해 어디로 다 팔려나가고 지금은 수도산 한 자락에 납작하게 서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봉은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청호 스님의 피어린 정성과 용맹정진, 그리고 당시 사부대중의 호법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청호 스님의 조카로 알려진 춘하는 청호 스님의 어점(책갈피에 꽂는 판)을 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평소 청호 스님을 이토록 존경했던 나병기 거사는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청호 스님은 원효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자에 머물지 않고, 김삿갓처럼 천지를 유랑했으나 먹고 노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 원효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늘 ‘진속무염 원융무애(眞俗無染 圓融無碍)’의 액자를 걸어 놓고 원효 스님의 원융불교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원효 대사의 <십문화쟁론>은 실천불교의 화두였다고 합니다.”

나병기 거사는 원효 스님과 청호 스님처럼 세속에서 보살행을 하며 살다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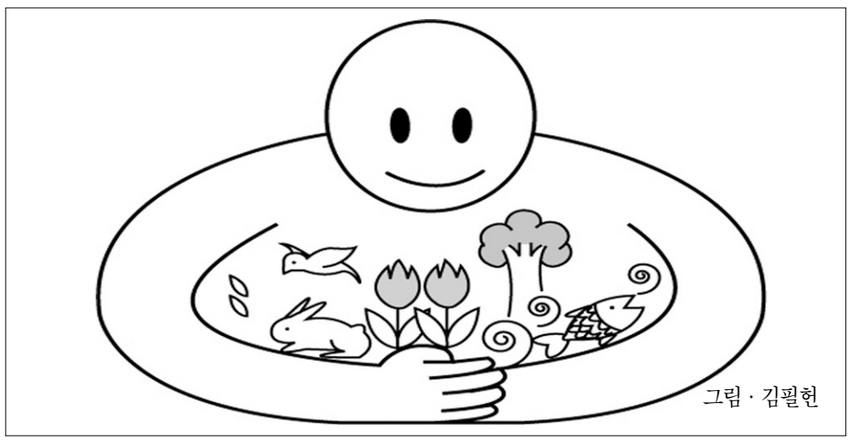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0>

21세기 지향목표는 자연 사랑 · 보존 · 조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위한 녹색성장시대 정책수단 등장


그림 · 김필헌

석존(釋尊)의 가르침은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그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순수한 생명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감각이 있는 나무, 꽃이나 뱀, 새 등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폭력적 태도를 요구한다.

모든 것들의 내부에는 그 존재를 존재로서 나타내는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 깨달아, 이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할 때 모든 존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악업(業)의 하나인 '살생'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동 · 식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물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차별 살생을 하거나 취미로 동식물의 생명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불교도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사냥이나 낚시에도 반대한다. 모든 불교도는 2, 3년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고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불교 사상이라 생각한다.

자애가 존재의 인연이 되면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가 없어진다. 인간과 동 · 식물이라는 관념을 초월한 평등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불교도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살생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깝다'는 생각에 소비를 절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폐품창고가 될 것이다. 가능하면 폐품을 만들지 말고 또한 재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펴는 것도 살생계(殺生戒)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연과 공존하는 것은 이슬람, 기독교 등 일신교와는 상관 없는 사상이다. 신은 인간과 자연을 창조했지만, 거기에는 처음부터 계층이 있었다. 신 밑에 인간이 있고, 자연의 관리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석존의 가르침 처럼 자연과 공생하기보다는,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신의 생각이란 것이 기독교의 발상이다.

기독교의 발상과 보급은 유럽인의 자연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구문명에서는 자연 즉, 산이나 골짜기 또는 뱀과 새 같은 야생 동식물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칭되는 '악'이므로 인간이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의 정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럽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원은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인간의 손으로 품종 개량된 장미꽃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실제로 서양인의 미(美)의식은 동양인들처럼 산이나 들과 같은 자연을 보고 그 풍경을 정원에 재현하는 미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란 인간이 관리하고, 정복하고, 길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기독교이다. 이런 자연관이 있었으므로 근대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자연 속에 있는 진리를 해명하고 자연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구인이 7개의 바다를 건너서 각지에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연을 개발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자연외경의 생각이 있었다면 미국인의 서부 개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이런 자연관이 개척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근대과학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틀림없다.

만일 자연이 신성하다는 생각이 남아있었다면 토지의 매매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립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연관에 기초를 둔 서양문명, 그리고 그 극점으로서 미국식 탐욕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초래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과학적 발명, 생산성의 상승, 물질적 풍요로움의 결과 인간생활의 편리함 같은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지구자원의 활용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경파괴가 멈출 줄 모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적 풍요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도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와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일신교적인 발상, 근대합리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래 '사막의 종교'인 이슬람교나 유태교, 가톨릭, 기독교 이전의 인간은 숲이나 뱀 등 자연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물 속에서도 영성(靈性)이나 신성(神性)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런 자연관 쪽이 실은 '보편적'인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수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자연관,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나 불교의 공존의 가르침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애니미즘(자연숭배)'은 지금까지 원시적인 종교, 미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신교에서 보는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불교의 가치관이야 말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 섰을 때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 종교 및 자연감각이 현대세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아마 세계의 여러 문명 중에서 우리 조상들 만큼 자연에 대한 소박한 신앙심이나 애정을 키워온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지상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성장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환경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녹색성장 시대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⑳ 고객과 코치

허달의 불교와 코칭

코칭 교과서를 보면 때로 하품이 나온다는 것이 코치들끼리 하는 객적은 불평이다. 코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써놓았다는 전문서적을 보면 한마디로 성인 군자가 되어야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없는데, 그러면서도 고객이 느끼기에는 격의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더듬대거나 소탈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너무 망가져서 성실성을 의심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참으로 난감하다. 그 뿐 아니라 코칭이야말로 리더십의 발현이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자기리더십을 굳건히 갖추고, 인간관계 리더십의 승-승(Win-Win)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중생의 서로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시너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의 제 법칙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고(故)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모 일간지 주필이던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인 기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대해 직설적으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제목의 의미심장한 칼럼을 썼던 것을 기억한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삶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자식을 낳게 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짐짓 아들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삶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 이 녀석이 감을 잡은 것이다. 아버지의 이른 바 코칭 질문에 섣부른 답을 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경험칙이 작동한 것인지도 모른다.

코치들 사이에서도 배우자 코칭과 가족 코칭은 가장 어려운 코칭이라고들 말한다. 가족 코칭에는 일반적으로 코치의 어젠다(Agenda)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아닌 척 해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이런 습관은 바꾸도록 코칭해야지'라든가, '이 아들 녀석은 지금 가치판단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놓아야 해'라든가 하는 의도가 코치의 마음 속에 은연중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코칭의 결과가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코치가 고객 탓(?)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족 코칭의 특성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코치는 도반과 같은 존재

가족이 코칭의 대상으로 별로 달갑지 않은 고객이라면 어떤 고객이 좋은 고객일까? 우선 마음의 연결이 잘 되는 고객이 코치에게는 반갑다. 코치를 전지전능한 도우미로 보지 않고, 한계가 분명한 전문가(Professional)로 보는 고객, 고객 스스로가 코칭을 통해 무언가 얻기를 희망하고 그런 희망을 굴절 없이 코치가 제공한 비밀보장의 테두리 안에 믿고 풀어놓는 고객, 선택이 분명하고 자신이 선택한 바는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고객, 이렇게 쓰다 보니 최고의 고객은 코칭이 필요 없는 고객이라는 역설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고 통하여, 상호 지지(支持)를 느끼는 도반(道伴)과 같은 존재가 아마도 가장 이상적 고객일 것이나, 그런 경우라면 삶의 방식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코치는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될지도 모른다.

CEO 코칭을 시작하는 경우, 나는 미리 마련한 한 페이지 정도의 코치 역할 리스트를 고객 앞에 내밀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한다. 고객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코치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어떤 CEO 고객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어떤 고객은 침묵하는 경청자,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지지자(支持者), 또 어떤 고객은 자신의 리더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조언자, 리더십 기술의 연마를 위한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외국의 예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 중에는 코치를 업무여행에 동반해 여행 기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휴가 중에까지 동반해 창의적인 대화상대(Chatting Partner)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픽션의 원치 않는 주인공이 되었던 핵물리학자 고(故) 이휘소 박사의 이야기이다. 당시 핵물리학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기를 원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휘소 박사의 애국심에 호소해 간곡히 그의 귀국을 권유했다 한다. 연구 장비든, 연구소 환경이든 무엇이든 미국의 연구소와 똑같이 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심사숙고 끝에 나온 이휘소 박사의 대답은 "No!"였다고 한다. 채팅 파트너가 없으면 창의적 연구를 이어 가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당시 대통령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코칭의 마법에 대하여 알았을 턱이 없으니, 이 말의 진의를 얼마나 이해했을는지 자못 궁금하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대도무문 즉시 도통하는 천복대운 말문을 열어 시공을 초월경신도통으로 견성 성불하여 만인을 제도 일류 스승되는 루진통 대용맹 정진대법회

진광진법 진 태양에 비밀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사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그 누구도 상에 빠져 음과 양 유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는 수행법이고 음과 양이 바뀌고 산과 바다와 물질과 물질이 바뀌는 지구촌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대한민국 국운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양력 11월 10일, 11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소울음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 하늘의 뜻을 받는 루진통 득도법인 용맹정진.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영원한 세상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최상승수행법이며 우리나라 국운이 지구촌을 지배하고 각나라에 해와 달과 별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운이 약해지고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운집하여 세계인류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도전하시어 도통군자되시고 천지공사 주인되시고 스승되는 수행법이며 중풍,치매,노화방지를 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수행법.

본 달마종단에서는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뜻이 있으신 분과 본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 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윤달든해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결혼, 생남, 사업, 일류대학, 진급, 고시, 취직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방해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우시에 대용맹정진을 경신일에 수행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

1.대운이 열리고 막힌운과 막힌 자금회전되고
2.병마가 침입하지 못하며 건강하다.
3.호법선신이 도와 도박, 음주, 담배 금연이 된다.
4.사주팔자가 변하여 부귀장수 한다.
5.직장, 사회, 가정에 화합이 잘 된다.
6.삼재팔란 관재, 인간 구설이 소멸된다.
7.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8.잡신에 빙의된 조상, 남으로 부터 해원상생 되어재기가 되고 자금이 돌아 성공한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루진통 도통군자 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플루 전염병을 막는 것은 배꼽을 덥는 것이 비방이다.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범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휴대폰 010-8533-1601,010-3239-3110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혜안을 열어 거부장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하명당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기룡명당 봉황산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종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의집 수행처
법당엽불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종 입종 환영.

● 입제 : 양력 2009년 11월 10일(윤, 9월 24일 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11월 11일(윤, 9월 25일 수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미륵달마 경 신 도 통 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중국 육조사 (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풍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타)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 합니다.

◈ 자 격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화원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흥사 옥관음불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 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C755-172009.10.2710:8AM페이지1(1,1)

‘생사해탈’ 본래의 내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




그림 · 최문정

> “
> 사라진 것을
> 아름답게
> 추억하라
> 아쉬워하지 말라
> 모든 것은
> 변해간다
> ”

대연 거사는 무생교 다리 위에서 혜암 스님 떠올려
중봉암터 가는 길 잊을 만큼 원각 스님 법문에 심취
산길 지워버린 낙엽조차 제행무상 설법하는 부처

대연 거사는 앉아서 졸다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기왓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꿈결처럼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가 보니 비의 촉감이 가냘프게 전해지는 가랑비였다. 수은등 불빛도 촉촉하게 느껴졌다. 가랑비가 부나비처럼 흰 불빛에 달려들고 있었다. 대연 거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비였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면 원각 스님과 함께 중봉암 터를 가기로 한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내리는 비의 기세는 우산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떠난 집과 도예공방 생각도 났다. 늦가을에 가마 불을 때려고 장작더미를 햇볕에 말려두고 왔던 것이다. 가을비를 맞으면 잘 말랐던 장작이 금세 젖어버리므로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공방 주변에 천막을 쳐줄 이웃도 없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공방 일은 아예 잊어버리기로 했다. 원당암에 와 있으니 혜암 스님만 생각하고 집중하기로 했다.

날이 밝아지면서 법당을 오가는 보살들이 더 분주해지고 있었다. 비가 그쳐 가는지 우산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연 거사는 해인사 쪽으로 산책을 나섰다. 새벽에 비가 내린 탓인지 가을이 더 깊어진 느낌이었다. 절 마당에도 냉기가 일렁였다. 어깨가 움츠려들고 일교차 때문에 기침이 나오려고 했다. 원각 스님이 계시는 염화실은 벌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빗자루를 든 젊은 시자가 보였다.

시자가 대연 거사를 발견하고는 잰걸음으로 왔다. 시자는 갓 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한 듯 얼굴이 앳돼 보였다.

“어디 가십니까. 곧 큰스님이 찾으실 텐데요.”

“산책 좀 하려고요.”

“늦지는 마십시오. 큰스님께서 아침공양 하시고 바로 중봉암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아침공양을 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해인사까지는 내려갔다 오려고 했다. 산길은 가랑비에 젖어 걷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먼지가 씻긴 단풍도 한층 더 선명했다. 서늘한 기온은 의식을 더 맑게 헹궈 주었다. 대연 거사는 무생교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문득 의식의 저편에서 혜암 스님이 떠올랐다.

무생교(無生橋).

무생이란 생사해탈해 윤회하지 않는 삶을 뜻했다. 윤회의 고통이 사라진 삶이 무생이니 무생교는 생사해탈의 서원이 깃든 다리였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다리였는데, 혜암 스님의 흔적을 찾아 나선 지금의 대연 거사는 다리이름이 자못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생사해탈이란 무엇인가. 혜암 스님이 가장 많이 남긴 글씨이기도 했다. 대연 거사는 ‘생사해탈’의 의미를 곱씹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生)이라 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死)라고 한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일기생사(一期生死)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일기생사보다 찰나생사의 해탈에 더 의미를 두고 정진한다.

찰나생사(刹那生死)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찰나생사의 생멸은 찰나에서 찰나까지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생각 자체가 무명번뇌이고, 그 무명번뇌를 계속 반복하면서 산다. 이러한 상태를 선가에서는 윤회라고 한다. 그러니 선가에서의 생사해탈은 순간순간 무명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한다. 본래의 내 마음, 즉 청정한 마음으로 깨어있음을 뜻한다. 죽음을 뛰어넘어 불사조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처님도 죽었고, 달마조사도 죽었고, 육조 혜능대사도 죽었던 것이다.’

혜암 스님도 원당암을 오르내리면서 이 무생교를 건넜으리라. 대연 거사는 스스로 무생교에서 원당암까지의 산길을 ‘혜암 스님의 길’이라고 명명했다. 원각 스님에게 건의해 조그만 이정표라도 세우고 싶었다. 만약 원각 스님이 허락한다면 이정표를 자신의 도예작품으로 만들어 보시할 용의도 있었다.

일주문 주변에는 등산객들이 줄을 지어 장비와 인원을 점검하고 있었다. 가야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 모인 등산모임 같은데, 그들의 옷차림도 만산홍엽처럼 울긋불긋했다. 대연 거사는 등산객들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해인사 선방인 소림원 밑의 한적한 산길을 이용해 지족암까지 갔다가 다시 무생교 쪽으로 되돌아왔다.

원당암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염화실 시자가 말했다.

“큰스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방에 가방을 두었는데 괜찮겠지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연 거사는 묵었던 방의 방문을 잠그지 않고 바로 염화실로 갔다. 시자스님 말대로 원각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염화실 마루에서 서성이던 원각 스님이 대연 거사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차를 한 잔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스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중봉암으로 갑시다. 차는 나중에 마시기로 하고.”

가야산 봉우리에는 비구름 몇 가닥이 얹혀 있었다. 가야산 너머로 물러선 가을비가 다시 올 수 있는 징조였다. 그래도 원각 스님은 우산을 들지 않고 나섰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용탑선원 밑 주차장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걸었다. 좁은 산길은 벌써부터 가야산 정상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로 붐볐다.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30분쯤 걷다가 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을 건너 오른편 산자락으로 들어섰다.

“중봉암을 철거한 지 30년 만에 찾아가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산자락으로 들어서자 산길은 낙엽에 덮여 희미했다. 흐릿한 산길마저 잡목이 우거져 사라지곤 했다.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숲속이라 큰 나무들이 우산처럼 비를 가려 주었지만 가시덤불들이 산행을 방해했다. 산자락에는 유난히 억센 산죽이 지천이었다. 산죽에 묻은 빗물이 바짓가랑이에 옮겨 붙었다.

대연 거사는 앞서 가는 원각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무슨 화두를 드십니까.”

원각 스님은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었는지 웃기만 하다가 산자락 너머 가파른 곳에 산길이 보이자 대답했다.

“성철 방장스님께 삼천배 하고 ‘마삼근’ 화두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뭣고’로 바꾸었습니다. 화두는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근본 바탕에서 찾게 하는 것이지요.”

원각 스님은 생뚱맞은 대연 거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대답이 허전했는지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내부보다는 자신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을 벌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지위가 낮으면 높은 데로 가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더 많이 모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진다 해도 근본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이 생기더라도 또 다른 욕망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선은 자성을 깨닫게 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나와 남이,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닫게 해 집착과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돈을 벌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심의 근본 바탕에서 생활하면 걸림 없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근본 바탕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래심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성이니, 부처성품이니, 마음자리니 하고 표현하지만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선도 악도 붙을 수 없는 근본 성품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생활해야 활발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서 생활해야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 절대자와 나, 주종관계나 상대가 있는 곳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연히 깨쳐야 합니다. 칼로 목을 치더라도 생사라는 상대를 벗어나 있기에 두려움이 없지요. 안팎이 명철하고 확연해지면 미혹이 사라집니다.

생사가 없는 것을 알고
생사가 없는 것을 체달하고
생사가 없는 것을 쓴다.
知無生死
體無生死
用無生死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쓸 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되면 지혜는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진공묘유’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깨달아 수용하면 활발발해집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의 얘기에 빠졌다. 심오한 경계를 쉽게 풀어내는 스님의 법문에 취해 중봉암터로 간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원각 스님의 얘기에 심취했다. 원각 스님이 가던 발걸음을 돌린 뒤에야 대연 거사는 자신이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쪽 분지에 중봉암이 있었는데 그 사이 숲이 너무 많이 울창해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길이 맞습니까.”

“이 길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을 약초꾼 노인들도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금방 찾을 수 있겠는데…..”

가야산 정상에 얹혀 있던 비구름이 어느새 내려와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산행을 거부하는 듯 굵은 빗방울을 떨어뜨렸다.

“스님, 다음에 오시죠.”

“한 번은 원응스님과 저수지 왼편으로 올라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중봉암터는 꽤 넓었습니다. 도림스님이 넓은 밭에 약초를 많이 재배했으니까요.”

원각 스님은 아쉬운 듯 계속 사라진 산길을 찾았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중봉암터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중봉암터는 자연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버린 것 같았다. 혜암 스님이 둥지를 튼 가야산의 첫 토굴, 광명화보살이 혜암 스님을 시봉하기 위해 올랐던 중봉암. 이제 중봉암은 가야산에 없었다. 그 터마저도 찾을 길이 없었다.

“스님, 중봉암은 이제 스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허허허.”

대연 거사도 마찬가지였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산속을 헤매는 동안 중봉암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듯했다.

“스님, 중봉암 인법당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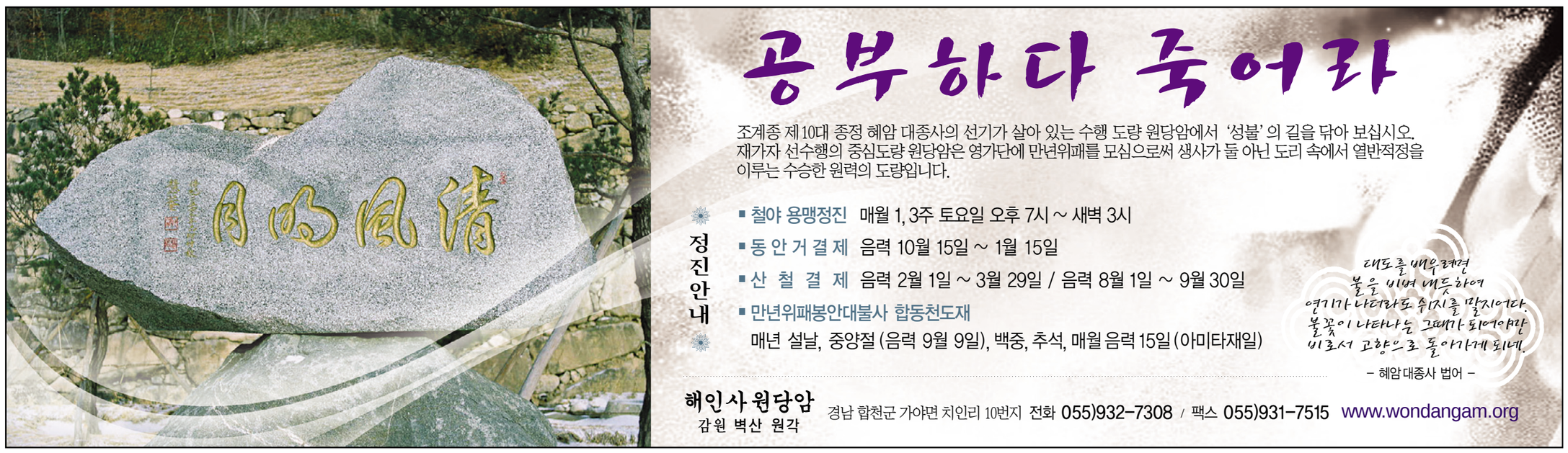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대연 거사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홀연히 어둔 마음속에 불이 하나 켜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중봉암터를 찾지 못했는데도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중봉암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중봉암으로 가는 산길을 지워버린 낙엽조차도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법하는 부처님이었다. 낙엽이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을 하고 있었다.

‘사라진 것을 아름답게 추억하라. 아쉬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해간다. 변하지 않으려고 상(相)을 내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계속>



주인공 만나려면 무조건 믿고 맡겨라

대행 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현대불교 15주년 기획 출판



스님들의 법어집은 읽기가 지루하다는 편견을 버리자. 용어가 어렵고 논리구조가 복잡하다는 지루함도 털어내자. 이제 법어집은 쉽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편집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되새기게 한다.

최근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한마음선원 출판부와 함께 제작한 대행 스님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는 시처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법훈록이란 법회 등에서 설한 법문과 일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들을 모은 책이란 의미다.

대행 스님은 언제나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말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마음공부, 진짜 사람, 주인공, 인과, 주처, 과거와 미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대행 스님이 일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일깨워 준 가르침들이 현장감 있게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승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승려는 먼저 존경받고자 하기에 앞서 신도에게 혹 어려움이 없는지를 묻고 살피며 함께 걱정해 주고 하소연을 들어주며 더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부드러움으로 감싸주고 이편에서 들은 말을 저편으로 옮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는 승려를 공경하는 신도도 있을 터이나 그런 승려는 그 공경에도 빠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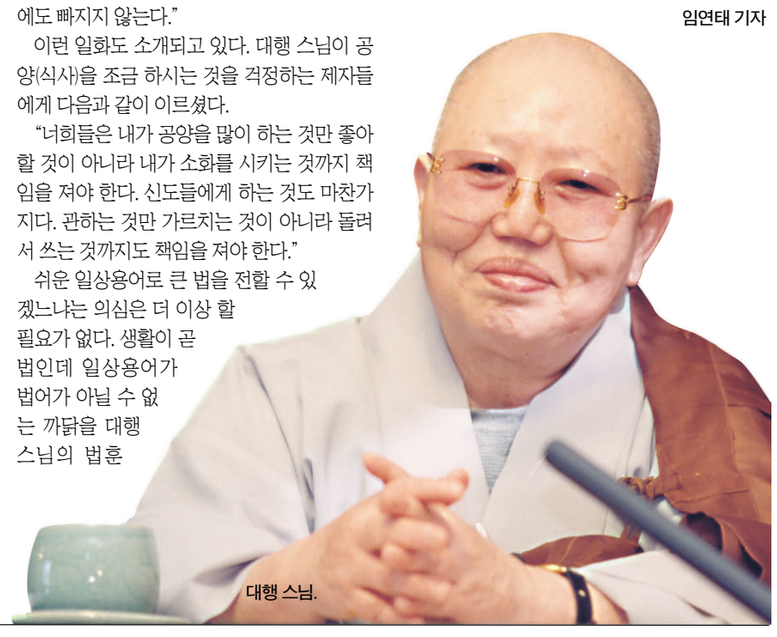
이런 일화도 소개되고 있다. 대행 스님이 공양(식사)을 조금 하시는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너희들은 내가 공양을 많이 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도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관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쓰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쉬운 일상용어로 큰 법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생활이 곧 법인데 일상용어가 법어가 아닐 수 없는 까닭을 대행 스님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는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참된 법은 분별하고 따지는데 있지 않다. 진정한 자신의 주인공도 욕심내고 집착하는 데서는 찾을 수 없다. 말과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신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자세일 뿐이다.

그냥, 무조건이야 | 대행스님 지음 |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만1000원

임연태 기자



대행 스님.

시인과 스님, 하나의 길로 걷다

도법 스님 · 김용택 시인, 희망의 삶을 말하다



"두 분이 길을 간다. 소박하고 청정한 삶의 길로 걸어간다. 시인과 스님, 그 다른 삶의 길이 실상 하나의 길이다. 이상과 현실, 명상과 실천이 겹치는 길이다. 시(詩)와 선(禪)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조차 향기롭게 만드는 길이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도법 스님과 김용택 시인의 치열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 시대의 평화와 생명, 환경의 미래를 묻는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메디치미디어)에는 우리가 따라 걷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의 길이 보인다. 이 책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화두를 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60여 년 동안 정진해온 도법 스님의 안목과 김용택 문학세계의 원천과 궤적이 담겨 있다. 스님의 죽비처럼 서늘한 말씀과 삶을 들려주는 시인의 찰지고 구수한 입담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깨어진 세상(broken world)'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스님과 시인의 대담과 삶의 이야기를 정리한 정용선 경원대 강사는 두 사람을 만난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인생의 고비길마다 겪은 절망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시인과 스님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뭇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구도정진(求道精進) 하며 살아온 시인과 스님의 삶이 이렇듯 우리들 앞에 오롯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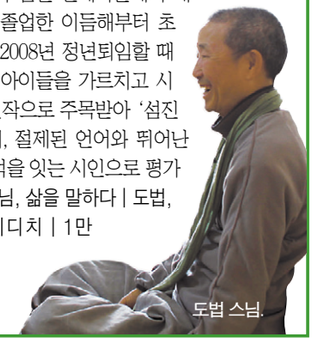


김용택 시인.

도법 스님은 제주에서 태어나 18세에 금산사로 출가했다. 봉암사와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10여 년간 수행했으며, 결사모임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청정불교운동을 이끌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상사 주지로서 '귀농학교'와 '작은학교'를 열었고,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운동'을 펼쳤다. 94년부터 조계종 개혁운동에 나섰으며, 2004년에는 '생명평화 탁발순례길'에 올라 지금도 길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용택 시인은 전북 임실 진메마을에서 태어났다. 순창농고를 졸업한 이듬해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2008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고향을 지키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를 썼다. <섬진강> 연작으로 주목받아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절제된 언어와 뛰어난 형상미로 소월과 백석을 잇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 | 도법, 김용택, 정용선 | 메디치 |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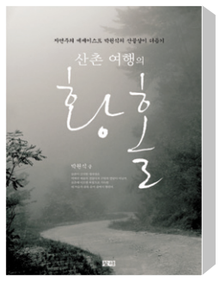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도법 스님.

"산촌에선 마음의 감옥 문이 슬며시 열린다"

박원식 수필가, 우리나라 산골에 감탄 · 애정 담아내



"산촌이 간직한 대자연은 어쩌면 예술의 전당이자 구원의 법당이 아닐까. 산촌에 이르면 욕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감옥 문이 슬며시 열린다."

산을 좋아하는 산 사람이자 자연주의 에세이스트로 이름 높은 박원식 작가가 펴낸 <산촌 여행의 황홀>(창해)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음 망둥이 해방시키기'는 불가의 고매한 참선처럼 화두를 들거나 가부좌를 할 필요조차 없이 취향대로 실컷 마음의 자유를 구가하는 사업"이라며, 산촌 여행이 망둥이처럼 날뛰는 번뇌망상을 잠재우는 훌륭한 수행방편이라고 말한다.

"널리 소문났다시피 마음이라는 물건은 요물이다. 이 발칙한 망둥이가 산촌에 이르러선 양처럼 순해진다. 낮잠처럼 태평해지면 보름달처럼 충만해진다. 일상의 감옥에 갇혔던 망둥이가 산 깊은 벽촌에 이르러 특별사면 된다. 산촌이라는 해방구 안에서 모처럼 쾌재를 부른다. 그렇게 되면 마음 기슭에 동이 튼다. 숨죽였던 의식들이 봄날의 진달래처럼 만개한다."

<산촌 여행의 황홀>은 수많은 도시민들의 로망을 담은 두메 산골의 자연과 사람에 대한 예찬이라 할만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지'의 산골짝을 맨발로 걷고, 손으로 어루만지고, 코로 한껏 들이마시고, 눈으로 사진 촬영하듯 써 내려간 에세이 모음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여행길을 걷듯, 한 문장 한 문장 우리나라 산골에 대한 감탄과 애정을 고스란히 담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든 멀리 떠나리/ 마치 방랑자처럼/ 자연과 더불어/ 연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슴 벅차게."

책을 따라 산촌이 간직한 대자연으로 들어가 산과 물, 구름을 보면서 본래 마음을 밝혀보자[見色明心]. 보이는 그대로가 한마음임을 깨달을 때까지….

산촌 여행의 황홀 | 박원식 지음 | 창해 | 1만7000원

김성우 기자

지성인이 되는 길잡이 '한자학 전서' 출간



21세기를 맞아 부상하는 한자문화권. 우리나라 차세대들이 동북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동년배의 중국, 일본의 젊은이들 보다 한자를 더 많이 학습해 앞서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말은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도 잘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이자 국제한자진흥협의회 회장인 진태하 인제대 석좌교수가 편저한 <한자어 전서(全書)>는 한국과 대만, 홍콩에서 30여 년간 한자 교육을 한 노하우가 담긴 책. 한자를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1071쪽에 달하는 방대한 관련 자료도 실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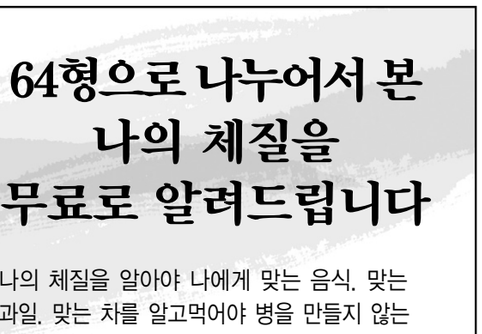
한자학 전서 | 진태하 편저 | 이화문화출판사 | 8만원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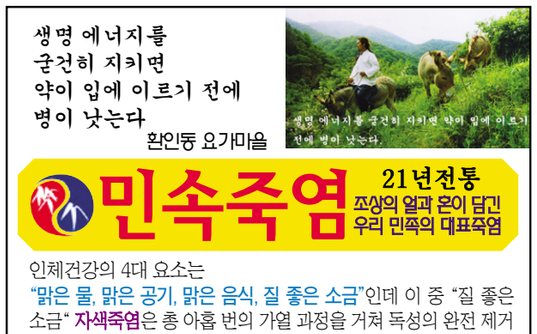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성법	민족사
8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9	5분 수행	현담	선
10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혜담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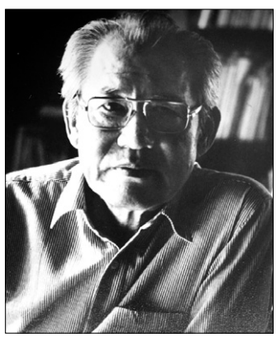






윤이상을 말하다

11월 8일까지 대학로 엘림홀서 공연



"절대를 추구하나 결코 그 곳에 도달할 수 없는 첼로의 G#음. A음에 도달 할 수 없지만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야"

한 평생 음악을 위해, 음악만을 바라보며 일생을 바쳤던 윤이상(1917~1995 · 사진) 선생. 그런 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국의 소리와 동아시아 철학을 바탕으로 서양음악 어법에 서양 악기의 몸을 빌어 노래했던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의 삶이 연극 '윤이상, 나비이마주'를 통해 재현된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건물 로비에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인의 명단에 올라 있으며, 생존 당시 '현존하는 유럽의 5대 작곡가'에 선정될 정도로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했던 조국에게는 철저히 외면 받으며 평생 고국을 그리다 1995년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했던 윤이상은 불경소리와 목탁소리에 음악적 영감을 얻을 정도로 그의 삶과 작품에는 불교적 사상이 녹아져 있다.

이번 공연은 그런 윤이상의 삶과, 한 작곡가의 기억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현대사의 잔상을 바라보고 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이다. 연극에는 선생의 초기가곡 '고풍의상' '나그네', 승무의 우아한 자태가 보일 것 같은 관현악곡 '바라',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강서고분 사신도의 영감을 받은 곡 'IMAGES' 등 다수의 곡들이 연극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연극을 연출한 이동준 은세계씨어터컴퍼니 대표는 "연극 '윤이상, 나비이마주'는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경계의 벽을 허물고, 윤이상의 예술과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이 풀리지 않는 마음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어 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그의 음악은 연극 안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와 엮어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선지의 음표처럼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 안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고, 첼로처럼 열정적이었던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며, 그가 들려주는 따뜻한 불교적 감성에 같이 녹아드는 시간이길 기대한다.

이번 공연은 11월 8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엘림홀에서 공연되며 은세계씨어터컴퍼니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재)서울문화재단 · (재)윤이상평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02)747-2250 **이은정 기자**

괴짜교수, 책 사이에 일탈공간 만들어

최재목 · 박홍규 교수, 10월 19~23일 영남대 중앙도서관서 '러브 붓다' 전시

지난 한 주는 중간고사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가장 바쁘면서도 힘든 시간이었다. 시험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시험기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만들며, 일탈을 꿈꾸게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영남대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아닌 교수들이 일탈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남대의 일명 '괴짜교수'라 불리는 철학자 최재목(철학과), 법학자 박홍규(교양학부) 교수는 10월 19~23일 영남대중앙도서관에 그들만의 일탈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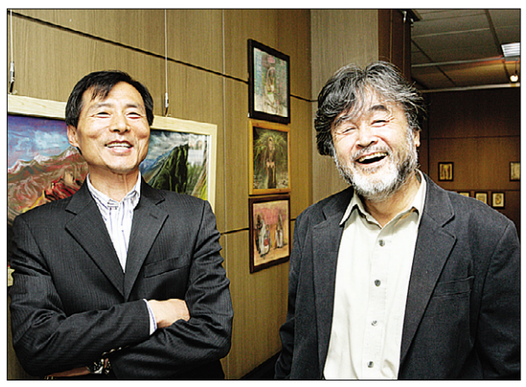
"삶이 참 무료하게 느껴지더군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연구 활동과 학교생활에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었죠. 그러다 결국 사고를 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평소 불교와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최 교수와 박 교수는 무료한 삶의 돌파구를 찾다가 몇 년전 함께 미술전시를 가져 보자던 이야기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실현시켰다. 이들의 전시는 '러브 붓다'라는 제목으로 총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는데, 일탈을 꿈꾸는 이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서인지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작품들로 영남대 중앙도서관을 장엄했다.

실험정신이 돋보인 최재목 교수의 작품은 매니큐어, 매직, 치약, 스티커 등의 다소 신선한 재료로 그의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에는 주로 붓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습은 노숙 달마, 양복 입은 반가사유상, 새색시 붓다, 한복 혹은 청바지를 입은 붓다의 모습 등 우리가 평소 상상할 수 없었던 발칙한 발상으로 붓다의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 제목이 '러브 붓다'임에도 최 교수가 그려놓은 붓다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최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한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부처님은 싫었다. 불교에서 '만상만물'이라고 말하듯, 모든 것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보고자 이렇게 붓다를 표현했다"며 "불교에 대한 매너리즘이 아닌 독창성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몇 번의 전시회 경험이 있는 박홍규 교수와 달리 최재목 교수는 이번 전시회가 첫 전시회이다. 평소 취미로만 그림을 접해 자신의 그림이 '낙화(落畵)'라 말하는 최 교수의 말과는 달리 그의 작품은 독특하고 뛰어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최재목 교수의 작품을 두고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한 박홍규 교수는 '이단아적 발상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괴짜교수들로 불리는 최재목 교수(왼쪽)와 박홍규 교수.

최재목 교수의 작품과는 반대로 박홍규 교수의 작품은 주로 풍경화와 인물화를 다뤘다. 7월 한 달간 인도를 여행하면서 스케치한 것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수채 물감과 파스텔로 그려진 사실적 묘사를 담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화려한 터치와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그의 작품 중 '펩시콜라' 광고간판 아래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노숙자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성과 인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전시회를 열기까지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10여 년 전 법산 스님(대구 여래선원장)이 주측이 돼 '남전대장경'의 번역작업을 같이 시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은 비록 번역작업은 도중에 무산됐지만 불교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그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본업이 인문학자인 이들은 "틀을 깨뜨려야 깨침이 있고, 깨우침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철학 법학 문학 공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모든 장르에 불교 사상을 '크로스-오버' 시킨다.

자신들의 작품은 관심의 연속이며, 그것은 불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자신의 삶에 불교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요소라 말하는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끊임없이 틀을 깨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좀 더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불교사상이 밑바탕이 된 음악 작곡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표현기법만 다를 뿐 담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는 같을 수 있다"며 "스스로 장벽을 깨는 시도들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 일반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최재목 · 박홍규 교수.

앞으로 그들의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을 통해 좀 더 새로운 불교 예술의 탄생도 기대해 본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단청장 혜각 스님 서화전

통도사성보박물관서 12월 31일까지

평생을 단청장으로 화업을 수행 삼아 정진한 혜각 스님의 서화 특별전이 10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통도사 개산 136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혜각 스님이 평생을 수집해 기증한 서화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리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한평생 문화재를 아끼고 전승 발전을 도모했던 혜각 스님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혜각 스님 기증 서화특별전과 더불어 근현대의 중요한 서화작품들과 일본 가노파 화가의 작품 등 해외 작품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055)382-1001

이은정 기자

'타타 IN 붓다' 화려한 퍼포먼스 눈길

11월 22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우리의 대표적 무도인 태권도를 동양의 대표 사상인 불교적인 내용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동양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는 명품공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타마 싯타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뮤지컬 퍼포먼스 '타타 IN 붓다'가 드디어 선보였다. 10월 20일 프레스콜 현장에서 만난 '타타 IN 붓다'는 화려한 기술이 돋보이는 태권도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연출을 맡은 백재현은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지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만큼 이번 공연에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의미이다.

'타타 IN 붓다'는 2500년 전 인도의 왕자 싯다르타와 노예장수 타타의 갈등을 그린 줄거리를 바탕으로 격파, 겨루기, 품새 동작 등의 현란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뮤지컬에 출연진은 아시타역을 맡은 전문 배우 전수미와 임춘길을 제외하곤 모두 연기경험이 없는 우석대학교 학생 40여 명으로 이뤄졌다. 연기에선 아마추어인 학생들이 뮤지컬에 출연한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예상을 깨고 '타타 IN 붓다'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10월 20일 열린 '타타 IN 붓다' 프레스콜에서 백재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재현은 "호흡을 중요시 하고 절도 있는 동작들이 대부분인 태권도의 특징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우석대 학생들이 너무 훌륭히 소화해 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석대 학생들의 무대와 연기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간 동거동락할 정도로 이번 공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이번 공연은 기술적인 면으로만 비교해도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의 서커스'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태양의 서커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공연으로 만들 것이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타 IN 붓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때까지 그의 고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보인다. 이번 '타타 IN 붓다' 공연은 11월 22일까지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공연된다. (02)3674-1010 **이은정 기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0 밥은 사랑-부채여사 편<1>

'공주'의 따뜻했던 품과 음식을 추억하며

그녀는 늘 엉덩이까지 닿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흩날리며 교정을 바삐 걸어 다니곤 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긴 머리를 단아하게 묶고는 때로는 우아한 생활한복차림으로 때로는 도회적인 오피스 룩으로 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며 만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은 이팔청춘이 따로 없었다. 이미 불혹(不惑)을 넘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여서일까. 무엇에도 허허롭고 미혹됨이 없을 것 같은 그녀에게는 자타가 공인한 의외의 지병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공주병'이다. 공주의 귀품이라도 갖추려는 듯 그녀의 손에서 떠나질 않는 작은 부채가 박진감 있게 펼쳐져 팔랑팔랑 바람을 일으킬 때는 왠지 그녀의 태생이 믿어 의심치 않아져, 나는 그녀를 공주로 인정하고 '부채여사'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엄마가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키웠어. 어디 밖에라도 다녀오면 내 발을 품속에 넣어 데워주고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했거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국수를 만들거나 송편을 빚어도 그냥 하는 법이 없었어. 잡곡이나 치자를 섞어 색색별로 만들고,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엄마를 꼭 모셔가곤 했지. 집이 늘 북적였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때문이더라고. 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평범한 음식 한 가지에도 남다른 조예와 솜씨를 발휘하곤 했던 그녀의 엄마는 특히 청국장을 잘 만들었다. 깊은 장맛을 내기위해 집 주위에 있는 대나무의 잎을 따다 깨끗하게 소독해 짚을 만들고, 대나무살로 엮어진 소쿠리만 고집해 청국장을 뜨던 엄마는 방 하나를 아예 청국장 전용실로 만들었다.

"그 방은 아예 청국장 뜨는 방이었어. 구들을 만들어 장작불을 때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 있으면 몸이 녹아내리면서 분해가 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 장맛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누. 청국장엔 다른 거 일절 안 넣고 두부를 더플더플하게 썰어 넣고 파하고 고추만 넣고 끓였는데 그 맛에 다들 넘어갔지. 우리 엄마는 꼭 그렇게 끓였어."



두부를 더플더플하게 썰어 넣은 청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낙이라곤 도통 모르는 딸에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해먹이려는 모정은 감천(感天)의 경지였는데, 그런 엄마와의 이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엄마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대형트럭이 달려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금지옥엽으로 딸을 보살피던 엄마와 그렇게 이별한 지도 횟수로 5년이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도 모자라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핑계 삼아 하염없이 울곤 했다.

"그 사고가 없었으면 학교에 다닐 일도 없었을 거야. 말하자면 엄마 가신 빈자리를 메우려고 공부한 거야. 엄마 잃고 나서 내 손으로 밥도 끓여먹고 빨래도 해가며 철이 드는 것 같아."

꼭 이맘때면 텃밭에서 열무를 한 아름 뜯어 된장을 넣고 쓱싹쓱싹 밥을 비벼 사람들을 먹이는 낙에 설레발이었을 테다. 정성의 음식으로 사람들의 뱃속 마음속을 배불리 챙겨주던 모정이 가슴시리도록 청아한 가을하늘처럼 높고 푸르다.

"한때는 사람이 참 싫었지. 사람 좋아다 퍼주다가도 실망하면 한 번에 인연을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 별명이 한때 '쌍칼'이었다.(웃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다 끊어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어. 이제 나한테도 엄마의 끼가 있으면 장이고 뭐고 담가 사람들 퍼주는 재미로 살면 좋을 것 같아. 가는 날까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

이제야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된 부채여사는 어느덧 그리움에 사무쳐도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연륜의 소녀가 되었다. '만인의 엄마'가 되기 위해 독신을 고집하는 그녀가 이순(耳順)의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녀는 이맘때쯤이면 구들방에 청국장을 띄우느라 분주할 테다. 그녀의 엄마가 그랬듯이.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9 한방과 양방

한 · 양의학 함께 시행된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은 제각기 특징이 있다. 한의학은 만성질환, 원기회복에 장점이 있고, 양의학은 급성질환, 통증치료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한의학과 양의학이 공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정도로 손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다. 한의학과 양의학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례1) 40대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

양방에서는 엑스레이와 발의 워킹검사를 통해 요추 4, 5번과 골반이 불균형한 것을 진단하고, 교정요법을 통해 척추를 개선시켰다. 한방에서는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원인을 소장, 대장기능 저하와 출산후유증으로 봤다. 장기능을 좋게 하고 출산후유증을 개선하는 한약을 처방했고, 침치료를 했다.

이 환자를 괴롭히던 여러 증상들은 깨끗하게 없어지고 예전의 건강을 회복했다.

(사례2) 50대 남성 오십견 환자

양방에서는 엑스레이와 근육테스트로 오십견을 진단하고 PRP 프롤로 치료를 했다. 한방에서는 과민성 대장증상이 오십견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복부에 약침요법을 하고 대장기능을 저하시킨 식적(食積)을 제거하는 장해독단을 처방해서 원기를 회복시켰다. PRP 프롤로 치료는 자신의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를 추출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시술이다.

(사례3) 30대의 남성 편두통 환자

양방에서는 편두통의 원인을 턱관절불균형으로 진단하여 교정요법과 PRP 프롤로 치료를 했다. 한방에서는 어깨 통증이 편두통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어깨의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과 어깨에 침치료를 했다.

편두통은 뇌의 문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턱관절, 뒷목, 어깨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을 일으킨 턱, 어깨를 치료하니 증상이 사라졌다.

평소에 필자는 환자에게 나사를 조이는 치료는 양방이고, 기름칠을 하는 치료는 한방이라고 말한다. 한방과 양방이 함께 시행된다면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사와 양의사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체계와 언어를 갖고 있어서 소통하기 어려운데다 피부과, 치과, 안과 학회 등 자기분야의 전문가들끼리만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교류한다. 이러한 만남이 전공분야에 도움이 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 · 양방의사 모임 '제마'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분야의 치료사례를 발표한다. 한의사, 치과,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실제사례를 놓고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니까 신선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졌다.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 선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마' 스터디 모임이 꾸준히 진행돼 마침내 그 성과가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나니 기분좋은 일이다.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피부과의 새로 나온 스케일링 치료법을 서로 받아 보고, 정형외과의 새로운 척추교정요법을 시술하기도 했다. 필자가 처방한 정력한약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다. 스터디모임에서는 한의사가 링거도 맞고, 양의사가 보약도 먹는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종교 역시 불교와 가톨릭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학은 왜 만나지 못하겠는가? 한방과 양방이 오직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이라면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하나로 보는 통섭(統攝, Consilience)이 큰 화두라고 한다. 한방과 양방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한다면 세계 의학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02)576-7575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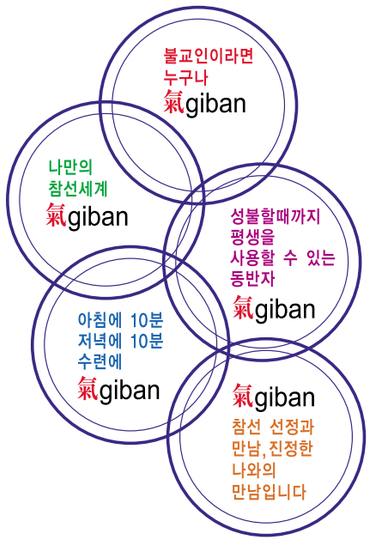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55호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 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불교마음수련원생 지도
면벽, 좌선, 예불, 명상다례 등을 통하여 심,신의 장애제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울증, 자폐증, 만성피로 등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함.
(팔공산 묘적암 성인 합장)
011-9371-8080

역학.빙의.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감정 위주로 속성 지도해 드림
운명 전화상담 가능
010-7443-3060
도통 합장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0-3045-0085

50대 후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소임 원합니다.
(작은 암자 맡겨 주시면 청정도량으로 바꾸겠습니다)
010-5346-6742

기도스님 모시고 싶은 사찰, 포교당은 연락 주십시오.
▷착실한 스님 있음
010-2068-0670

참 좋은 명리학
명리학자 금당 이종수
(3대 복심법 명리학 선종 학파 이수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5가 1-7 인쇄골목 2길.
010-5015-7175
명리학 상담가능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허위 과장, 일의 시작과 결과, 사업 성패 등 진실 100% 선택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정보 인연찾기 어떤 氣인가?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임
070-7758-3144
016-606-5658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032)522-8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경북 안동
054)822-3133
011-9576-4450

경관 좋은 산사에서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3647-0018

영험있는 산사에서 수행하면서 함께 사실 비구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시 연원동
054)534-4434
011-459-4434

산사에서 기도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4187-6777

사람 찾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용모단정하고 생각이 건실한 신심있는 60대 중반
▷경북 칠곡
011에 9045 또 90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천일기도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6-9506-5706

법당불사 인연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419-5852
011-9977-3934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2분
법당 보살님 1분
- 월 4회 휴무
- 보시는 상담 후 결정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삼화사
033)534-7661
010-2273-095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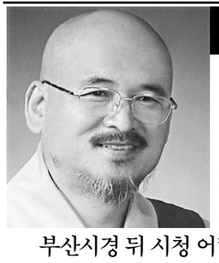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 / han10305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추석·기일·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주지직인 개인공고

- 사 찰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자인사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71번지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8년 9월 11일자로 새로운 주지 직인으로 바뀌었기에 이후 사용된 전주지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불기 2552 (2008년)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자인사 주지 우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 천 사
- 사찰명 : 일 휴 (최 재휴)
- 주 소 : 경북 김천시 구성면 흥평 2리 120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무료전화 : 080-080-7373 www.soomac.org
수맥탐사 지도사 전문자격증반 모집 개강

수맥탐사 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함으로 21세기 최고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서는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모를 질병,사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DOWSING 기법을 도입, 전문가를 양성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인원 - 수맥탐사 지도사

구분 \ 지역	서 울	대 전	전 주
3급 취미반 - 6주	수요반 19:00 ~ 21:30	화요반 10:00 ~ 12:30	수요반 10:00 ~ 12:30
2급 자격증반 - 12주	수요반 14:00 ~ 16:30	화요반 19:00 ~ 21:30	수요반 14:00 ~ 16:30
		토요반 10:00 ~ 12:30	금요반 19:00 ~ 21:30
속 성 반	* 해외, 제주, 기타지역 거주자		
3급 교육 희망 단체 상담환영			

※ 교육내용
탐사기구 사용법, 동.식물, 인체 영향, 수맥과 산소, 집터 관계법, 현장실습, 탐사도면 작성법 명상, 뇌파훈련 방법, 풍수지리, 인테리어(공간배치법)

2. 특 전
◎ 사)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2급 자격취득(국가민간자격등록 2009-0028)
◎ 수맥 상담 탐사지원, 개인 샵 지원, 강사파견, 1급 입학자격부여
◎ 환경처방 제품 지원, 중국 지회 견학 파견, 다우리 상조 활동지원

◇ **개강 예정일 : 서울 - 11월 4일(수) 14:00**
대전 - 10월 31일(토) 10:00
전주 - 11월 4일(수) 14:00
(선착순 모집)

※ 전 교육이수자에게 수익사업 알선지원 우수지도자 강사 배출파견

사단법인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교육문의 : 대전 (042)527-3373 / 서울 (02)337-3467 / 전주 (063)232-3467 / 청주 (043)291-0011 / 제주 (064)723-5110

755-232009.10.2710:29AM페이지1(1,1)

“어찌 하늘에 삼광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44> 류밀(劉謐) 거사의 <삼교평심론(三教平心論)>

불교로 마음, 도교로 몸, 유교로 세상 다스려
삼교 중 ‘궁극적 공능’ 불교만 한계 설정하지 않아



그림 · 김홍인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이하론(夷夏論)’에 바탕을 둔 중국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했다. 그에 따라 역대로 중국불교인들은 본토의 사상인 유 · 도 양가와 결코 차별이 없음을 강조해 불교 수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동한(東漢)의 모융(牟融) 거사의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으로부터 남북조 시기 양무제(梁武帝)의 ‘삼교동원설(三教同源說)’, 수(隋) · 당대(唐代) 이사겸(李師謙)의 <내덕론(內德論)>, 왕통(王通)의 <중설(中說)> 등에 나타나는 ‘삼교일치론’, 송대 장상영(張商英) 거사의 <호법론(護法論)> 등 중국불교의 역사는 가히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 · 도 양가를 포섭해 ‘삼교일치’를 제창하고자 했던 여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삼교일치’를 표방한 저작으로 이사겸 거사의 <내덕론>, 장상영 거사의 <호법론>, 그리고 류밀 거사의 <삼교평심론>(<대정장> 제52권에 수록)을 꼽는다.

<삼교평심론>은 온전하게 전해지지만, 아쉽게도 그를 찬술한 유밀 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팽제청의 <거사전>에는 다만 <삼교평심론>을 찬술했다는 기사가 이순보(李純甫: 1185~1231) 거사의 전기에 보이고, <불법금탕편>에는 유밀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지만, 거사의 호가 ‘정재(靜齋)’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삼교평심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삼교평심론>에 “정재학사류밀찬(靜齋學士劉謐撰)”이라는 저자 표기와 왕제왕(帝王) · 명신(名臣) · 거유(巨儒) 등의 전기를 모은 <불법금탕편>에 전기가 실린 것은 류밀 거사가 원대의 사대부 출신임을 추정케 한다. 또한 관련된 기록을 종합할 때, 이 논서는 대체로 원(元)의 영종(英宗) 지치(至治) 연간(1321~1323)에 찬술됐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삼교평심론>의 내용으로부터 원대 거사불교의 사상적 성향을 소개한다. 류밀 거사의 <삼교평심론>은 앞머리에서 삼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중국에 삼교가 있게 된 것을 살펴보면, 복희씨(伏羲氏)가 팔괘(八卦)를 그림으로부터 유교가 시작됐고, 노자가 <도덕경>을 지음으로부터 도교가 시작됐으며, 한(漢) 명제(明帝)가 꿈에 금인(金人: 佛)을 봄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됐다. 이것이 중국에 삼교가 있게 된 순서이다. 대체로 유교는 바름[正]으로써 가르침을 베풀고, 도교는 높음[尊]으로써 가르침을 베풀며, 불교는 큼[大]으로써 가르침을 베푼다. 그 가르침을 살펴보건대, 삼교는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임을 미워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仁)이며,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와 같이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공(公)이다.”

이렇게 중국의 삼교가 발생한 순서와 그 기본적인 성격을 밝힌 후에 송 효종(孝宗) <원도변(原道辨)>의 “불교로 마음을 다스리고, 도교로 몸을 다스리며, 유교로 세상을 다스린다”, 무진(無盡) 거사(장상영) <호법론>의 “유교는 피부의 질환을 치료하고, 도교는 혈맥(血脈)의 질환을 치료하며, 불교는 골수(骨髓)의 질환을 치료한다”, 이사겸 거사의 <내덕론>의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 별[五星]이다”라는 유명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어찌 하늘에 삼광(三光)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삼교 가운데 어떤 것 하나 결여될 수 있겠는가? 비록 그 우열은 있을지라도 치우치거나 폐함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내린다.

이는 불교에서 제창한 역대의 삼교관계를 근거로 삼교가 사회에 모두 존재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이어서 거사는 다음과 같이 삼교의 특징을 들어 삼교가 모두 필요함을 논술한다.

“유교는 중국에서 강상(綱常)으로써 인륜을 바로잡고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을 밝혀 사방으로 통하게 해 어긋나지 않게 했다. 이로써 천지만물이 자리잡고 자라게 했으니, 유교가 천하에 끼친 공(功)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유교를 제거하려 했으나 끝내 없애지 못했다. 도교는 중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청허하게 해 스스로 지키고 비약(卑弱)으로써 스스로 보전하게 하니, 어지럽고 요란한 습(習)을 단번에 씻어 정묵(靜默)한 무위(無爲)의 경계로 돌아가게 하니, 도교가 세상에 도움을 준 것은 지극하다. 그러므로 양무제(梁武帝)가 도교를 제거하려 했지만 끝내 제거하지 못했다. 불교는 중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함을 버리고 실상(實相)에 나아가고, 헛됨을 떠나 참다움에 돌아가게 해 역행(力行)을 말미암아 안행(安行)을 짓고, 자리(自利)를 말미암아 이타(利他)에 이르게 하니, 뭇 생명의 귀의처가 됨이 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무(三武)의 군주가 불교를 멸하려고 했으나 끝내 멸하지 못했다.”

양무제가 도교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만, 거사의 이러한 삼교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삼교의 필요성과 특징을 논한 후에 거사는 이른바 ‘삼교평심’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 ‘평심(平心; 공평한 마음)’이라고 하는가? 거사는 스스로 “내가 장차 삼교를 밝혀 분별한다면, 결코 사심(私心)으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애증(愛憎)의 마음으로 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그 마음을 공평하게 해 그 극공(極功)을 논구한다면 명확히 얼음이 녹듯이 될 것”이라고 ‘평심’의 각오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삼교를 논함에 있어서 ‘궁극적 공능[極功]’을 논구해서 ‘삼교’의 우열을 제창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거사는 “그 극공으로 말미암아 그 우열을 살핀다면 변론하지 않더라도 분명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사는 삼교의 ‘궁극적 공능’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 거사는 먼저 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유교의 가르침은 자신의 한 몸으로부터 한 가정에 이르고, 한 가정으로부터 한 국가에 이르고, 한 국가로부터 사해에 이르러 육합(六合)에 가득 차니, 그에 따라 지키는 것은 간략하지만 베품은 넓다. 그러나 만약 사해와 육합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써 세상의 교화를 도와 태평을 이룩한다.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고 몸이 늙으면 청사(靑史)에 남게 되니, 유교의 극공은 이와 같을 뿐이다.”

이로부터 거사는 유가를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그 ‘궁극적 공능’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의 ‘궁극적 공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도교의 가르침은 나의 몸으로부터 유명(幽冥)에 통하고, 인간(人間)으로부터 천상으로 초탈하며, 산림의 굴로부터 아득한 대라(大羅)와 높고 큰 금궐(金闕)에 이르니, 범부를 초월해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나 만약 천지조화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장생(長生)까지가 도교의 극공이다.” 이로부터 거사는 도교의 ‘궁극적 공능’을 단지 ‘장생’의 완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교의 ‘궁극적 공능’에 대해서는 불교의 거사답게 상당히 길게 논하고 있다. 우선, 불교의 전체적인 우주관을 ‘삼천대천세계’로 설명하고, 다양한 세간과 출세간의 법설(法說)을 소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처님은) 하늘중의 하늘이고, 성인중의 성인이며, 위없는 법왕이고 정등정각(正等正覺)이다. 따라서 모든 방편을 초월해 십력(十力)을 이루고, 또한 법계의 모든 유정을 도탈(度脫)시키니, 불교의 극공은 이와 같을 뿐이다.” 이로부터 거사가 제시하는 불교의 ‘궁극적 공능’은 유 · 도 양교와는 다르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교에 대한 “만약 사해와 육합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도교에 대한 “만약 천지조화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힐문은 유 · 도 양교의 ‘궁극적 공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사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힐문으로부터 거사가 삼교의 우월은 바로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이 엿보인다. 거사는 유 · 도 양교를 모두 ‘세간법’으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반해 불교는 “세간법으로 시작해 출세간법으로 귀결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또한 “삼교는 세간법에 있어서는 모두 뛰어남”을 지적하고 있지만, ‘출세간법’에 있어서는 오직 불교만이 ‘궁진(窮盡)’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삼교평심론>의 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삼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뛰어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 · 도 양교를 포섭해 삼교일치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과정에 류밀 거사는 스스로 ‘공평한 마음[平心]’을 강조해 ‘삼교평심론’이라는 제명을 달고 있지만, 이미 불교를 최고의 가르침으로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답게 불법의 진리를 체득한 거사라고 한다면, 조금의 ‘사심(私心)’과 ‘애증(愛憎)’을 개입시키지 않은 ‘공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삼교의 우월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삼교평심론>은 1000여 년이 넘는 삼교관계의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55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화정면
● 대지 300평, 건물
● 목조 황토집 40평
● 임법당 운영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78-3175

절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덕곡면
● 실버타운, 납골당 최적
● 낙동강 포구마을
● 평수 : 7700평
● 가액 : 평당 3만원
011-827-3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신시가지 2만세대 아파트단지 들어섬
● 3층 중 2층 ● 평수 : 총 60평 중
● 법당 25평, 방3, 큰방1 주방 大1, 거실, 화장실, 에어컨 2대 삼존불 모셔져 있고 탱화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4천만원 중 600만원만 받겠습
010-6553-2828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옆
● 평수 :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월출산 토굴안내
● 위치: 월출산이 바라보이는 수려한 동네위에 한가한 곳
● 평수 : 대지 250평, 전236 총 486평. 평지임 벽돌 스라브 건물약 40평(임법당) 창고 10평
● 남향, 주차장, 텃밭, 잔디정원과 연못이 있음
● 읍내 7분거리 국도2분거리
● 가격 : 1억 5천만원
061)471-9688
010-3558-16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 평수 : 61평
● 아미타불 원불 150불, 지장보살 50불, 관세음보살 276불
● 큰방1, 작은방2, 주방 1
● 건물: 8층건물에 4층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4천5백만원
031)972-1080
010-8558-931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 3층 25평, 법당 ● 가액: 2억 2천만원
● 4층 25평 요사채 ● 전세: 5천 5백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 전체 사용가능 (창고, 텃밭)
031)970-9008
011-9005-7007

양도합니다
경관 좋은
경주 남산
약불암
011-9375-2747

사찰대출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 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담보 대출전문
전국가능
금리년 6.7%~
사찰 거래 자금 대출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찰 거래 가능
문의 1600-9342
019-9004-9342
모기지 24
www.mbs24.co.kr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⑪ 사명도

오파 화풍 완성한 당인, 화폭에 문기 담아

명대 중기 이후에는 고상하고 격조 있는 화법을 통해 깊이 있는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문인화가들이 중국의 화단을 지배하게 된다. 특히 이들 활동의 근거지가 됐던 소주지방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문인적 취향과 심미안을 공유하는 문인집단이 형성됐다. 이들 중 오늘 그림으로 소개할 당인(唐寅, 1470~1523)은 시·서·화에 정통한 문인이었으며 특히 소주지방에서 활동했던 오파(吳派)의 화풍을 완성한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그의 생애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인(唐寅), <사명도(事茗圖)>, 지본채색, 31.1x105.8cm,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당인의 부친은 식품업에 종사한 상인이었다. 이러한 출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당인은 문인사회에 입문했으며 당대 저명한 스승들로부터 교육받는 행운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1498년 남경에서 열린 향시(鄕試)에 1등으로 합격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삶은 최고조에 이른 듯 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도 잠시, 다음해 북경에서 치러진 회시(會試)에서 그는 시험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운을 겪고 말았다. 이후 그는 여생을 글과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처연한 처지가 되는데, 타고난 신분을 뛰어넘어 학자로 인정받았으나 끝내 그림을 팔아 생활하는 직업화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때문에 그는 평생을 문인과 중인이라는 신분적 갈림길과 문인화가와 직업화가라는 직업적 갈림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림 속에는 그의 문기(文氣)와 기량이 한데 응축돼 있다. 그가 보여주는 예술적 성취는 바로 자신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걸어야했던 극렬한 모순성과 이것의 예술적 승화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원숙한 필치로 그려진 <사명도(事茗圖)>는 당인의 예술관이 잘 드러나는 수작이다. 푸르고 무성한 어느 여름, 문인들이 서로 만나 품다(品茶)를 하려는 정경을 담고 있다. 화면 가운데 초옥에 앉아 있는 선비는 정신을 모아 독서에 집중하고 있다. 책읽기와 차를 좋아하는 인물인 듯, 그의 곁에 제량호(提梁壺)가 놓여 있고 뒤편으로는 책장이 보인다. 초옥의 주변에는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섬세하고 우아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별채에서는 동자가 부채질 하며 차탕을 끓이고 있다. 이제 곧 차모임이 열릴 모양이다. 찻물 끓는 소리가 들려올 때즈음해 벗이 찾아준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 있을까. 때마침 오른편에 위치한 다리에는 한 인물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뒤로 거문고를 안은 동자가 조용히 따르고 있다.

비온 뒤의 아스라한 대기 저 멀리로 신비로운 모습의 산과 폭포가 보인다. 이 그림이 선사하는 묘한 매력은 바로 초옥을 감싸 앉은 바위와 산의 형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 당인은 과감하게도 차회(茶會)라는 문인적 소재 안에 직업 화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괴량감 넘치는 산형을 조화시켰다. 인간을 압도하는 북송대 곽희화풍의 산형을 부드럽게 변형시켜 인적이 드문 곳의 신비로운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진한 먹색으로 그려진 바위는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아한 색감의 초옥과 대비를 이루며 그림 전체의 공간감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그림은 상반되는 화풍과 필묵법을 훌륭히 융합시켜 결국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 냈다. 바위의 색을 머금은 왼편의 여백 위에는 그의 심회를 담은 시 한 수가 적혀있다.

긴 여름날에 무엇을 할까? 日長何所事
차를 즐기며 지내야겠네. 茗碗自賞持
아마 남쪽 창 아래에는 料得南窓下
맑은 바람이 귀밑머리까지 가득하리. 淸風滿鬢絲
(역: 박동춘)

여름날 차 한 잔을 마시고 온몸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 머리까지 시원해졌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문기어린 그림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당인. 그의 차향기가 이곳에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⑧ 해인사 무생계 수계법회



1326년 8월, 무생계 수계법회가 열렸다. "이것이 최상승의 무생계이니, 모든 선을 짓지도 말고, 모든 악을 짓지도 말아야 한다." 제자 각경(覺慶)은 서천(西天) 선사로부터 무생계를 받는다. 그리고 682년 전에 각경 스님이 받은 계첩이 1992년 해인사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불상인 비로자나불상 복장물에서 발견된다. 계첩의 표지에 그려진 변상도에 그 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받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5일 합천 해인사에서 네 번째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계를 받은 불자들은 무생계를 따라 읽으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그날의 모습은 그 옛날의 변상도를 보는 듯 했고,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은 무생계를 받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물소리 들리는 밤

세상 한 모퉁이를 흘러가는
가슴 찢긴 사람들
속살 환하게 다 드러내고 우는 저 물소리와
물소리의 모서리에서
밤새 등 기대고 우는 사람들
실꾸리 같은 생의 늪에서
늪의 생, 감아 올리며
밤새 호롱불 발그림자 세우며
베틀에 앉아 베를 짜던 퉁퉁 부은 한 여자의 얼굴이
물소리에 감겨 돌아오는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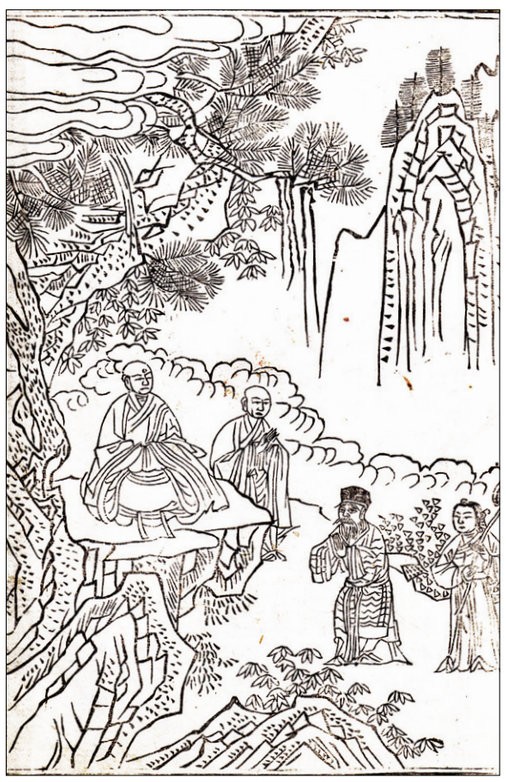
–이영춘, <통일과 문학> 가을호

옛 판화의 세계

집안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다 전가오도(全家悟道)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인도의 유마거사, 신라의 부설거사와 더불어 불교 3대 거사로 꼽히는 중국의 방거사 이야기로, 거사가 석두 화상과 마조 화상의 인가를 받고 깨우침을 얻은 후 온 가족이 다 진리의 눈이 열리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방거사의 이름은 온(蘊)이요, 자는 도현(道玄)이니 형양 사람으로 아버지는 형양(衡陽)에서 태수(太守)의 벼슬을 했다. 잠시 성남에서 살 때 수행할 암자는 가택 서쪽에 다 세우고 수년 뒤에는 전 가족이 득도하니 지금의 오공암(悟空庵)이요, 후에 암자의 아래 있는 옛 집을 희사하니 지금의 능인사(能仁寺)이다. 거사에게는 처와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대나무 그릇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사는 먼저 석두(石頭) 스님에게 참학(參學)하고 난 후 마조(馬祖) 스님을 알현한 후에는 본심(本心)에 계합하니 일마다 깊게 통하고 도에 계합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나라 때의 거사 방온은 형양 사람이다. 그는 집안 대대로 유교를 업으로 삼았는데 젊어서 번뇌의 고된 것을 깨달아 뜻을 세워 진제(眞諦)를 구했다. 처음 석두 화상을 만나자 말을 잊고 종지를 이해했다. 이때 석두 화상이 물었다. '선생은 이 노승을 만난 이래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소?' '만약 일용사를 물으신다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송을 지어 바쳐 일렀다. '날마다 하는 일 새로운 것 없습니다. 나하고 저절로 만나질 뿐입니다. 취하고 버릴 물건 하나도 없고, 거슬리고 어긋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붉은 빛 자주 빛 분별하는 이 누구입니까, 언덕과 산더미에 티끌 하나 없습니다. 신통과 묘한 작용이라는 것, 물 긷고 나무하는 일입니다.' 이 게송을 본 석두 화상은 머리를 끄덕이고 말했다. '선생은 스님인가? 속인인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사모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머리를 깎고 옷에 물들이지 않았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방거사를 유마의 후신이라 일컫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의 위치에서 보면 진실과 허망 역시 둘이 아닌 것이며, 승도, 속도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요, 번뇌가 있으므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깨침의 자리는 성현과 범부가 따로 없으며, 도의 세계와 일상생활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전가오도(全家悟道)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정확하고 올바른 다라니 독송은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덕산/신국판/294쪽/12,000원

천수경과 대비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

진언의 원문인 범자가 중국의 한자로, 그것이 다시 한글음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진언의 발음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저자는 가범달마와 불공 역 한역본의 대비주, 고려대장경 안의 대비주, 망월사본 대비주,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대비주 등 여러 판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재 독송되고 있는 현행대비주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비주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을 시도하였다.

소백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노선사의 서슬퍼런 선기와 파격의 사자후!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경북 영주 일대에 '욕쟁이 스님' 으로 유명하면서도 어린아이같은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봉철 선사. 일반 불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가볍지 않은 봉철 선사. 이 책을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견 파격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번뜩이는 선기와 사자후로 제자들을 제접하는 한 자유인이 내뿜는 선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238쪽/9,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외/신국판양장/400쪽/18,000원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우희종, 김진무 외/신국판양장/504쪽/23,000원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면역학에서의 성찰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윤원철 외/신국판양장/396쪽/20,000원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상좌부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대행 스님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복과 다름없는 것 아닌지요?

문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근본 자리를 찾기보다 주로 자기 남편,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복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답 그것을 꼭 기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댁이 만약에 늙어서 죽을 때에 남의 걱정 하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싸운다,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거기 참섭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겠어요?

또 한 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멍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하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건데 댁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당신이 남의 걱정 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저승엘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모든 것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모든 고정관념이나 아상(我相)을 죽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 걱정 하지 마시고 자기 앞길만 잘 보고 가세요.

공부가 안될 때는 어떻게…

문 공부를 하다 보면 잘되다가도 어떨 때는 답답하고 경계에 자꾸 끄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 가야 할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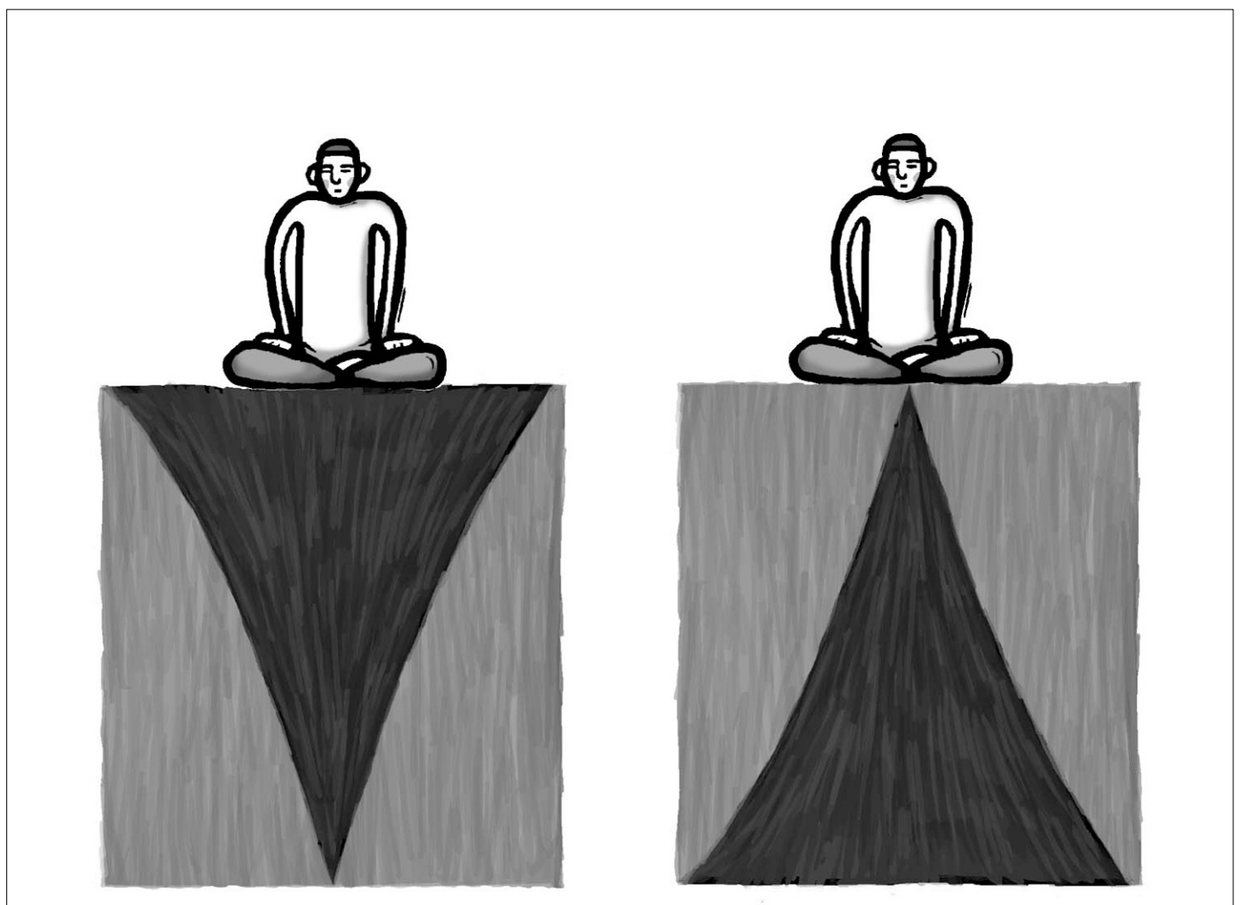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겁니다.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양면을 다 놓고 그 선장한테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만날 하는 말이지마는 거기에 닿지 않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의 선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지만 그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선장이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배 뒤집힐까 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야단법석을 하면 그 선장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고 말죠. 우리 몸뚱이를 배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지금 선장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그런다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되거나 답답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을 항상 켜고 사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밤낮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일죠. 하지만 파도와 잔잔한 물과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알맞은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즉, 탤런트가 영화 속에서 말은 배역을 하고 나면,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듯이 그런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어,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르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믿고 그냥 바로 직접 관한다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 건데, 이건 얼마 동안은 잘되더니 지금은 잘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까 '모르겠고 답답하고 말도 안되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고 가면서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으로다가 맡겨 보세요. 아시겠지요?

분별심이 많아 괴롭습니다

문 저는 분별심이 많아서 참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선, 악을 따지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맘에 안 맞으면 버럭 화를 내게 되고 잘잘못을 추궁하게 되고 그럽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온 습관이라 그런지 놓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도움 말씀 청합니다.

답 우리가 '악한 거, 선한 거' 이러는데 이 악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요. 그런 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악한 거는 나쁘고 선한 거는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악한 거를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너도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깐 여러분이 다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속으로 끓이고 그러지 마세요. 겉으로 '야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 못 봤죠? 그런데 그대로 넉넉하게, 속으론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 잘못된 걸 잘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은 또 따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아휴 인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

☞26면으로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buddhanews.com

그냥 철부지 애처럼 한군데만 믿고 편안하게 사세요

☞25면에서 계속

고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에도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가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이것저것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것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몰락 놔 버리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아, 여기에 삼살방이 들었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 하는 거를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리는 것도 넌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다 다 몰락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하! 야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박히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아무 데엘 갖다 세워 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것도 다 놓고, 놓는다기보다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나쁘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가 알아서 다 좋게 해. 좋게 살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철부지 애처럼, 아주 철딱서니 없는 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철딱서니 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깐 어른이 탁 잡죠. 어른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는데,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온통 모두 그냥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지켜 주고 이끌어 주고 해결사도 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보살도 돼 주고, 칠성 부처도 돼 주고, 주해신도 돼 주고, 주산신도 돼 주고, 어떤 거 안돼 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거는 다 돌보지를 못하죠. 저거는 잘났다니까 잘난 대로 살게 그냥 둡니다. 그냥 철부지같이,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그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 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하고 아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여러분도 이러니저러니 분별하지 마시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종교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자꾸 기독교 쪽으로 끌어당기지만 저는 불교에 관심이 좀 있는데 불교는 약간 미신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배울 때에 이 종교다 저 종교다, 이리로 가야 하고 저리로 가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 진리는 탐구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주처는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근본이 거기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천 대천세계의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고, 천지의 근본도 마음 근본에 있고, 태양의 근본도 마음 근본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살림살이 가설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느니라. 그러니 네 마음 하나만 물리가 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유(有)의 세계, 무(無)의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바로 통달하리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 국한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불교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의 마음 차원을 가지고 죽어 보십시오. 그 의식이 그냥 있어서 그 의식대로의 또 인연을 맺어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합니다. 그래서 독사는 독사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비가 바깥에 많이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빗물을 안 먹는 게 있습니까? 사람도 먹어야 하고 독사도 먹어야 하고 풀도 먹어야 하고, 하다못해 무정물도 먹어야 하고 식물도 먹어야 하고 안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루고루 다 먹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바로 약이 되듯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칼을 들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되지만, 강도가 칼을 들었을 때는 바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그 물을 먹는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사람을 해치는 독사가 먹는다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칼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그 여러 가지 칼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 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물을 먹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 한 그릇을 먹어서도 선의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약이 돼서 남까지도 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을 잘 닦아서 도살장에 가는 소가 있다면 "얘! 너 아프지 말고 옷을 벗고 요 다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고 나질 말아라." 한다면 금방 그 즉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영과 영이 둘이 한데 합친다고 해서 두드러질 일이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내가 물방울이라면 물방울을 거기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한 그릇이 아닙니까? 이 물 그릇에 이 물방울을 여기 넣으면 한 그릇입니다, 그냥. 그렇듯이 어떠한 짐승이라도 우리가 먹을 때 '얘!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네 모습이 내 모습이고, 네 살이 내 살이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할 때에 그 의식이 건져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다가도 '둘이 아닌데' 하면 그건 없어집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할 때엔 인과로서, 업으로서 나한테 닥치는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계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의식' 이고 '환상'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와 내 의식이 둘이 아닐 때에 환상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 찌들리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도깨비 굴에 들어가서도 도깨비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들이 딴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 도깨비 마음과 둘이 아니게 돼 가지고 선신의 행을 하니,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능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안으로 열심히 정진하셔서 그 마음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는데
> 옆에서 누가 싸운다,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 거기 참섭하느라 가던 길을 멈추겠어요?

이것도 공부 인연이겠지요?

문 저는 맞벌이를 하는 주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편도 가정일을 분담해서 잘 산다고들 하는데 저의 남편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집안일은 조금도 거들어 주지 않으니 몸보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싶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의 공부 인연이겠지요?

답 지금 여러분은 물질세계에서 살아나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겠지만, 죽어도 혼백은 영원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차원이 그것밖엔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나갈 때의 그 의식을 죽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물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불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런 게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불가에서는 '건너가세, 건너가세.' 이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해도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건너갈 수가 없죠, 물질세계로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이 내가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못 건너가지, 불바퀴 속을 못 건너가지, 모든 마구니 있는 데를 못 건너가지, 독사들 있는 데를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그런 물질세계의 차원만 봤기 때문에 영계가 생기고, 건너가지 못하는 혼백들이 떠돌면서 자기 가정에서 영 떠나질 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밖엔 모르니까. 그러니 죽으면 의식만 가져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까치 동굴에도 들어가고, 사람으로 부부가 사는 데를 들어가야 할 텐데 그걸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짐승들이 부부가 되는 데에 그런 데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고서 그 모습을 타고 이 세상에 나오면 그 모습대로 행을 하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때 누가 "아이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러죠?" 그러면 "얘,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모습을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 행동을 해야지 그럼 어떡하니?" 내가 그럽니다. 태어났으니 어떡합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행을 해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행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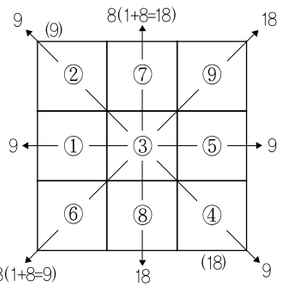
지금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 분수를 보지 않고, 자기 차원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맞서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숭배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부드럽게 하고, 못났든 잘났든 그 마음이 진정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다복할 겁니까? 그리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서로들 배신하고 서로들 엇각나고 서로들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삽니까?

그러니깐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이 의식을 놓아라 이 소리죠. 안되는 거는 '잘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병이 나도 거기서밖엔 고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밖엔 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또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이렇게 반복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맡길 것도 없고, 맡기지 않을 것도 없고 맡길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냥 살아나가는 게 아주 그대로 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현생의 그 몸뚱이만 알고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전생을 찾아야 진짜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전생이 지금 후생의 자기 몸뚱이를 이끌고 가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어떡하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그 자비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전생이거든요.

우리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좀더 믿음을 갖고 자기 근본, 전생의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겨놔 버리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책임10일 완성★
저자 :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구단구궁원리도]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흉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등 다양한
명운을 주저없이 판단 미래 예측함

개강 : 목, 금요일반 ——— (오후2시~5시)
토, 일요일반 ——— (오후1시~5시)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호상빌딩
(051)467-4665 010-7725-1024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 강 사 혜 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6-9506-5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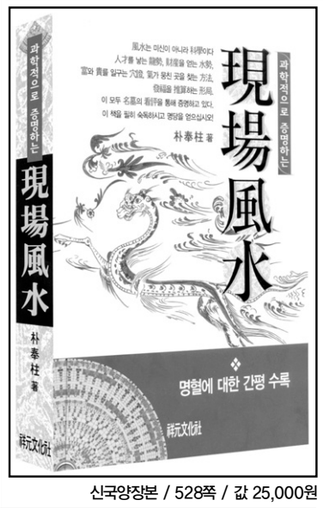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친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 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 사법론, 혈장총론 등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사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신룡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著
신국양장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계절은 잊혀져도 노래는 남듯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노래다. 이렇다할 추억은 없지만 가슴이 알알하다.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발표된 지 올해로 벌써 29년째다. 보통 특정 시즌이나 계절을 노래하여 애창되는 곡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매년 '특정일'에 그야말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방송되는 곡을 찾기는 어렵다.

음악방송모니터링 업체인 챠트코리아에 따르면 2005년 10월 31일 당일. 이용의 잊혀진 계절은 총 88회 방송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당일 2위가 서지영이 부른 <Stay in me>로 30회. 다음 해인 2006년 10월 31일은 잊혀진 계절 103회로 1위. 성시경의 <거리에서>가 45회로 2위. 2007년 10월 31일도 잊혀진 계절 131회 1위, 원더걸스의 <텔미>가 42회로 2위. 작년 같은 날도 잊혀진 계절 114회 1위, 원더걸스 <노바디>가 49회 방송되어 2위를 차지한 걸로 집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불기 시작한 잊혀진 계절에 대한 리메이크 붐으로 서영은, 김범수, 화요비 등의 버전으로 매년 같은 날 50회 이상이 선곡되어 왔고 특히 작년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4집에 수록된 <영웅재중>의 노래는 신세대들에게까지 가수 이용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의 곡을 비롯한 '잊혀진 계절'의 선곡 파워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곡 자체가 지니는 생명력 이외에도 대중들이 이 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학습효과를 원인으로 꼽는다.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10월 마지막날에는 어쨌든 한번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곡으로 각인되었다는 의미다.

그 언젠가 시월의 마지막 밤. 사랑하는 이와 고했던 이별의 아련한 기억이 매년 그날 떠오른다는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오빠부대에 불을 지핀 이용의 탁월한 가창력이 전설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절은 잊혀져도 노래는 남는다. 육신은 소멸되어도 말씀은 남는다. 성철 스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무수한 법어는 차츰 잊혀져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한 말씀은 중생들의 뇌리에 오래오래 각인되어 전해질 것이다.

인생은 백화점 만들기가 아니다. 좁고 험한 길을 외로이 가는 것이다. 그 길에 한 점 흔적을 남긴다면 이승에 다녀간 보람이다. 현란한 말과 번다한 족적은 후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혼란과 쓰레기다. 반듯하고 정갈하게 찍힌 발자국은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욕심이 과해 난삽하게 남긴 명예, 재산, 허언(虛言)들은 공해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꽃비처럼 몸에 쏟아진다. 낙엽은 제 가는 곳을 묻지 않는다. 울창했던 녹음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무명용사처럼 떨어지며 가을을 장식한다. 짓푸른 청록의 시절을 과시하지 않고 습기 빠진 여윈 잎새 되어 조용히 떨어진다.

눈만 뜨면 말의 성찬이 펼쳐진다. 귀는 열고 닫는 기능이 없어 마구잡이로 밀려드는 말들을 들어야 한다. 확신으로 똘똘뭉친 허언들이 창처럼 억센 기세로 귓전을 밀고 들어온다. 늦은 시간, 허허로이 홀로 가로수길을 걸으며 잊혀진 계절을 듣는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 애절한 노래를 들으며 고독과 겸허를 그리워하자. 잊혀지지 않는 오래된 말씀을 되새겨본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렵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당선자와 지지자의 책임과 의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예견된 대로 선거판은 조용했고 '역대최다'라는 수식을 동원한 압도적인 득표로 자승 스님이 새로운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다. 조계종 원로회의도 자승 스님의 당선을 인준했다. 이제 조계종은 총무원 수장이 바뀌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우선 임기를 마치는 지관 스님은 30일 공식퇴임식을 갖는다. 그리고 자승 스님은 11월 5일 취임식을 앞두고 각 직급에 어울리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떠나는 전임자와 새로 맡은 후임자의 발길이 분주하다.

4년 전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충격을 받은 조계종에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음으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지관 스님은 '실천하는 불교'의 기치를 무리 없이 실행했다. 포살결계 시행 등으로 내적인 가풍확립을 이루었고 대사회적인 불교의 위상과 역할 모색도 꾸준히 해 문화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책 기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종단의 안정이 무너지면 불교계는 곧바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자승 스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앞뒤와 좌우를 살피면서 새로운 종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 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종도들도 지지를 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겸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종단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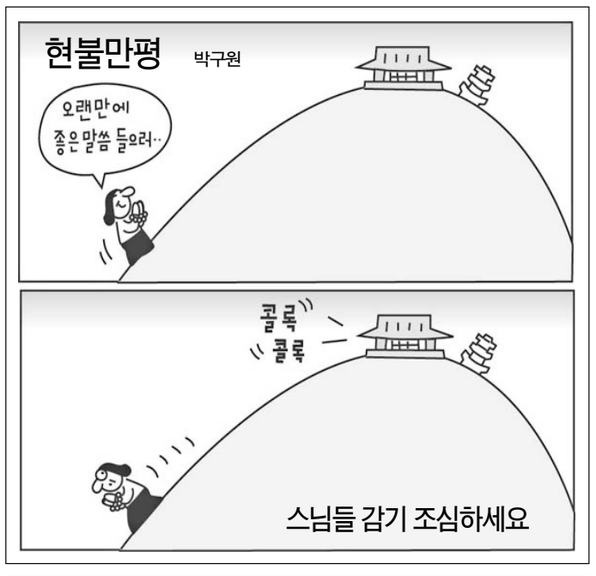
봉암사 국제선센터의 '무게'

문경 희양산 봉암사는 조계종이 계승한 선풍의 원류를 간직한 곳이다. 멀리는 구산선문의 하나이며 근세에는 성철 스님 등의 결사정진이 어린 곳이니 누구도 봉암사의 무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가 세워진다는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됐다. 그러나 최근에야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서 국제선센터 건립에 확실한 기초가 다져졌다. 이 국제선센터는 봉암사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불사다.

선불교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다.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불교적인 것의 이상형이 바로 선수행이다. 그런 선의 전통이 세계를 무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속빈강정이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선불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는 봉암사 지역에 국제선센터를 지어 외국인들에게 선을 체험시키고 선불교의 궁극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이 찬한 '봉암사지증국사적조탑'의 한 대목은 이미 천 년 전에 오늘날의 이 불사를 예견한 듯하다.

"겨울 산봉우리에 빼어나고 정림에서 꽃다우매 덕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사람이 산에 가득하고 악인이 변화하여 선인이 된 사람이 골짜기에 꽉 차게 되었으니 도라는 것은 폐하여 질 수 없는 것이요 때가되면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찬바람이 나면 생각나는 보살님이 있다. 보살님은 남편이 일찍 가고 세 딸을 키우며 어렵지만 진실한 불자로 살아왔다. 당시 큰 딸은 약혼한 상태였다.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중년의 여인이 집에 찾아왔다. 그 여인은 "가슴이 답답하네요"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때렸다. 그러면서 "등 좀 두드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보살님은 요청에 따라 등을 몇 번 두드려 주고 물을 떠다 줬다. 그리고 저녁 먹고 가라고, 방에서 좀 쉬라고 말했다. 보살님은 부엌에 가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퇴근한 딸이 "엄마!"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놀라 가보니 그 여인은 쓰러져 숨이 멈춰 있었다.

경찰이 오고 조사하자 보살님은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족들이 그만 앙심을 품고 고발했다. 결국 보살님은 '과실치사'(잘못하여 죽게 만듦) 혐의로 구치소에 가게 됐다. 등을 두드려 주고 물을 떠다주고, 너무나 결백했기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악용당한 것이다.

장모될 사람이 들어갔다며 큰 딸은 약혼자에게 파혼까지 당했다. 아버지 없이 키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님은 "절대로 그 죽은 사람이나 가족을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니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주라고 한다니까요." 동생보살님이 고민하며 나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간곡히 부탁해 결국 천도재를 지내게 됐다.

보살님을 면회가 창살 너머로 만났다. 기가 막히고 차마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내 걱정을 한다. "추운데 교도소 찾아다니며 힘드시지요?" 밝게 웃는 보살님을 보니 이 와중에 어떻게 남을 배려하실까 싶었다. 가슴이 저렸다.

"그 안에서 제발 건강 상하시지 않게 조심하셔요." 찬물과 난방이 잘 안 되는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구치소 생활이 환갑 넘으신 분에게 큰 걱정이었다. 뜻밖에도 보살님은 "힘든 일은 도 맡아 해요." 나는 놀라서 "네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보살님이요? 그러다 큰 일 나셔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업을 갚고 싶어서요. 전생에 그 사람에게 잘못 했나 봐요. 열심히 감사하게 참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전화한 동생보살님은 울었다. "아무 잘못 없이 저 고생을 하면서 언니는 원망도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니! 딸들에게도 절대 상대방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만 하니, 그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저도 불자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는 눈물을 참지못하고 간신히 대답했다. "네,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본래 부처라고 말씀 하셨다. 부처님 법이 한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피어나서 세상의 원망과 고통을 자비와 용서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결실이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마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발원 올립니다.

나무 지장보살마하살.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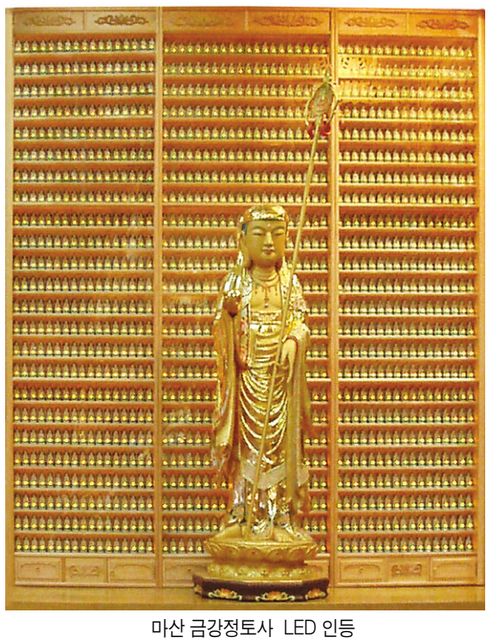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 름 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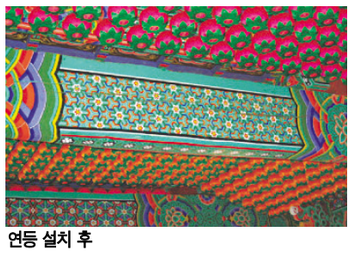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쵤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 × 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